

城南文化研究

第16號・2009



城南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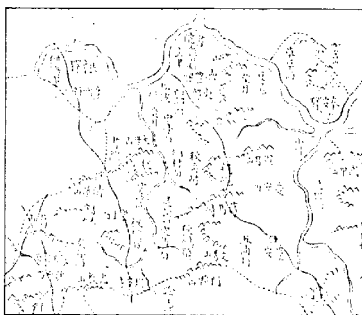


9 772092 792408

ISSN 2092-7924

城南文化研究

第16號・2009



 城南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所

성남연구의 구슬 꾸러미



한 준 섭(성남문화원장)

『성남문화연구』는 우리 성남시의 역사·문화에 관한 연구논문집으로서 유일한 정기간행물이며, 성남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위원들이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펼친 소중한 성과물이라 하겠다. 본인의 제안으로 1993년 9월 20일 성남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가 부설기구로 설치되었고, 이어서 1994년 5월 20일에 『성남문화연구』 논문집 창간호가 발행되었으며, 그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아니하고 연구 성과를 이어오며, 2009년 올해 제16집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옛 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다. 성남문화원은 남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에 대하여 투철한 애향심으로 연구해 왔다. 우리 성남시에 산적한 역사의 잔 가지들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묻혀 있던 보석들을 구슬처럼 한 줄로 꿰어 놓았으니, 이것이 곧, 『성남문화연구』 논문집이다.

그간 향토문화연구소는 성남시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 묘 등 문화재 지정 청원 사업을 통하여 14건의 문화재 지정 실적과, 둔촌 이 집 묘역을 향토유적 제2호에서 경기도기념물 219호로 승격 지정(2008. 5)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1996년부터는 매년 빠짐없이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에는 제14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14차례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성남시 관련 논문 66편이 발표되었고, 『성남문화연구』 논문집을

통해서 이번 16호까지 119편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 외 학술토론회와 향토문화총서의 발행, 천림산 봉수터의 복원을 위한 노력 등 실제로 성남에 관한 모든 분야의 연구 성과를 보유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성남문화연구』 제16호에는 문수진 소장이 모란시장에 관한 주제로 하여 시장발달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이는 모란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대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5일장으로서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속, 관광, 지역경제 등의 측면에서 연구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손환일 교수의 한지 실용화 전략 또한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목되는 논문이다. 수 천 년 동안 우리 생활에 사용되어 온 한지는 그 품질의 우수성과 한지 교육의 장점이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하게 실용화 되고 있다.

또한 윤종준·조남두·권일·홍성일 연구위원님의 논표도 각기 이채로운 주제로 특성을 지닌 글들이다. 이처럼 성남의 역사와 문화, 교육의 문제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우리 성남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며, 보다 발전된 미래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얼굴을 그려나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는 앞으로 성남시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찾아 나가는 한편, 이를 현대사회에 의미있는 소재로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 매진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 정책에 따라 등장하게 될 광역 도시의 성립에 대비하여 인접 지역과의 협력과 교류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이미 3년 전, 본인의 제안으로 광주, 하남, 성남의 3개 문화원이 협의회를 구성한 사례가 있어, 문화적 공동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나갈 사안인 것이다.

2009. 9. 20

목 차

발간사	성남연구의 구슬 꾸러미 · 한춘섭(성남문화원장)	7
문수진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과 성남 보관시장	11
손환일	한지(韓紙)의 현대적 실용화 전략	36
조남두	성남지역의 취학전 교육 실태조사 연구	66
윤증준	탄천(炭川)의 지명 유래와 역사 고찰	90
권 일	성남시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17
홍성일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특성 연구	155
부 록	성남문화연구 1~15호 연구 논문 총목록	187
	학술회의 1~14회 연구 논문 총목록	191
	학술토론회 1~7회 연구 논문 총목록	194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과 성남 모란시장

문수진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전 신구대 교수, 한국사

차례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
- III. 조선시대 성남지역의 교통로
- IV. 근대화와 성남의 시장
- V. 성남시의 발전과 모란시장
 - 1. 성남시의 성립
 - 2. 광주대단지 사건
 - 3. 모란단지 사건
- VI. 모란시장의 발전방향
- VII. 맺음말

I. 머리말

인간경제의 발달에서 시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 하지 못한다. 개인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역마다 생산물이 다르고 생산량의 차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시장에서 행하여진다. 우리 역사상 시장경제의 발달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다. 오랜 옛날에는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이었지만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육구를 채우기에는 자신의 생산물로만 만족을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필요로 하고 시기적으로 달리 생산한 것을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미 고조선시대에도 중국과의 중계무역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시장이 형성되고 해상활동과 더불어 무역이 이루어지고 각지에 해상세력을 심어 영역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의 활동은 해상왕국이었다고 할 만큼 놀라운 세력을 키우기도 하였다. 고려·조선시대에도 중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장시가 발달하여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이루어졌다.

근대화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였다. 성남은 급격히 발달한 도시로서 도시화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모란시장은 성남의 대도시 성장과정에서 특이하게 발달한 시장이다. 5일장은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발달한 시장이다. 급격히 발달한 교통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소멸돼 버린 5일장이 성남의 모란시장에서는 왕성하게 존속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시장의 발달에 대하여 이경식은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에서 조선시대 장시(場市)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역사적인 고찰을 했다.¹⁾ 조선 후기의 장시발달에 관해서는 한상권의 연구가 있다.²⁾ 성남시의 성장과 모란시장의 발달에 관해서는 『城南市史』³⁾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모란단지 개발에 얽힌 이면에 관해서는 한춘섭의 「모란지역의 향토사 정리」⁴⁾가 유일하다. 성남문화원에서는 모란시장에 관하여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1) 李景植,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57, 1987. 43쪽~91쪽

2) 韓相權, 「18세기말 19세기 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研究」 『韓國史論』 7, 1981. 179쪽~237쪽, 198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3) 성남시사편찬위원회, 『城南市史』, 2004.

4) 한춘섭, 「모란지역의 향토사 정리」 『성남문화연구』 제2호, 1995.

모란시장의 발생과 성장에 관한 조명을 하였다. 모란시장이 현재 성남을 대표하는 민속5일장으로 자리하는 데에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서울 주변에서는 5일장이 사라지고 지방에서조차 극히 드문 상태다. 그런데 모란 시장이 민속시장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남았고 5일마다 서는 정기시장으로서의 역사성도 있다.

성남시의 성장과정에서 수난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광주대단지 사건이나 모란단지 사건은 아픈 기억이다. 실제로 잘못 전해진 모란단지개발 사건이나 광주대단지 사건은 당시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인물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더 파악해야 할 것이다. “모란”이라는 지명이 행정동명으로 남지 못하고 진철역 이름과 모란시장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아쉬움이다. 모란시장의 위치가 결국 분당과 판교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성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모란개척의 숨은 인물이 먼 장래를 내다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모란민속5일장을 성남을 대표하고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이 옛 시골장터의 향수를 찾게 하는 곳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장의 발달과정과 조선시대 향시, 장사에서 그 민속장터의 연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산업이 변화하고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5일장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모란 민속시장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II.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시장에 대한 기록으로서는 신라시대 소지왕 12

5)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 제14회 성남문화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9, 5, 29.

년(490)에 시전을 설치하여 사방의 물자를 유통하게 하였다고 하였다.⁶⁾ 이후 지증왕 10년(509)에는 동시(東市)를 설치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수도에 개설된 시장이고 지방에 시장이 형성된 것은 고려시대에 지방에서 비상설적인 조신의 장시와 같은 것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장시는 대개 방오(方午)에 열렸고 교역에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쌀이나 베를 사용하였다. 방오라는 것은 정오를 뜻하며 일중에 장이 열린다는 것은 교역자가 개시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루 왕복거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 교역하므로 아침에 나와서 장을 보고 저녁까지는 귀가할 수 있도록 일중에 시장이 열렸던 것이다.⁷⁾ 송나라의 서금이 고려에 왔다 가서 쓴 『고려도경』에 이러한 장시를 허(墟)라고 하였으니⁸⁾ 송나라의 양자강 이남 강남지방에서 열리던 촌의 정기시장 즉 촌시(村市)를 일컫는 것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조선의 장시와 같은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시장을 장시(場市), 또는 향시라 하였다. 장시는 처음에 장문(場門)이라고 불렸으며 장시의 출현이 중앙정부에서 공식으로 처음 거론되기는 15세기 말 성종 초였다. 지역은 전라도였고 동기는 흥녕이었다.⁹⁾ 이때는 한 달에 두 번씩 열었다. 주로 나주·무안 등지로서 비곡이나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점차 10일에 한 번씩 열리게 되었다. 장시의 지속적인 확대·보급에는 농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이 작용하고 있었다. 농민·수공업자 등 직접생산자들은 장시를 통하여 직접 서로 물자를 교역함으로써, 상인의 손을 거치는 것보다 염가로 구

6) 『三國史記』『新羅本紀』, 炤知王 12년 “初開京市以通四方之貨”

7) 이경식, 『앞의 논문』 76쪽.

김동철, 『고려시대의 상업과 화폐』,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448쪽

8) 『高麗圖經』卷3, 城邑 貿易.

9) 이경식, 『앞의 논문』 45쪽. 『成宗實錄』 27, 성종 4년 2월 임신 “庚寅之荒 全羅道人民 自相聚集 以開市鋪 號爲場門”

득하고 고가로 판매할 수 있었다. 이득 또한 이들에게 직접 돌아갔다.

이러한 장시의 발달은 농업에 큰 폐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 장시의 성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들이 생업에 이득이 나는 상업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1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시대의 사상(私商)의 성장은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를 토대로 하였다.

농민들은 행상에게 물건을 파는 것보다 장시를 이용하면 필요한 물건을 좀 더 싸게 구입하고, 가진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였다. 장시는 지방민들의 교역장소로, 인근의 농민·수공업자·상인들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직접 교환하여 교환시장, 곧 농촌시장으로서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인근의 장시와 연계하여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를 테면 16세기말 임진왜란 당시 충청남도 임천(林川)에 거주하던 오희문(吳希文)이 1593년(癸巳) 6월 중순부터 1597년(丁酉) 2월 말까지 장시에서 물자를 구득·판매한 기록을 일기에 기록한 『쇄미록(瑣尾錄)』이 있는데 5일마다 장이 열리고 있었다. 임천을 중심으로 홍산(鴻山)·서천(舒川)·한산(韓山)·비인(庇仁)·남포(藍浦)와 전라도 함열(咸悅)이 한 상권을 형성하여 5일마다 장이 열렸다.¹⁰⁾

장시는 「1월 6장」으로 한 지방에서 매월 6회씩 개시된다. 즉 1,6일, 2,7일, 3,8일, 4,9일, 5,10일의 순서로 한 지역에서 열린다. 5일마다 열리는 장시가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관에서는 농민들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몰릴 것을 염려하여 장시

10) 이경석, 「앞의 논문」 55쪽

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나 일부 장시는 정기시장으로 정착하여 왔다. 15세기 말 남부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18세기 말의 장시 중에서 광주(廣州)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다.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상인은 보부상이었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한 행상으로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여 일정 지역 안이나 전국적인 장시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였다. 보부상들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문방구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보부상 단체는 조선 후기에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III. 조선시대 성남지역의 교통로

성남지역은 조선시대에도 수도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지금의 수도권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 광주에 속한 곳으로 서울에서 남쪽지방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낙생·관교 등의 역과 단대오거리 등이 교통의 중심지로서 발달하였다. 조선 초기에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이 지역에 낙생역(樂生驛)·경안역(慶安驛)·덕풍역(德豐驛)·봉안역(奉安驛)이 있고 관교에는 원(院)이 있어 3남 지방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¹¹⁾ 교통기능을 담당했던 역원제도(驛院制度)가 중간에 공용물자(公用物資)를 수송하는 임무를 겸하게 되었다. 더욱이 통신 기능을 맡

11) 『世宗實錄地理志』卷148, 廣州牧, 『新增東國輿地勝覽』卷6, 廣州牧 驛院

있던 봉수로서 내곡동 천림산 봉수가 있어 중요한 통신 임무를 맡고 있었다.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에는 봉수제를 폐지하고 파발(擧撥)으로써 변경의 변고를 알리게 하였는데, 이를 파발제도라고 한다. 파발제에서 '성남지역' 내에 설치되었던 발참은, 전국의 서발(西撥)·북발·남발 중, 서울에서 동래까지 이어지는 남발의 31참에 속하였다. 그 조직은 『대동지지, 大東地志』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동남지동래대로보발(東南至東萊大路步撥)'로서 삼남대로 중의 하나였다. 서·북·남발을 두는 것은 명·청 등 대륙방면의 변보와 남으로 왜에 대한 의식이 파발제도에 반영된 것이다.

'성남지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는 서울에서 동래까지에 이르는 좌로와, 서울에서 통영까지에 이르는 중로로서, 모두 '성남지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였다. 좌로는 서울에서, 신천진(新川津)－송파참(松波站, 撥所)－음촌참(陰村站, 撥所, 陰村店)－이보현(利保峴, 또는 利保峙, 利保院, 利北峙, 理輔峙, 二夫峙, 二拜峴이라고도 보임)－경안참(慶安站, 撥所, 暮甘店)을 통과함으로써, '성남지역'을 서북으로부터 동남으로 지나 쌍령(雙嶺)·이천으로 해서 삼남대로로 이어지고, 중로는 서울에서 양재역(良才驛)－율현점(栗峴店, 속칭 '방고개')－낙생역(樂生驛)－용인(險川)을 통과함으로써 '성남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여 삼남대로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특히 좌로가 통하는 세촌면(細村面)의 중심인 음촌참(지금의 단대오거리)은 발소와 주막을 겸비한 교통의 요지였으니, 음촌발소에는 발장(撥長) 1명과 군졸 2명이 배속되어 있는데, 발장은 남한산성내의 장교 중에서 차출하고, 경기감영에서 지급하는 월 5냥의 근무수당이 주어졌다. 이 음촌참은 뒤에 율목참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개 이보재[利保峴]를 거쳐 경안역에 이르렀으나 간혹 갈마치(渴馬峙)를 거쳐 경안역에 이르기도 하였다. 갈마치를 경유할 경우에는 중간에 삼가리점(三

街里店)이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대왕면에 있던 율현점(지금의 세곡동)에서 도중에 좌로로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의 하대원동(下大院洞)을 지나 갈마치를 통과하여 경안에 이르기도 하였는데 하대원에는 '대아원(大也院)'이 있어 역시 행로자의 숙식 편의시설이 있었다. 역이나 원에는 주점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성남지역은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하여 교통이나 통신으로서의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송파나루에는 큰 시장이 열리게 되고 이 영향은 오늘의 성남지역에까지 미쳤을 것이다.

IV. 근대화와 성남의 시장

15세기말, 16세기 중엽 하삼도(下三道)에서 개시되기 시작한 장시는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활발한 발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울은 원래 시전체계(市廛體系)를 바탕으로 물자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경기지방의 장시 개설을 금지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경기 내 장시개설금지 원칙이 무너지고 경기지방에 장시가 개시되는 회수가 점점 빈번해졌다.

이처럼 경기지방에 장시가 활발하게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일찍이 하삼도지방에서 발달을 보이기 시작한 상품화폐경제의 추세가 확산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적어도 숙종조를 전후로 하는 시기까지는 읍치(邑治)와 정치·군사적 요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시장 개설이 읍치 중심의 국한된 범위를 넘어 산곡 간에까지 지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7세기 말, 18세기 초였던 것으로 보

12) 환상권, 「앞의 논문」, 181~182쪽.

여진다.¹²⁾

임진 병자의 양난을 겪으면서 남한산성은 중요한 국방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광주유수는 비변사 회의에 참석하는 오늘의 국무위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성 외곽에 있던 성남지역은 중요한 조달 창으로서의 구실을 하였다. 오늘의 창곡동은 군량미를 비축하는 창고를 두었던 곳으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17세기의 장시는 읍치 중심으로 개설되는 단계를 극복하고 지역적으로 산간(山間)에까지 확산되면서도 그 기능면에서는 개별·분산적으로 존재하면서 고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¹³⁾ 18세기에 들어서서 다수의 장시가 신설되는데 그 배후에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대장시(大場市)가 소장시(小場市)를 흡수통합하고, 또는 동일한 장시가 통합하여 대장시가 되고 이거(移居)하는 경우도 있어 소장시는 소멸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5일장은 해방 이후 성장하여 1970년대에 최대로 늘어났다. 1950년 668개에서 1960년 826개로 늘었다가 1970년에는 996개로 늘어났다. 이후 1976년에는 952개소를 유지하다가 1988년 747개로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06년 현재 562개소로 해방 직후인 1950년보다 적은 숫자만 남아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에는 정기시장이 상설시장보다 많았다. 그러나 2006년 상설시장 수는 1,155개소인데 반해 정기시장인 5일장은 562개소에 불과하여 상설시장 수가 훨씬 많아졌다. 상설시장은 30여 년 전에 비해 369개소, 47%가 증가한 반면, 정기시장인 5일장은 비슷한 기간 390개소, 즉 41%가 감소하였다.

정기시장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첫째로, 도시화와 농촌 인구

13) 한상권, 「앞의 논문」, 185쪽.

의 고령화, 둘째로,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 셋째로 농업생산의 전문화와 유통근대화를 꼽았다.¹⁴⁾

성남지역은 수도 서울의 외곽으로서 삼남지방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으로서 오늘의 판교원에 낙생시장이 발달하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삼전동 일대의 송파나루 시장이 크게 발전하였다. 송파장시는 3남 및 북도(北道), 영동의 상인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이름은 5일장이지만 마을에 상품을 쌓아 놓고 매일 사고파는 시장으로서 18세기 중엽에 이미 상설시장화 하였다. 민속 탈춤으로 송파탈춤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이 지역에 시장이 서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후에 모란시장이 발달하게 된 것은 어쩌면 낙생시장이 쇠퇴하고, 송파 시장 구역이 도시화하고 송파나루가 제 구실을 못하면서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라 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V. 성남시의 발전과 모란시장

1. 성남시의 성립

성남시는 1960~1970년대에 급격하게 조성된 신도시이다. 서울의 인구 과잉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강제 이주시켜 만들어진 것이다. 먼저 성남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원인을 살펴본다. 성남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성남시사』의 내용을 옮겨 본다.

성남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해방직후에 시작되었다. 이 명칭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서 '중부면 성남출장소'를 설치한 데서 시작한

14) 이수철, 「'모란 민속 5일장'의 사회사적 의미」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 제14회 성남문화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9. 5. 29.

다. 당시의 중부면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63.35km²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면사무소가 남한산성 내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한산 서남쪽 지역을 관할하는 데 이리한 점이 많았다. 또한 남한산의 서남쪽 주민들도 지형과 거리문제 등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늘 불만이어서 출장소 설치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군은 중부면 관할지역을 성동과 성남으로 구분하여 교통이 불편한 서남쪽 지역에 1946년 3월 3일 중부면 성남출장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46년 3월 3일 중부면 성남출장소의 관할지역은 중부면에 속한 단대리(丹垓里)·탄리(炭里)·상대원리(上大院里)·수진리(壽進里)·북정리(福井里)·창곡리(倉谷里) 등 6개리였으며, 관할 면적은 총 27.43km²이었다. 결국 이때부터 성남이라는 공식명칭이 이 지역에 붙게 되었는데, 중부면장 감독하의 중부면 출장소는 그 뒤 1964년 4월 1일에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사무규칙이 제정 공포되면서 광주군수의 직접 지휘를 받는 실질적인 면기능(面機能) 수행기구로 격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6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대리·탄리·상대원리·수진리·창곡리 등 5개리 지역 300만평에 주택단지 건설을 벌이게 되면서 성남지역은 갑자기 부각되었다. 당시 얼마동안은 성남이라는 명칭이 뒤로 밀려나고, '광주대단지(廣州大團地)'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주택단지 건설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울시의 사업소 명칭이 '광주대단지사업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광주군수의 지휘를 받는 중부면 출장소는 그대로 지속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명칭은 여전히 성남이었다.

1971년에 경기도 직할의 경기도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어 종전의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 외에 둔마면·대왕면·낙생면을 포함하여 1개 출

장소, 3개면을 그 관할구역으로 정하였다. 이로써 현 성남시 구역이 모두 성남으로 지칭되기 시작하였고, 면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격상되어 과거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우선 그 면적부터 27.43km²에서 128.5km²로 크게 불어나 이제 성남은 광역 지방행정구역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행하던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경기도가 인수하자 사업명칭도 '광주대단지사업'에서 '성남단지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부터 성남이라는 지역명칭은 행정적인 명칭으로나 사회적인 통용 명칭으로나 공히 통일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명칭의 정착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법정 명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식 명칭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1973년 7월 1일에 드디어 성남시가 탄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남은 확고부동한 법정의 공식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다.¹⁵⁾

2. 광주대단지 사건

성남시가 탄생되면서 가장 큰 사건은 광주대단지 사건과 모란단지 사건이다. 성남시는 광주대단지 개발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이다. 서울특별시에 산재한 부허가 건물들을 정비하려는 목적 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된 철거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광주대단지 개발이 급조되었고, 그 후 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지, 상업용지, 공장 등이 대거 건설되면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당시 경기도는 광주대단지 사업의 내용이나 향후 발전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실시에 동의했고, 서울특별시는 건설부의 인가를 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졸속의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15) 『성남시사』 2권, 307~309쪽, 2003

은 서울특별시 자체의 문제만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계획한 것도 아니다. 이는 그 사업이 정치적 혹은 정권 차원에서 결정되고 추진된 것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¹⁶⁾

서울특별시가 확정한 '대단지주택지조성계획'은 1966년 당시 서울 인구 380만 명의 15%나 되는 55만 명을 이주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단 두 쪽의 계획서로 발표되고, 그것도 대부분 주먹구구식 계산에 의한 나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이나 세부시설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철거민대책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지방 분산이나 미개발지역의 개발 등 실제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화려한 목적을 내세웠다. 시책이나 방침도 너무 당연하고 필연적인 도시의 요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집행계획 또한 위치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모만 그럴 듯하게 꾸민 데 지나지 않았다. 주택지 경영사업은 정부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땅 장사”를 하려는 것이었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철거민에게 주택건립마저 자비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¹⁷⁾ 이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수정 내용은 개악에 가까운 것이었다. 총 500만평의 토지를 확보하여, 10만 가구 55만 명을 이주시키려던 계획이었으나 1968년에 1차로 확보하려던 300만평의 토지에 같은 수의 세대와 인구를 이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광주군 중부면 주택단지조성계획'은 불과 300만평의 토지에 무려 10만 세대, 55만 명의 철거민을 단 3년에 이주시키려는 것이었다.

주택단지 조성에 문제가 있었다.

첫째, 지형적으로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개발 400m 이상의 산들이 이어져 가파른 계곡을 이루는 험난한 산세에 경

16) 『상남시사』 2권, 338쪽, 2003

17) 『상남시사』 2권, 346~347쪽, 2003

사가 급한 단천까지 급하게 형성된 지역이었다. 대단위 택지지역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택지로 조성하기에는 엄청난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둘째, 매입지 문제로 정지작업을 하는 군데군데 미매입지가 있었는데 시공업체는 공사를 강행했고 지주들인 원주민은 거세게 항의하는 등 마찰이 잦았다.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는 1968년에 1,700세대 9만 3천 500명의 철거민을 이주시키려 했었고, 1969년에는 그보다 2배가 넘는 4천 300세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1969년에야 정지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획상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급히 택지조성을 해야 했고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게 되어 원주민 지주들과 마찰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셋째, 택지조성을 위한 공사비 문제였다. 서울시는 정지작업비로 평당 430원을 책정하였으나 가파른 지형과 암반으로 된 지질로 인해 그 정도의 작업비로는 불가능했다. 시공업체는 여러 차례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비의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공정이 지체되기 일쑤였다. 토지의 매입급도 모자라 미매입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지작업을 위해 예산에도 없는 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제대로 정지작업을 하지 못한 채 능선과 산기슭, 골짜기가 그대로 노출된 원래의 지형이 오늘날까지 성남시의 중심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1969년 말까지 20만 5천평의 택지가 조성되었고, 4만 5천 280평의 토지에 10~30m폭의 도로들이 만들어졌다. 택지를 위한 정지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철거민의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정지작업 자체가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이주민들의 거주할 주택은커녕 택지 정지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임시 천막에 '가수용(假收容)'이란 명목으로 대거 입주가 이루어졌고, 입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택지 분양이 착수되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

광주대단지에 서울특별시와 무허가 건물 철거민이 처음 입주한 것은 1969년 5월 2일이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건설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은 지 겨우 1년밖에 안 된 때였고 토지 매입이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택지 조성을 위한 정지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2개월도 채 못 되는 시점이었다. 한창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목공사판에 천막을 치고 살라는 것이었다. 이른바 선입주후건설의 전형적인 양상이었다. 입주가 시작된 지 첫 나흘 동안에 48세대 154명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동안에 무려 500세대 2천 352명이 입주했고, 12월 말까지 총 2천 213세대 1만 1천 133명이 입주했다.

이주대책은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의 이주민이 대기 정착하면서 성남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광주대단지 개발은 본래의 의도나 목적과는 달리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주민들의 도시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집단적 저항이었던 8.10 사태는 1971년 7대 대통령선거(4.27)와 8대 국회의원선거(5.25)가 있는 직후에 일어났다. 선거과정에서 광주대단지 문제가 거론되었고 조속한 해결이 약속되었으나 선거 후에도 달라지지 않자 대규모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다.

8.10 사태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의 주체인 서울특별시가 분양증을 전매하여 들어온 일반 입주자들에게 택지를 고가로 매입하라고 요구했고,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가옥에 대한 취득세를 내라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곧 택지 매입 요구와 가옥 취득세 부과가 8.10사태가 대규모의 난동으로까지 전개된 것은 광주대단지 입주민들의 열악한 생활과 생존권의 위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행정기관들에 대한 많은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곧 광주대단지 개발 자체에 대한 모든 문제가 8.10사태를 통해 분출된 것이었다. 3만 명

이나 되는 흥분한 군중이 5시간 이상이나 ‘난동’을 부렸음에도 29명이 부상을 입고 22대의 차량이 파괴되는 정도의 피해로 끝난 것은 그러한 사태가 우발적이었으며 주민들의 자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광주대단지 입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8.10사태를 통해서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문제가 논의되었고, 언론을 통해 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나서고 광주대단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광주대단지 일대가 하나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둘째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이 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자치단체로 인정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에서는 8월 11일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부 차관과 보사부 차관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한 ‘광주대단지 중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성남지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경기도 기획관리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무국장, 보사국장, 건설국장과 기타 관계자를 위원으로 하였으며 사태 수습안을 강구했다. 또한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여 부이사관으로 하여금 소장을 맡게 했으며, 총경이 서장을 맡는 성남경찰서를 설치하여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3. 모란단지 사건

이른바 모란단지 사건은 광주대단지에서 8.10 사태가 일어나기 8개월 전인 1970년 12월부터 모란단지 현재의 중원구 성남동·수진동·둔전동 일대에서 광주대단지의 12배나 되는 4천 200만평의 택지 개발 시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주도 인물을 처벌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지만, 8.10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졌으며, 많은 광주대단지 주민들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성남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란단지 개발은 김창숙 예비역 육군 대령이 주도한 것이다. 김창숙은 평양 출신으로 월남하여 1958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고, 그 후 '재향군인개척단'이란 이름으로 광주군 돌마면 하대원리(현재의 모란지역)에서 개간사업을 하다가 5.16직후인 1961년 6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경기도 광주군수를 역임했다. 군수에서 퇴임 후 다시 재향군인 개척단에서 활동하던 김창숙은 그 명칭을 '모란개척단(牡丹開拓團)'으로 개칭하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모란은 자신이 평양 출신으로 모란봉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지었다는 것이다. 그는 모란시장을 개설하고, 성남우체국의 전신인 별정우체국을 개설하고 풍생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모란학원을 설립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다.

김창숙은 '모란개척단'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과 분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곧 모란개발계획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당시의 광주군 대왕면·돌마면·중부면·낙생면 등 4개 면으로 광주대단지의 12배나 되는 4천 200만평의 면적에 2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를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년 동안에 개발 분양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탄천 주변의 국유지와 하천 부지를 정리하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란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게 하는 한편, 1971년 2월에는 주식회사 모란개척단을 설립, 서울 퇴계로 4가 일흥빌딩에 사무실까지 차려 놓았다. 2월 10일에는 모란 현지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군 장성까지 초청한 성대한 기공식까지 거행함으로써 사실상 모란단지 건설은 시작되었다. 우선 그가 임의로 추대하였다고 하는 모란개척단

의 고문진에는 당시 유명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고문진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예비역 장성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김창숙은 서울에 가족을 둔 채 단신으로 당시 광주군 돌마면 하대원리, 현재의 모란지역에 내려왔다. 지역의 군 제대 청년 약 50여명을 모아 '모란재향군인회'를 만들어 이들과 함께 땅굴을 파고 함께 숙식을 하면서 지역개발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우선 단대천에 제방을 쌓기로 하고 미군부대와 한국군공병대의 군용장비를 지원받아가며, 단대오거리 부근에서 모란예식장까지 뚝 쌓기 작업을 시작한 것이 1961년 봄이었다.¹⁸⁾

모란단지 개발계획은 광주대단지 개발계획에 비해 총 개발 면적은 12배, 수용인구는 7배, 총 투자액은 약 5배 등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특히 250만의 수용인구는 1970년 당시 서울시 인구가 500만 명을 상회하는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서울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모란단지 개발 계획상 총 투자 금액의 집행 계획도 광주대단지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계획해 놓았음에도 구체적인 세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모란개척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 및 시설계획이 있었고, 특히 학교시설 및 공공시설, 행정기관건립 계획까지 제시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모란 개척단의 활동은 그 당시 황무지에 불과하던 단대천 주변을 일구어나가는 시발점이 되었고, 서울시가 이른바 '광주대단지사업'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스스로 개척활동에 나서서 자활의 기운을 북돋운 사업이었다. 모란개척단 일꾼들에게는 서울시의 광주대단지 사업계획

18) 한춘섭, 「앞의 논문」

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비극적인 소식이었다. 모란개척단 사업이 지속적인 지원의 부재로 인하여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서울시의 무허가 판자촌 일소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까지의 5년 사이에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광주대단지의 외곽인 대왕면·돌마면·낙생면까지도 철거민 아닌 전매입주자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이같은 서울 인근 농촌지역으로서 남한산성 남쪽의 성남시 일대는 도시화가 태풍처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만만치 않은 상처도 남기게 되었다.

광주대단지 사업으로 모란개척단의 활동은 침체되었고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격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생활은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무계획적인 광주대단지 사업을 단행하여 광주대단지사건을 일으켜 그 여파로 모란단지 사건을 야기하게 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김창숙단장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자신이 애써 일궈놓은 땅 '모란' 인근지역이 서울시와 경기도 합작에 의해 광주대단지 개발계획이 되는 엄연한 현실을 못내 아쉬워한 나머지 모란개척에 대한 재도전으로 인하여 '모란단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⁹⁾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주도했던 김창숙 예비역 대령의 개인적인 허물로 돌려버린 것이다.

모란단지 사건이 본격화된 것은 택지 분양이 시작될 때였다. 1970년 겨울 서울시에서 개발하던 광주대단지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 서울 시로부터 전매행위 금지조치가 내려지자, 부동산투기자들의 관심이 인근 모란단지로 옮겨졌다. 당시 모란지역의 지주들이 모란단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택지 개발이 가능했고, 그들은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이 택지로 변하고 그 택지를 원래 토지의 52%까지 환지받을 수 있다는 제

19) 현춘섭, 「앞의 논문」 12, 13쪽.

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광주대단지가 개발 후 수십 배 이상 땅값이 폭등한 것을 지켜본 모란지역의 지주들은 탄천변의 국유지가 택지로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모란단지의 개발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환지를 조건으로 하여 외상으로 땅을 내놓았고, 택지 개발은 쉽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택지분양은 20평을 기준으로 1개 분양증에 3만 8천원에서 11만원까지 책정되었고, 순식간에 팔려나가기 시작하였다. 김창숙이 입건되어 더 이상 분양을 할 수 없었던 1971년 8월 2일까지 무려 8천장의 분양증이 팔렸고, 이미 8만 9천평의 택지가 조성되어 6천 6백 명이 986채의 건물을 짓고 입주하였다. 모란단지 개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특히 모란단지 개발 초기부터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과 광주군, 경기도 등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고발하는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호가 있다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다. 김창숙이 입건되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이미 15만평을 개발하거나 정지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이미 입주한 1천 368세대를 포함하여 6천 5백 명이 분양을 받았다.

입건된 김창숙은 1971년 11월 29일에 사기, 산림법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부도액 3천 113만원)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광주대단지의 8.10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란단지 사건도 함께 다루었다. 8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은 “모란단지 입주자는 광주대단지에 이주시키고 가수용자에 대해서는 토지를 분양하도록” 지시를 했고, 9월 13일과 16일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모란단지 주민대표사건은 개인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피해자를 구하는 식으로 해결되었다. 모란단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광주대단지의 택지(현재의 창곡

동지역)를 분양하여 입주하게 함으로써 수습될 수 있었다.

모란단지 사건과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하여 성남문화원에서 2004년 12월 15일 제9회 학술회의 주제로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을 개최하였다. 서울시의 입장과 8.10사건 등을 발표하였다.

VI. 모란시장의 발전방향

모란시장의 개척은 김창숙 단장과 모란개척단원의 공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천가에 자리하고 있는 모란지역은 성남시가지 형성과정에서 아주 황무지에 가까웠던 곳이었지만 가장 먼저 개발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여 5일장이 섰고, 이 모란지역 안쪽을 단지 안이라고 하였다. 1961년에 모란지역의 상인대표와 지역 유지 및 마을 통반장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광주군청에 시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 5일장으로 정착해 나갔다. 그 후 성남시가 탄생하면서 1974년 10월에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시장 폐쇄를 결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물려드는 인파의 힘 앞에 그대로 명맥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었고, 마침내 1989년 9월 하순에는 대원천 복개도로 주차장을 5일마다 장터로 활용하게 되었다.²⁰⁾

처음에는 개척단원들의 생활필수품 조달 및 생활여건 조성이 문제되자 1961년경부터 자연발생적으로 5일장이 열리다가 같은 해에 모란지역의 상인대표와 지역유지들이 광주군청에 시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 1990년 하천복개공사가 완료되면서 현재의 시장 자리로 옮기게 되어 1일 평균 5만여 명이 이용하는 전국 제일의 큰 시장이 되었다. 이제는 명실공이 성남의 자랑이요, 명물인 모란민속시장으로

20) 윤종준, 「앞의 논분」 36쪽.

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모란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상열이 「모란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에서 구체적인 지적을 하였다.²¹⁾ 〈성남시 문화관광벨트조성 연구〉(성남시, 2003)를 인용하여 성남시 관내 5개 권역 중 하나인 ‘모란시장권’이 가진 문제점을 ‘지역고유의 특화 분위기부족’, ‘관광지로서의 프로그램 개발 부족’, ‘인근주택가로의 상권 확장에 의한 주거환경 저해’를 들었다. 모란장과 관련한 개발방향으로 첫째, 고증을 통한 옛 민속장터 모습 재현, 둘째, 풍물무대의 설치, 셋째, 모란민속5일장 축제를 들고, 주요사업으로 ①부지 이전. ②한국전통거리 및 정원의 조성. ③공영주차장 확보. ④민속공연 및 전통놀이마당 운영. ⑤성남시 홍보코너 운영. ⑥팔도 민속공예품 판매. ⑦팔도 민속놀이 경연을 내세웠다.

또 이상열은 성남시가 2009년 1월에 발표한 〈모란민속5일장 이전·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계획은 ‘전통민속문화 터전의 계승·발전’, ‘토속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추진 방침 하에서 이전 부지 22,575.5m²(약 6,841평)에 지상에는 모란민속5일장과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장날 및 평일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그중 지상에는 5일테마권, 복지문화권, 미래경제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 개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하여 이전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과 달리 상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온 공공서비스 기능과 복지기능은 복지문화권역에 들어선 시설들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긍정적으로 평가

21) 이상열, 「모란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모란장의 이전과 문화적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 제14회 성남문화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9, 5.29.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장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에 대한 고려라는 측면에서 장터의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5일 테마권역에 한정하여 볼 때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이전부지에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있으나 장터라는 문화적·경제적 공간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 즉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작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농식품의 판매는 노천시장이 적합하다는 것이나, 옛 정취를 느끼지 못하는 것 등이다.

둘째, 평일 활용에 대한 방안이 미비하다.

셋째,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었음을 간과했다. 기름류와 개고기 등 보신식품에 대한 모란장의 인지도를 높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넷째, 모란장 이전계획에 실제 모란장의 주인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²²⁾

우리나라의 정기시장이 1970년대 이후 30여 년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되고 거래규모도 감소하는 등 쇠퇴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정기시장의 쇠퇴 경향은 도시화, 이동수단과 대중매체의 발달, 농업생산의 전문화와 유통근대화 등으로 대변되는 여건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²³⁾ 이상의 지적은 모란시장의 발전 방향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본다.

지방의 특화된 정기시장이 있으니 이들을 거울삼아 수도권 제일의 5일 정기민속시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겠다.

22) 이상열, 「앞의 논문」 75~77쪽.

23) 이수천, 「'모란 민속 5일장'의 사회사적 의미」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 제14회 성남문화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9. 5.29.

VII. 맺음말

모란시장은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민속 5일장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기시장은 이미 고려 때부터 지방에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장시라고 하여 16세기부터 전라도 지방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한때는 이를 억제하고 제한하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더욱 증가하였다. 18세기에 화폐경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상 도고, 특히 보부상의 활동은 장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남지역은 일찍부터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삼남의 물산이 모여 서울로 공급이 되는 상황이었다. 낙생시장과 송파나루의 장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남지방은 물론 강원, 한강 이남의 물산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근대화되면서도 이 지역의 상권은 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서울의 영역이 송파지역까지 확대되고 낙생장이 쇠퇴하고 밀집한 주거지가 들어서면서 성남의 모란시장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은 1960년대 서울의 인구과밀을 해소하려는 의도적인 급조된 도시이다.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야기된 혼란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타협 아래 경기도의 독립된 대도시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모란단지는 김창숙 단장의 선견지명으로 1960년대 초반에 모란개척단이라는 순수한 제향군인의 노력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무계획적이고 성급한 철거민대책으로 인한 광주대단지 사건은 인근 모란단지로 불뚝이 튀었던 것이다. 결국 김창숙 단장의 희생으로 막을 내렸지만 모란이란 이름의 정기 시장과 진철역 분당선, 8호선의 환승역으로 모란역의 이름이 남아 있다. 행정동명으로 남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오히려 전국적인 이름의 모란 5일 민속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존속

하는 향토색 짙은 정기시장이다.

모란시장은 현재 상당수의 5일장이 사라지거나 상설시장으로 변화한 것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모란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옛 추억을 간직한 시골장터를 잊지 못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교통문제, 위생문제, 여가활용의 공간 등을 해결하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외관상으로 쉽게 표출되는 간판정비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 정기시장의 성장발전과 모란시장이 형성되어 그 명맥을 이어가는 과정을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모란시장은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남고 그 특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한지(韓紙)의 현대적 실용화 전략¹⁾

손환일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 차례 ▷

I. 머리말

II. 한지의 특징

III. 현대적 실용화 전략의 고급화와 다용도화

1. 한지의 고급화
2. 용도의 개발과 다용도화
 - 1) 건축자재용 한지
 - 2) 인쇄용 한지
 - 3) 공예용 한지
 - 4) 벽지용 한지
 - 5) 기능성 한지
 - 6) 전자파차단용 한지
 - 7) 전력생산용 한지
 - 8) 약재·약품용 한지

IV. 맺음말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2009년 5월 제2회 「괴산한지문화축제 한지문화세미나」에서 발표한 발표문 「괴산 한지의 현대적 실용화 전략」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I. 머리말

한지는 닥나무에서 펄프를 채취하여 만드는 종이로 그 역사는 삼국시대로 확인된다. 이를 楮紙라고 하는데, 이 저지는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재료, 색상, 형태, 용도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한지는 그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왔으나 문화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한지의 용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한지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도도 중요하지만 좀 더 과학적인 문명의 이기에 사용될 수 없는지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와 발전은 법고창신이라는 선조들의 생활이념을 계승하는 것이다.

종이로서의 한지는 동양 3국의 수목지와 비교해 볼 때 강도나 수명, 항균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제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자연 식물에서 추출한 섬유를 손으로 뜨는 전통방식의 수목지는 동서양의 학문과 예술, 문화, 종교를 발전시켰고 가장 위대한 필사 도구로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제는 한지의 현대적 실용화전략이 필요하다. 한지의 특징과 용도, 현대적인 실용화전략이 한지를 더욱 현대화하는 방법이다. 한지의 대중화와 고급화, 용도의 개발과 다양화는 과학적인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과학적인 문명의 이기에 필요한 한지의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한지의 특징

질기고 통기성이 좋으며, 순 섬유질이기 때문에 천 년이 지나도 변하

지 않는다. 한지를 '絹五百 紙千年' 이라고 비교한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나 <석가탑중수기> 등은 1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은 우리 종이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한지는 중성지로써 알칼리성을 유지하여 오래 되어도 훼손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항균성에서도 뛰어나 부패가 쉽게 되지 않는다. 양지와 한지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한지	양지
강도	강(1000년 이상)	약(약 200년)
산도	강	약
습기	약	강
통기성	좋음	나쁨
기능성	좋음	나쁨
항균성	좋음	나쁨
보습성	좋음	나쁨
탈취성	좋음	나쁨

한지는 잘 안 찢어지고 색도 안변하고 먹물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잘 썩지 않고 보존기간이 길다. 그 외에도 한지의 과학적인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직물의 태 특성으로는 인장특성(Tensile properties), 전단특성(Shear properties), 굽힘특성(Bending properties), 압축특성(Compression properties), 표면특성(Surface properties).

② 기능성 섬유소재 가공 응용, 원적외선 방사, 항균성, 탈취성, 증산성.

- ③ 반응성 염료의 흡착특성 및 견뢰도.
- ④ 한지 실의 물리적 특성은 인장강도, 균제도, 표면관찰.
- ⑤ 한지 실 직물의 염색성 및 내구성으로는 염색시험, 세탁견뢰도 측정, 일광견뢰도 측정, 마찰견뢰도 측정, 파열강도 측정.
- ⑥ 한지직물의 태 측정.
- ⑦ 한지 실 직물의 기능성으로는 원직외선 방사, 항균성, 탈취율, 증산성.

III. 현대적 실용화 전략의 고급화와 다용도화

1. 한지의 고급화

「고급 한지의 제조방법」²⁾의 발명은 한지제조의 주원료인 닥섬유와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혼합하여, 물성이 개량된 고급 한지를 제조하는 방법 및 전기 방법으로 제조된 고급 한지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고급 한지의 제조방법은 주원료 만들기 공정 또는 초지공정시 미생물이 생산하는 셀룰로오스를 닥섬유와 혼합하거나, 또는 초지공정 직후에 한지 표면을 전기 미생물 셀룰로오스 현탁액으로 코팅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이용할 경우, 한지의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의 물성과 표면특성을 개선한 고급한지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원료 만들기, 삶기, 씻기 및 햇볕 쬌우기, 두드리기, 종이뜨기(초지), 물 빼기, 말리기 및 다듬기 공정을 포함하는 한지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2) 변유량, 조석전, 신정규, 국부창, 최찬익, 김성보, IPC 코드D21H 17/25 출원번호 1020010021238 (2001. 04. 19) 공개번호1020020082246 (2002. 10. 31)

주원료 만들기 공정 또는 초지공정 시 미생물이 생산하는 셀룰로오스를 닥 섬유와 혼합하거나, 또는 초지공정 직후에 한지 표면을 전기 미생물 셀룰로오스의 현탁액으로 코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급한지의 제조방법. 주원료 만들기, 삶기, 씻기 및 햇볕 쬌우기, 두드리기, 종이뜨기(초지), 물 빼기, 말리기 및 다듬기 공정을 포함하는 한지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주원료 만들기 공정 또는 초지공정 시 미생물이 생산하는 셀룰로오스를 닥 섬유와 혼합하거나, 또는 초지공정 직후에 한지 표면을 전기 미생물 셀룰로오스의 현탁액으로 코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급한지의 제조방법.

미생물은 아세토박터(Acetobacter) 속, 리조비움(Rhizobium) 속 또는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 속 미생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급한지의 제조방법. 아세토박터(Acetobacter) 속 미생물은 아세토박터 자일리눔 BRC21(KFCC-112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급한지의 제조방법. 미생물 셀룰로오스는 1 내지 30%(w/w)의 고형분 함량으로 닥 섬유와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급한지의 제조방법 등을 들 수 있다.

2. 용도의 개발과 다용도화

전주한지축제는 전주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쓰임새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로 한지패션쇼와 한지용품 전시회, 한지 오브제, 한지 황실의상 체험, 한지 뜨기 및 제작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지축제 조직위원회는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한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을 하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공예품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주 전통 한지의 우수성과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쓰임새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주 한지문화 축제가 있었다. 한지로 만든 전통한복·생활한복·웨딩드레스·액세서리 등을 선보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한지패션쇼가 열렸다. 행사장인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국내 50여개 업체가 한지를 이용해 만든 옷과 생활용품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그 중에서도 한지로 만든 황실의 옷을 입어보는 한지 황실의상 체험, 한지 뜨기 및 제작, 한지 탁본, 한지 소망 등 달기 등의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전주 한지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산업관이 운영되고 한지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학술행사도 진행된다. 축제는 새롭게 조명되는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한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등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한지를 이용한 전통공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한 행사는 전주의 행사로 만족하였다.

그러나 한지는 용도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다. 한지의 산업화와 생활화의 일환으로 한지는 친환경 소재라는 점을 홍보하여 한지의 과학적 산업화가 필요하다. 즉 현대 생활에 맞는 한지 공예품, 한지의 첨단과학용도연구, 의약품, 미백제개발, 한지화관, 한지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 등 한지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 이 중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 개척, 연구되어야 할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재용 한지

① 「한지 마루판」³⁾

3) 김태균, IPC 코드E04F 15/04(2006, 01) 출원번호1020040033709(2004, 05, 13) 공개번호 1020050046522(2005, 05, 18) 공고번호(2006, 08, 01) 등록번호1006055340000(2006, 07, 20) 원출원 번호2020030035608(2003, 11, 14)

한지의 특성을 살린 마루판을 새로이 제시할 목적으로 안출된 것으로, 목재로 구성된 바닥판, 상부표면에 한지를 3~6장 층상으로 부착하여 한지층을 형성하고, 한지층 상부표면은 UV 코팅층을 형성하여 바닥판과 한지층 및 UV 코팅층을 일체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지 마루판이다.

② 「한지 한방 타일의 제조방법」⁴⁾

본 발명은 건강, 광향, 원지, 박하, 당귀, 천궁, 작약, 백복신, 의이인, 솔잎, 감초, 목향, 향부자, 석창포, 애엽과 같은 한약재를 함유하는 한지 타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한지 한방 타일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고 약리활성이 있는 한약재를 함유하고 있어, 새 집 중후균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약재가 방출하는 정유 성분으로 인한 유효 약리활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지의 특성으로 인해 온도 및 습도 조절 기능과 방음효과가 뛰어나다.

③ 「한지를 이용한 판형 열교환기」⁵⁾

본 고안은 한지를 이용한 판형 열교환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공기조화장치에서 외부의 흡입공기와 내부의 배기공기가 서로 교차되면서 열교환되는 열교환기의 열교환판이 흡습성이 강한 한지로 이루어져 열교환효율이 증대되도록 하고, 상하 일정간격으로 마주보는 열교환판의 전후 양단과 좌우 양단이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클립에 의해 서로 결합되며, 다수장이 서로 결합된 열교환판의 각 모서리부가

4) 안지용, IPC 코드E04F 13/08(2006, 01) 출원번호1020060071852(2006, 07, 31) 공개번호 공고번호 (2007, 09, 11) 등록번호1007579490000(2007,09,05)

5) 이진철, IPC 코드F28F 21/00 출원번호2020050020743(2005, 07, 16) 공고번호(2005, 12, 12) 등록번호2004036110000(2005, 12, 06)

코킹재에 의해 밀봉되어 일정한 높이로 직충된 열교환부를 이루고, 상기 열교환부는 상하단의 수평지지판과 상기 수평지지판 사이 모서리부를 이루는 수직지지대로 이루어진 몸체프레임에 고정되는 단순한 구성으로 열교환기를 이룸으로써 제조가 용이하고 제작비가 절감되도록 한 한지를 이용한 판형 열교환기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르면, 다수장의 열교환판이 적층되어 이루어진 판형 열교환기에 있어서, 상기 열교환판은 흡습성이 강한 한지로 이루어지고, 상하 일정간격으로 마주보는 열교환판의 전후 양단과 좌우 양단이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클립에 의해 서로 결합되며, 다수장이 서로 결합된 열교환판의 각 모서리부가 코킹재에 의해 밀봉되어 일정높이로 직충된 열교환부를 이루고, 상기 열교환부는 상하단의 수평지지판과 상기 수평지지판 사이 모서리부를 이루는 수직지지대로 이루어진 몸체프레임에 고정된 한지를 이용한 판형 열교환기가 제공된다.

④ 「한지 슬레이트를 이용한 블라인드」⁶⁾

본 고안은 창문 등의 빛을 차단하기 위한 블라인드에 관한 것이다. 창문의 상단에 고정되는 브라켓에 승강용 와이어 및 방향 전환용 와이어를 매개로 다수의 슬레이트를 수평으로 설치한 차광용 블라인드에 있어서, 상기 슬레이트를 인테리어 및 기능성 슬레이트로 한 차광용 블라인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차광용 블라인드에 채용되는 슬레이트는 알루미늄 필름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표면에 단순한 채색 도장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고안에서는 차광용 블라인드의 슬레이트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의 다양한 형태의 한지로 구성되는 기관과, 상기 기관

6) 임경순, IPC 코드E06B 9/36 출원번호2020050007096(2005. 03. 16) 공개번호 공고번호(2005.06.16) 등록번호2003868120000(2005. 06. 03)

의 양면에 아크릴 수지 또는 투명 합성수지로 소정 두께 만큼 형성되는 코팅층과, 상기 양면의 코팅층 표면에 형성되는 항균 기능을 갖는 광촉매층을 구비한 슬레이트를 이용한 블라인드가 제시된다. 본 고안에 의하면, 한지 등의 지류에 의한 부드럽고 자연스런 질감으로 인한 인테리어 기능성과, 광촉매코팅에 의한 항균성을 구비한 블라인드를 구현할 수 있다.

⑤ 「표면마감재용 한지 및 이의 제조방법」⁷⁾

본 발명은 표면마감재용 한지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한지에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의 염색된 장섬유를 첨가하여 건축용, 산업용 등의 표면마감재용의 모양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한지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천연적인 질감을 가지고 있는 한지의 색상 및 문양을 보다 간단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용이나 사무용 분야에서 표면마감재용의 모양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한지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표면마감재용 한지는 인피섬유를 재료로 포함하는 한지에 있어서, 염색된 장섬유가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염색된 장섬유는 닥나무로부터 얻은 섬유를 사용한다.

⑥ 「한지를 이용한 열교환부재를 구비한 전열교환기」⁸⁾

본 발명은 한지를 이용한 열교환부재 및 이를 구비한 전열교환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열교환기의 주요 구성품인 열교환부재를 한지

7) 조현진, 윤승락, 노정관 IPC 코드D21H 27/18 (2006, 01) 출원번호1020040065154(2004. 08. 18) 공개 번호 1020060016640(2006. 02. 22) 공고번호(2006. 06. 30) 등록번호 1005935590000(2006. 06. 20)

8) 이수민, IPC 코드F28D 9/00(2006, 01) 출원번호1020040069668(2004. 09. 01) 공개번호 1020060020939 (2006. 03. 07) 공고번호(2006. 09. 29) 등록번호1006303930000(2006. 09. 25)

로 제작하여 별도의 광촉매 혹은 나노실버코팅이나 가습장치 없이도 항균, 탈취, 향은, 가습 효과를 얻장치 없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황토, 옥, 흑운모, 숯과 같이 인체에 유없이 물질을 방출하는 물질을 포함한 한지를 통하여 전열교환기의 주요 구성품인 열교환부재를 제작함으로써, 전열교환기에 별도의 광촉매 코팅이나 가습장치 없이도 항균, 탈취, 향은, 가습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간단한 구조이 실내 공간에 양질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⑦ 「한지를 이용한 바닥재」⁹⁾

본 고안은 한지를 이용한 바닥재에 관한 것으로서, 전통의 한지의 일면에 약 0.05~0.15mm의 범위 내에서 균일한 두께(t)로 락카/니스를 도포하고 건조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통의 한지에 락카와 니스를 적절한 두께로 도포한 바닥재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에 요하는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시공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⑧ 「한지성분을 이용한 면상발열체 제조방법」¹⁰⁾

본 발명은 난방기능을 갖는 각종 난방용품에 사용되는 면상발열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한지의 재료인 닥 9~11 중량%와 펄프 60~85 중량%, 카본사 5~30 중량%, 바인더 1~5 중량%를 혼합하는 혼합공정과, 상기 혼합물을 교반기에 넣고 1~2시간 동안 교반하는 교반공정과, 교반된 혼합물을 초지기로 압착하여 20~60℃의 온도로 건조하는 초지공정과, 카본분말 20~60g/l를 물에 혼합한 침전수 제조공정과, 침전

9) 최향, IPC 코드B32B 5/02 출원번호2019990020651(1999. 09. 27) 공고번호(2000. 03. 15) 2001737560000(1999. 12. 21)

10) 오용석, 김정선, 윤주환, IPC 코드B105B 3/20 출원번호1020030075896(2003. 10. 29) 공개번호1020050011033(2005.05.04)

수에 초지를 침전시켜 표면에 카본분말을 분산 흡착시키는 침전공정과, 침전수로부터 초지를 꺼내 20~80℃의 온도로 건조하는 건조공정과, 건조된 발열지를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고 다수의 극선을 부착하여 고분자수지로 압착코팅하는 전극설치 및 코팅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질이 중성을 띠고 있으며(Avg. pH7.0) 흡착력이 좋아 카본사와의 결합력이 뛰어나므로,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발열체는 색상변형이 없으며 제품의 수명연장 및 발열성능이 우수한 면상발열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⑨ 「한지를 이용한 환기장치」¹¹⁾

본 발명은 외부의 공기를 여과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기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방한의 효과가 있으며 스스로 신축하는 성질을 지닌 한지를 환기장치의 여과부재로 구비하여 공기를 여과시켜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한 한지를 이용한 환기장치에 관한 것 공기를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벽을 관통하면은 벽의 외측에서 설치되며, 몸체와, 고무패킹과, 거름망과, 방지판 및 외부캡을 포함하여 일체로 형성된 하우징과, 몸체의 외주면에 구비되는 고무패킹과 벽의 내측에서 상기 몸체의 내주면에 결합되는 중간연결캡과, 상단에 한지로 형성된 여과부재가 구비되어 벽의 내측에서 상기 중간 연결캡의 내주면에 결합되는 내부캡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11) 박협수, IPC 코드F24F 7/10(2006,01) 출원번호1020050052138(2005.06.17) 공개번호 공고번호 (2006.08.03) 등록번호1006090150000 (2006. 07. 27)

2) 인쇄용 한지

① 「복사기 또는 인쇄기 출력용 한지의 제조방법」¹²⁾

본 발명은 복사용지나 프린터용지로 사용 가능한 복사기 또는 인쇄기 출력용 한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한 예에 따르면, 밀·옥수수·참쌀 등과 같은 곡물로 쏜 풀을 장기간 숙성시켜 무독성의 천연접착제 또는 천연 접착액을 얻고 이를 적당량의 물에 분산·회석시켜 만든 수용액을 기성 한지에 스프레이 하여 건조하거나, 기성 한지를 상기 수용액에 침적한 후 건조하여 복사기 또는 인쇄기 출력용 한지를 제조하는 것이다.

그 외, 상기 수용액에 황토·쭈·치자·홍화·황벽·물푸레나무 등에서 추출한 천연염료(액)를 추가로 혼합할 경우 디지털 출력 가능한 색 한지를 얻을 수 있다.

② 「인쇄용 한지」¹³⁾

본 고안은 인쇄용 한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특히, 전통한지를 준비하는 단계, 전통한지를 젤라틴이 물에 일정비율로 회석된 젤라틴 수용액에 침지시키는 단계, 젤라틴이 침투되는 전통한지를 자연 상태에서 건조하는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한지 고유의 특성에 의해 정보의 저장시간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한지의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쇄용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12) 안치용, IPC 코드D21H 19/10(2006, 01) 출원번호1020050136256(2005. 12. 31) 공개번호 공고번호 (2007.05.30) 등록번호1007229250000(2007. 05. 22)

13) 김석란, IPC 코드D21H 19/10 출원번호2020020029544(2002. 10. 02) 공개번호 공고번호 (2003.01.14) 등록번호2002997360000(2002. 12. 17) 원출원 번호(2002. 09. 18)

③ 「인쇄용 한지 제조방법」¹⁴⁾

본 발명은 인쇄용 한지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특히, 전통한지를 준비하는 단계, 전통한지를 젤라틴이 물에 일정비율로 희석된 젤라틴 수용액에 침지시키는 단계, 젤라틴이 침투되는 전통한지를 자연 상태에서 건조하는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한지 고유의 특성에 의해 정보의 저장시간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한지의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쇄용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한지 사진인화지」¹⁵⁾

본 고안은 100% 닥으로 만든 한지를 이용하여 감광유제 흡수방지구조를 갖도록 제작한 전통한지의 중앙부에는 사진인화지가 형성되고 그 주변부에는 미미를 형성시킨 한지 사진인화지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100% 닥으로 만든 일정크기의 한지를 이용하여 전통한지를 만드는 과정과, 상기 전통한지의 상부에 물과 일정비율로 희석된 젤라틴 수용액을 도포하는 과정과, 상기 젤라틴 수용액이 도포된 전통한지를 저온 건조하여 젤라틴층을 형성하는 과정과, 상기 건조되어 형성된 상기의 젤라틴층 위에 감광유제를 도포하는 과정, 및 상기 감광유제가 도포된 전통한지를 저온 및 진공 건조하는 과정을 구비하여 제작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⑤ 「한지를 이용한 잉크젯 출력 소재」¹⁶⁾

14) 김석란, IPC 코드D21H 19/10 출원번호1020020057052(2002. 09. 18) 공개번호 1020040025201(2004. 03. 24) 공고번호(2005. 09. 20) 등록번호1005153970000(2005. 09. 08)

15) 김석란, IPC 코드G03C 1/00 출원번호2020010023416(2001. 08. 01) 공개번호 공고번호(2002.01.26) 등록번호2002616780000(2002. 01. 11) 원출원 번호(2001. 02. 08)

출력 후 파손 등의 단점을 보완한 한지 이용 잉크젯 출력 소재에 관해 개시하고 있다. 본 고안의 한지 이용 잉크젯 출력 소재는, 한지와 상기 한지의 일면에 도포된, 친수 아크릴 수지 또는 친수 폴리비닐알콜의 수용성 수지층과 상기 한지의 타면에 부착된 종이 또는 부직포의 지지층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따르면, 한지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가지는 동시에 소재의 취약성에서 오는 한지의 단점이 제거된 한지 이용 잉크젯 출력 소재를 얻을 수 있다.

3) 공예용 한지

① 「한지를 이용한 가죽 대용지의 제조방법」¹⁷⁾

본 발명은 가죽 대용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한지를 이용하여 가죽 대용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 두께로 제조된 한지가 물에 적신 상태에서 주물러 한지의 표면에 무늬가 형성되도록 하는 무늬 성형과정과, 상기 무늬 성형과정에 의하여 무늬가 성형된 상태에서 수분을 80% 이상으로 건조시키는 건조과정과, 상기 건조과정에 의하여 건조된 한지가 질기고 방수성이 좋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성 아크릴 수지에 함침하는 함침과정과, 상기 함침과정에 의하여 수용성 아크릴 수지가 함침된 한지를 건조하는 건조과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지를 이용한 가죽 대용지의 제조방법이다.

16) 정형희, 최한고, 김도현, IPC 코드B41M 5/00 출원번호2019990015351(1999. 07. 29) 공개번호 공고번호 (2000. 02. 15) 등록번호2001638810000(1999. 10. 04)

17) 황비영, 김현천, 이진훈, IPC 코드D21H 27/00 출원번호1020000000831(2000. 01. 10) 공개번호1020010068752(2001. 07. 23) 공고번호(2002.04.09) 등록번호1003317560000(2002. 03. 26)

② 「입체문양이 형성된 한지 및 그 제조방법」¹⁸⁾

본 발명은 한지 제조과정에서 특정문양이 양각, 혹은 음각된 가압판을 이용하여 표면에 입체문양을 형성시킨 한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조방법은, 한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료에서 섬유질을 추출하는 준비단계와, 준비단계에서의 섬유질을 수용공간이 있는 발에 담아 직충시키는 습지형성단계, 습지형성단계에서 수득한 습지문양이 형성된 보조부재로 가압하여 탈수 및 입체문양을 형성하는 문양형성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은 한지의 양면에 입체문양이 형성되는 종래와는 달리 한지의 일면에만 입체문양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단순화된 제조공정을 제공한다. 따라서 입체문양이 형성되지 않은 타 측면은 평탄한 면을 이루고 있으므로 물품의 포장이나 벽지 등에 부착시키는 접착력이 향상되며, 입체문양 형성으로 인한 전성(퍼지는 성질)이 없으므로 원형 그대로의 부착이 가능한 유용한 한지 및 제조방법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③ 「닥섬유 물딩 성형공법을 이용한 한지성형물의 제조방법」¹⁹⁾

닥나무를 채취하여 껍질을 벗긴 후, 그 벗긴 껍질을 가미술에 넣고 삶은 후 씻고 삶은 닥나무 껍질을 두드리는 공지의 닥나무 가공을 행하는 제1단계, 제1단계의 닥나무 껍질에 닥 풀을 풀어 점성을 갖도록 하고 습기를 머금은 상태의 닥 섬유재로 가공하는 제2단계와, 제2단계의 닥 섬유재를 일정형상을 갖는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의 물딩금형에 투입한 후, 열 압착에 의한 물딩을 행하여 입체적 형상을 갖는 한지성형물로 성

18) 안치용, IPC 코드D21F 13/02 출원번호1020020058870(2002. 09. 27) 공개번호 1020040027118 (2004.04.01) 공고번호(2005. 04. 20) 등록번호1004842250000(2005. 04. 11)

19) 박동운, 「닥섬유 물딩 성형공법을 이용한 한지성형물의 제조방법」, 『인업정보』 제148호 (2003. 8) pp.42~46.

형하는 제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닥섬유 문딩 성형공
법을 이용한 한지성형물의 제조방법.

④ 「한지가 내장된 수지화 장판」²⁰⁾

한지가 내장된 수지화장판에 관한 것으로, 패들수지에 함침된 크래프
트지가 구성되어지고, 상기 크래프트지 상에 멜라민수지에 함침 된 모
양지가 적층 구성되어지며, 상기 모양지상에 멜라민수지가 함침 된 한
지가 적층 구성되어지고, 상기 한지 위에 멜라민수지가 함침 된 오버레
이지가 적층 구성되어진다. 이에 본 고안은 한지의 특성에 의해 수지화
장판의 강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수지화장판의 외적 심미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⑤ 「한지납골함」²¹⁾

한지납골함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한지의 재료인 닥나무를
이용하여 골판지를 형성하고 내외부에 옷칠을 하여 유골이 변하지 않
고 깨끗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한 한지납골함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일반적으로 몸체와 뚜껑으로 형성된 항아리 형상의 납골함
에 있어서, 항아리 형태의 골판지로 형성되고, 개봉된 상단의 가장자리
에 밀봉턱이 형성되며, 내외부에 한지를 다수겹으로 풀과 함께 접착한
후 옷칠을 하여 형성된 몸체와 상기 몸체의 밀봉턱에 고정될 수 있도록
골판지로 하단가장자리에 밀봉턱이 형성되고, 내외부에 한지를 다수겹
으로 풀과 함께 접착한 후 옷칠을 하여 형성된 뚜껑으로 구성된 것을 특

20) 성기득, IPC 코드B44C 3/02 출원번호2020050008546(2005. 03. 29) 공고번호 (2005. 06. 13) 등록번호2003865640000(2005. 06. 01)

21) 박원호, IPC 코드A61G 17/08 출원번호2020040026383(2004. 09. 14) 공고번호(2005. 01. 03) 등록번호2003714260000(2004. 12. 20) 원출원 번호1020040073471(2004. 09. 14)

정으로 한다. 상기한 것과 같이 본 고안의 한지납골함에 의하면 항은, 항습, 항균작용으로 인하여 분골이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고, 분골과 함께 옹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형성되므로 폐기가 용이한 효과가 있다.

⑥ 「금석문의 채탁용 한지」²²⁾

본 고안은 금석문(대상물)에 새겨진 서체나 그림 및 문양 등을 채탁하는 한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채탁 시 한지의 찢어짐을 방지하고 채탁 후에도 원상으로서의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무명천과 비닐을 적층 접합시켜 구성한 채탁용 한지에 의해 채탁 상태의 정확성과 선명도 및 청결도를 높이하려는 금석문의 채탁용 한지에 관한 것이다.

4) 벽지용 한지

① 「한지를 이용한 원단 및 그 제조방법」²³⁾

한지를 염색한 후 소정 높이로 적층한 후 압축하고 측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얇게 절단하여 제조한 원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상으로 염색된 복수매의 한지를 쌓은 후 측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거즈를 접착시킨 후 세로방향으로 소정 폭으로 절단하여 제조되며, 이에 따라 한지의 독특한 재질감과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양한 문양을 표현할 수 있어 지갑 등의 여러 가지 패션소품에

22) 전현용, IPC 코드B41M 3/00 출원번호2020020036371(2002, 12, 05) 공고번호(2003, 04, 26) 등록번호2003110910000 (2003, 04, 08)

23) 전양배, IPC 코드D21H 27/30(2006, 01) 출원번호1020040100434(2004, 12, 02) 공개번호 공고번호(2006, 03, 20) 등록번호1005619160000(2006, 03, 10) 등록사항 발명의 명칭 한지를 이용한 원단 및 그 제조방법 (FABRICS USING KOREAN PAPER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적용할 수 있는 한지 원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항균 원적외선 향 한지」²⁴⁾

본 발명은 항균 원적외선 향한지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항균 원적외선 향한지의 제조방법은, 삼(대마)섬유 70 중량%와 닥나무 백피 섬유 23.5 중량%와 닥풀 1 중량%와 강화제 0.5 중량%와 원적외선을 발산하는 광물인 옥, 게르마늄, 맥반석, 목어석 중 선택된 1 종 이상의 광물분말 2.5 중량%를 반응기에 넣고, 허브잎, 허브향, 솔잎, 솔향, 쑥잎, 쑥향, 차잎, 차향, 과일, 과일향 중 선택된 1 종 이상의 향료 2.5 중량%를 반응기에 넣고 물과 함께 혼합 교반한 다음, 일정 크기의 발로 얇게 펴서 건조관에 올려놓고, 95℃에서 20~30초 동안 건조시켜 한지를 제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해 벽지, 장판지 등에 사용되는 원적외선이 발산되고 항균작용이 있으며 향이 나는 한지와 그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③ 「숯한지」²⁵⁾

숯 분말을 닥 종이액(한지의 원재료인 닥나무 껍질을 분쇄하여 물에 푼 것)에 고루 섞어 제조(종이뜨기-건조)함으로써 닥과 숯 분말이 결합하여 한지에 숯 성분이 함유되도록 제조한 것을 특징으로 한지에 미세한 숯가루를 함유케 한 '숯 한지'이다. 두 천연재료의 조합으로 항균, 살균, 소취, 흡습, 발습, 음이온, 원적외선발생, 생체활성화 효과 등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것이다. 초배지, 표구이면지, 각종식품포장지 등에

24) 이종분, 김대은, 김덕은, 김기은, IPC 코드D21H 17/74 출원번호1020030074033(2003. 10. 22) 공개번호1020050038773(2005. 04. 29)

25) 강형민, IPC 코드D21H 17/02(2006. 01) 출원번호2020050031403(2005. 11. 05) 공개번호 공고번호 (2006. 01. 31) 등록번호2004073900000 (2006. 01. 23)

적용함으로써 한지와 숯 각각의 물성적 특성의 상승효과를 얻게 된다.

④ 「옷칠을 한 한지벽지」²⁶⁾

옷칠을 한 한지벽지에 있어서 한지의 양 표면에 옷칠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옷칠을 한 한지벽지. 본 고안은 옷칠이 된 한지벽지에 관한 것으로, 한지의 양 표면에 옷칠을 함으로써 각종 세균 및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고 세집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⑤ 「한지원사와 레이온원사로 직조한 벽지 원단」²⁷⁾

한지원사와 레이온원사를 베틀로 짜는 방식에 따라 각각 날실(세로줄)과 씨실(가로줄)로 하여 직조하되, 10mm 간격으로 한지원사와 레이온원사 대신 은사나 동사 등의 금속원사를 날실(세로줄)과 씨실(가로줄)로 하여 직조한 벽지 원단. 한지원사와 레이온원사를 베틀로 짜는 방식에 따라 각각 날실(세로줄)과 씨실(가로줄)로 하여 직조하되, 10mm 간격으로 한지원사와 레이온원사 대신 은사나 동사 등의 금속원사를 날실(세로줄)과 씨실(가로줄)로 하여 직조한 벽지 원단. 원단에 페그마타이트분말을 15-2척(가%, 천연수지 에멀전 형 접착제를 페그마타이트분말에 15-2척(가%를 첨가한 뒤 천연수지 에멀전 형 접착제에 50-70(가%의 신나를 첨가하여 코팅한 벽지 원단.

본 고안은 한지원사와 레이온원사를 이용하여 직조하는 벽지 원단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르면 한지원사와 레이온원사를 베틀로 짜는 방식에 따라 직조하고 그 직조된 벽지 원단을 천연자연소재 100%의 성

26) 이강우, IPC 코드D21H 27/20 출원번호2020050019853(2005. 07. 07) 공개번호 공개번호(2005.09.28) 등록번호2003971340000(2005. 09. 22)

27) 이육삼, IPC 코드D21H 27/20 (2006. 01) 출원번호2020070015593(2007. 09. 19) 공개번호 2020090002883(2009. 03. 24)

분으로 만든 천연수지 에멀전형 접착제를 이용하여 페그마타이트분말
로 코팅하여 그 기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다.

5) 기능성 한지

① 「한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²⁸⁾

본 발명은 한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는 흡습성, 탈취성, 통기성, 향균성이 뛰어난 한지에 각종 피부활성 성
분을 함유한 수용성 하이드로겔을 도포하여 피부 주름개선, 미백, 보습,
각질개선에 효과적인 한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그 제조방법에 관
한 것이다. 한지를 지지체로 하여, 한지 위에 피부활성성분을 하이드로
겔에 포집시켜 도포함으로써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지 하이드
로겔 마스크팩이다. 피부활성성분은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테
노신, 폴리에톡실엘티드레틴아마이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 알부틴, 닥나무추출물, 감초, 에틸아스코빌이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로 이루어진 군에
서 선택된 미백에 효과적인 성분; 치마버섯다당체, 니아신아마이드, N-
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보습에 효과적인 성분;
아이비 추출물, 팬시추출물, 카모마일, 대두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피부트러블 및 각질개선에 효과성인 성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한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피부활성성분을 포함한 하이드로겔을
한지 위에 0.001~1cm의 두께로 도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지 하
이드로겔 마스크팩.

28) 박창만, 김연준, 김한곤, 강학희, 김용희, IPC 코드A61K 8/02(2006, 01) 출원번호
1020060102856 (2006. 10. 23) 공개번호1020080036354(2008. 04. 28), 출원인, (주)아모레퍼
시픽

가) 폴리아크릴산(polyacrylic acid)을 중화제를 사용하여 중화시키고 아가(agar) 고분자를 100℃까지 가온하여 끓이고 교반하는 단계

나) 상기 1)을 70℃까지 냉각시키고 유연제인 오일(oil) 성분을 첨가하는 단계

다) 50℃ 이하에서 상기 2)에 피부활성 성분을 배합하는 단계

라) 코팅기에 압출방식으로 상기 3)에서 배합된 원료를 흘려보내 한 지위에 로딩시키는 단계

마) 상기 4)에서 내용물이 로딩되면 챔버를 통과하면서 건조시키는 단계

바) 상기 5)에서 형성된 한지 하이드로겔을 40℃에서 2~3일간 숙성 후 커팅하여 한지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제조방법.

② 「한지기능성마스크팩」²⁹⁾

한지로 만든 마스크팩에 관한 것으로 기존 마스크팩의 마스크시트인 부직포 대신 닥나무 펄프로 만든 한지를 마스크시트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오래가는 중성지로서 닥나무 펄프 자체로 제작되므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닥나무는 동의보감에 “얼굴빛을 좋게 하고 피부를 충실히 하며 눈을 밝게 한다” 하였고 “닥나무 달인 물에 목욕을 하면 가려움증이나 종기를 낫게 하며 살이 돌아나게 한다”고 하였다.

기존 마스크팩의 마스크시트인 부직포는 화학섬유를 화학폴로 압착하여 만든 화학제품으로 사용 시에는 마스크시트인 부직포가 두꺼워 얼굴 피부에 밀착되는 밀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불편함을 주고

29) 황승국, IPC 코드A45D 44/22(2006, 01) 출원번호2020060029066(2006, 11, 06) 공개번호 2020080000956(2008, 05, 09)

있다. 한지마스크시트는 닥나무 펄프 자체로 제작되는 천연의 제품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며 밀착성이 우수하여 얼굴의 코 주변과 같은 움푹볼록한 모양의 부분도 손가락으로 눌러 주면 코 주변의 모양대로 붙는다. 또한 한지마스크는 한지마스크에 침지시킨 에센스가 피부에 흡수되면서 마를 때 처진 피부를 꼭 조여 주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한지만이 가진 고유의 성질로 수분을 먹은 축축한 한지는 마르면서 팽팽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한지는 종이뜨기를 여러 번 되풀이 하면 필요한 만큼의 두꺼운 한지를 얻을 수 있으며 순수한 닥을 사용하여 합지로 만든 한지는 두껍고 질긴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지를 몇 겹으로 바른 갑옷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옷칠을 입힌 몇 겹의 한지로 만든 갑옷은 화살도 뚫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한지도 에센스에 침지할 시키면 한지의 지질이 유연해져서 사용 시 잘 찢어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한지 종이뜨기 시에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종이뜨기를 한 한지마스크시트는 부적포에서는 필요했던 절개선)을 삭제하여 찢어질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얼굴 모양으로 재단을 하고, 또한 일정한 두께로 종이뜨기를 한 한지를 한 겹 이상으로 합지를 하여 제작 시 한지마스크시트에 침지시킨 에센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에센스에 침지된 한지마스크시트의 두께로 인한 찢어짐을 방지할 수 있었다.

에센스가 침지된 한지마스크시트 위에 무독성 비닐을 한지마스크시트와 같은 얼굴 모양으로 재단을 하여 부착시킴으로 사용 시 한지마스크시트의 찢어짐을 방지하고 사용할 때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본 고안인 '한지기능성마스크팩'은 천연의 황토 또는 숯으로 염색된 한지를 한지마스크시트로 사용하면 황토와 숯이 가지고 있는 약리 효과를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③ 「한지 머드패드 제조방법」³⁰⁾

본 발명은 한지 머드패드 제조방법이다. 한지 머드패드 제조방법은 미네랄, 게르마늄, 알긴산을 함유한 머드를 건조시키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제조된 건조된 머드를 500메쉬 이하로 분말화시키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제조된 분말 상태의 머드를 한지의 일면에 균일한 두께로 흡착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고 작용되는 한지 머드패드는 패드를 얼굴이나 피부에 부착시키는 간소한 작업만으로도 머드 마사지가 이뤄지므로 사용상의 편리성이 증가되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한지 머드패드는 머드에 함유된 각종 유용한 성분이 피부의 노폐물 및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아울러 피부세포의 윤택함과 피부수축 및 보습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강한 햇볕으로 손상되기 쉬운 피부의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한지와 머드는 친환경적인 천연재료이므로 마사지가 끝나고 폐기되는 경우에는 자연 분해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6) 전자파차단용 한지

「전자파 차폐용 기능성 한지 및 이의 제조방법」³¹⁾

본 발명은 전자파 차폐용 기능성 한지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공지의 한지 조성성분에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는 특성의 탄소섬유를 함유하는 전자파 차폐용 기능성 한지 및 이의 제조

30) 박성화, IPC 코드A61K 7/48 출원번호1020020040639(2002. 07. 12) 공개번호 1020040006376(2004. 01. 24)

31) 조현진, IPC 코드D21H 17/03 출원번호1020030039854(2003. 06. 19) 공개번호 1020040110510 (2004. 12. 31) 공고번호(2005. 09. 21) 등록번호100516423XXXX(2005. 09. 14)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인피섬유와 같은 장섬유와 목재섬유와 같은 단섬유와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장망·환망 조합초지기를 사용한 습식 초지법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파 차폐용 기능성 한지 및 이의 제조 방법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전자파 차폐용 기능성 한지는 공지의 한지에 있어서, 탄소섬유 10~90중량% 함유되며 탄소섬유 이외에 기타 종래 한지의 조성성분으로서 인피섬유나 목재섬유(wood fiber)가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인피섬유와 목재섬유가 혼합된 혼합물을 포함한다.

인피섬유와 목재섬유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물인 한지의 특성, 용도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자파 차폐용 한지 개발」³²⁾에서 전자파차폐용 한지제조에 있어서, 가)타 펄프제조 및 탄소섬유 전처리, 나)전자파차폐용 한지의 물성, 다)전자파차폐용 한지의 기능성 효과 등을 다루어 전자파 차폐용 한지개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7) 전력생산용 한지

「전력 생산용 한지 차양막」³³⁾

본 고안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을 차단해 주고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생산용 한지 차양막에 관한 것으로, 차양막 역할을 하는 원재료를 기존에 흔히 쓰이는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섬유 대신 닥나무 껍질을 사용하여 만든 한지로 하여 친환경적이며 환경 호르몬 등에 의한 피부

32) 조원진, 2003, 「전자파 차폐용 한지 개발」, 『임업정보』 제148호(2003. 8) pp.42~46.

산림 통권439호(2002. 8), 산림조합중앙회, pp.67~71.

33) 김동민, IPC 코드H02J 7/35(2006. 01) 출원번호2020070008565(2007. 05. 22) 공개번호 2020080005690 (2008. 11. 26)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고, 차양막 뒷면에 막대형 태양전지 모듈을 부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변환장치(인버터)를 통해 사용자가 사용할 전력을 공급 하는 것이다.

다육 상세하계는 한지로 만들어진 차양막을 차양막 고정가이드에 고정 시키고, 차양막 뒷면에 막대형 태양전지 모듈을 천연접착제로 부착하고, 차양막 하단부에 무게추 역할을 하는 차양막 추를 달아 차양막의 균형을 잡아주는 차양막부; 상기 차양막을 고정하는 차양막 동작기어 조작용핀을 당기면 차양막 하단부의 차양막추의 무게에 의해서 차양막이 하강하게 되며, 차양막이 하강할 때 차양막 상승용 당김 한지끈이 차양막 상승용 당김 한지끈 보빈에 감기게 되며, 감겼던 차양막 상승용 당김 한지끈을 당기면 당긴 길이만큼 차양막이 상승하는 것으로, 축 양쪽이 베어링에 고정되어 동작하는 동작부; 상기 차양막의 뒷면에 막대형 태양전지 모듈을 천연접착제로 부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력변환장치(인버터)를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상기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전력으로 공급하는 발전부; 상기 차양막을 가정, 학교, 사무실 상가 등에 설치하여 자가 발전을 하여 전기요금을 아낄 수도 있으며, 차양막 주재료가 한지로 이루어지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기존의 태양광 발전장치는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였으나 본 고안의 전력생산용 한지 차양막은 일반적인 차양막(커텐)과 같이 창문에 설치함으로 공간 활용에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효과가 있다.

8) 약재 · 약품용 한지

「한지와 키토산을 이용한 항균성 섬유재」³⁴⁾

34) 김애수, 최병식, 김연수, IPC 코드D06M 17/00(2006, 01) 출원번호1020080064319(2008. 07. 03) 공개번호 공고번호(2009.02.17) 등록번호1006838650000(2009. 02. 09)

한지와 키토산이 혼합된 항균성 섬유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항균성 섬유재의 구성을 한지로 형성된 제 1섬유층의 하측으로 흡수지로 형성된 제 2섬유층이 형성되고 상기 제 2섬유층의 하측으로 통기성이 우수한 흡수지로 형성된 제 3섬유층이 형성되며 상기 제 1섬유층의 상측으로 키토산재로 형성된 커버층이 도포되어지는 항균성 섬유재를 발명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상기 항균성 섬유재의 제 3섬유층 하측으로 핫멜트가 형성되고 상기 핫멜트의 하측으로 박리지를 결합하되, 사용 시에는 상기 박리지를 제거하여 상기 핫멜트가 기저귀나 요실금 팬티 및 생리대 등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가능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제공되는 항균성 섬유재는 경량성 소재의 한지를 내장함으로서 색분해성이 좋고 내구성과 내세탁성이 우수하며 독특한 질감과 감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적외선 방출 및 흡한속건성과 통기성, 보온성 등의 효과가 제공된다. 또한, 상기 항균성 섬유재는 항균환성, 소취기능, 항아토피 효능을 가진 키토산으로 인하여 피부가려움증, 피부진물 등 피부질환 방지 및 냄새제거 흡수력 상승 통기성 등의 효과가 제공되는 매우 우수한 발명이다.

IV. 맺음말

현대는 농산물의 특화사업이 지역적으로 운용되고 연구된다. 여기에는 기후와 환경이 중요하다. 닥나무의 경우 날씨가 더우면 옷자라서 닥의 필프가 조밀하지 못하여 인장강도가 약해지고 너무 추우면 잘 자라지 않으며 단기간에 자라는 특성이 있다. 과산지역은 이런 특성에 알맞아서 닥의 질이 우수하게 생산되는 지역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닥나무

재배와 한지의 생산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닥나무와 한지를 과학적 산업화에 응용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영농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산업현장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런 연계는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제 1차 산업인 농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괴산군에는 한지가 잘 자라는 산지와 밭이 많고 고냉기후라서 종이 질이 좋은 닥나무가 생산된다. 무엇이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인지 판단하고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이용한 효율적인 농업경영이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괴산 농민을 위한 농업경영과 생산성 행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건설은 청정지역인 장점을 활용하여 계승하는 차원에서 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첨단과학과 농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런 분야를 개발하고 연계하여 군정을 추진하면 사회복지는 자동적으로 증진될 것이다. 첨단과학과 농산물관 연계된 기업의 유치는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의 첫걸음이다.

【참고문헌】

- 변유량, 조석철, 신정규, 국무창, 최찬익, 김성보, IPC 코드D21H 17/25 출원
번호1020010021238(2001. 04. 19) 공개번호1020020082246(2002. 10.
31)
김태균, IPC 코드E04F 15/04 (2006. 01) 출원번호1020040033709(2004. 05.

- 13) 공개번호1020050046522(2005. 05. 18) 공고번호(2006. 08. 01) 등록번호1006055340000(2006. 07. 20) 원출원 번호2020030035608(2003. 11. 14)
- 안치용, IPC 코드E04F 13/08(2006. 01) 출원번호1020060071852(2006. 07. 31) 공개번호 공고번호(2007. 09. 11) 등록번호1007579490000(2007. 09. 05)
- 이진철, IPC 코드F28F 21/00 출원번호2020050020743(2005. 07. 16) 공고번호(2005. 12. 12) 등록번호2004036110000(2005. 12. 06)
- 임정순, IPC 코드E06B 9/36 출원번호2020050007096(2005. 03. 16) 공개번호 공고번호(2005. 06. 16) 등록번호2003868120000(2005. 06. 03)
- 조현진, 윤승락, 노정관 IPC 코드D21H 27/18(2006.01) 출원번호1020040065154(2004. 08. 18) 공개번호1020060016640(2006. 02. 22) 공고번호(2006. 06. 30) 등록번호1005935590000(2006. 06. 20)
- 이수빈, IPC 코드F28D 9/00(2006. 01) 출원번호1020040069668(2004. 09. 01) 공개번호1020060020939(2006. 03. 07) 공고번호(2006. 09. 29) 등록번호1006303930000(2006. 09. 25)
- 최항, IPC 코드B32B 5/02 출원번호2019990020651(1999. 09. 27) 공고번호(2000. 03. 15) 2001737560000(1999. 12. 21)
- 오용석, 김정선, 윤주환, IPC 코드H05B 3/20 출원번호1020030075896(2003. 10. 29) 공개번호1020050041033(2005. 05. 04)
- 박협우, IPC 코드F24F 7/10(2006. 01) 출원번호1020050052138(2005. 06. 17) 공개번호 공고번호(2006. 08. 03) 등록번호1006090150000(2006. 07. 27)
- 안치용, IPC 코드D21H 19/10(2006. 01) 출원번호1020050136256(2005. 12. 31) 공개번호 공고번호(2007. 05. 30) 등록번호1007229250000(2007. 05. 22)
- 김석란, IPC 코드D21H 19/10 출원번호2020020029544(2002. 10. 02) 공개번호 공고번호(2003. 01. 14) 등록번호2002997360000(2002. 12. 17) 원출원 번호(2002. 09. 18)

- 김석란, IPC 코드D21H 19/10 출원번호1020020057052(2002. 09. 18) 공개번호1020040025201(2004. 03. 24) 공고번호(2005. 09. 20) 등록번호1005153970000(2005. 09. 08)
- 김석란, IPC 코드G03C 1/00 출원번호2020010023416(2001. 08. 01) 공개번호 공고번호(2002. 01. 26) 등록번호2002616780000(2002. 01. 11) 원출원 번호(2001. 02. 08)
- 정형희, 최한고, 김도현, IPC 코드B41M 5/00 출원번호20199900153 51(1999. 07. 29) 공개번호 공고번호(2000. 02. 15) 등록번호20016 38840000(1999. 10. 04)
- 황미영, 김현천, 이건훈, IPC 코드D21H 27/00 출원번호1020000000831 (2000. 01. 10) 공개번호1020010068752(2001. 07. 23) 공고번호(2002. 04. 09) 등록번호1003317560000(2002. 03. 26)
- 안치용, IPC 코드D21F 13/02 출원번호1020020058870(2002. 09. 27) 공개번호1020040027118(2004. 04. 01) 공고번호(2005. 04. 20) 등록번호1004842250000(2005. 04. 11)
- 박동운, 「다섬유 불당 성형공법을 이용한 한지성형물의 제조방법」, 『임업정보』 제148호(2003. 8) pp.42~46.
- 성기득, IPC 코드B44C 3/02 출원번호2020050008546(2005. 03. 29) 공고번호(2005. 06. 13) 등록번호2003865640000(2005. 06. 01)
- 박철호, IPC 코드A61G 17/08 출원번호2020040026383(2004. 09. 14) 공고번호(2005. 01. 03) 등록번호2003714260000(2004. 12. 20) 원출원 번호1020040073471(2004. 09. 14)
- 진한용, IPC 코드B41M 3/00 출원번호2020020036371(2002. 12. 05) 공고번호(2003. 04. 26) 등록번호2003110910000(2003. 04. 08)
- 전양배, IPC 코드D21H 27/30(2006. 01) 출원번호1020040100434(2004. 12. 02) 공개번호 공고번호(2006. 03. 20) 등록번호1005619160000(2006. 03. 10) 등록사항 발명의 명칭 한지를 이용한 원단 및 그 제조방법 (FABRICS USING KOREAN PAPER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이종분, 김대은, 김덕은, 김기은, IPC 코드D21H 17/74 출원번호
1020030074033(2003. 10. 22) 공개번호1020050038773(2005. 04. 29)

강형민, IPC 코드D21H 17/02(2006. 01) 출원번호2020050031403(2005. 11.
05) 공개번호 공고번호(2006. 01. 31) 등록번호2004073900000(2006.
01. 23)

이강우, IPC 코드D21H 27/20 출원번호2020050019853(2005. 07. 07) 공개번
호 공고번호(2005. 09. 28) 등록번호2003971340000(2005. 09. 22)

이옥심, IPC 코드D21H 27/20(2006. 01) 출원번호2020070015593(2007. 09.
19) 공개번호2020090002883(2009. 03. 24)

박창만, 김연준, 김한근, 강학회, 김용희, IPC 코드A61K 8/02(2006. 01) 출원
번호1020060102856(2006. 10. 23) 공개번호1020080036354(2008. 04.
28), 출원인, (주)아모레퍼시픽

황승국, IPC 코드A45D 44/22(2006. 01) 출원번호2020060029066(2006. 11.
06) 공개번호2020080000956(2008. 05. 09)

박성화, IPC 코드A61K 7/48 출원번호1020020040639(2002. 07. 12) 공개번
호1020040006376(2004. 01. 24)

조현진, IPC 코드D21H 17/03 출원번호1020030039854(2003. 06. 19) 공개번
호1020040110510(2004. 12. 31) 공고번호(2005. 09. 21) 등록번호
1005164290000(2005. 09. 14)

조현진, 2003, 「전자파 차폐용 한지 개발」, 『임업정보』 제148호(2003. 8)
pp.42~46.

산림 통권439호(2002. 8), 산림조합중앙회, pp.67~71.

김동민, IPC 코드H02J 7/35(2006. 01) 출원번호2020070008565(2007. 05. 22)
공개번호2020080005690(2008. 11. 26)

김애수, 최명식, 김민수, IPC 코드D06M 17/00(2006.01) 출원번호
1020080064319(2008. 07. 03) 공개번호 공고번호(2009. 02. 17) 등록
번호1008838650000(2009. 02. 09)

성남지역의 취학전 교육실태조사연구

조남두

신구대학 교육행정학 교수

◁ 차례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취학전 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보육이론
 - 2. 유아교육이론
 - III. 취학전 교육의 실태
 - 1. 선진국 실태
 - 2. 우리나라 실태
 - 3. 성남시 실태
 - IV. 취학전 교육의 문제점
 - 1. 우리나라 취학전 교육의 문제점
 - 2. 성남시 취학전 교육의 문제점
 - V. 취학전 교육의 개선방안
 - VI. 결론
 - 1. 요약 및 결론
 - 2. 제언
- [참고문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의 급격한 발달 속에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에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미소냉전 체제로 양분되던 관점이 사라지게 되고 민주화 경향이 뚜렷해짐과 동시에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기업의 세계화가 국가의 지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는 첨단기술의 가속화 속에 산업 전반적인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환경 역시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다원화된 가치관, 노령인구의 증가 및 소 자녀 현상 등이 점차 만연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현상에 발맞추어 전통적 가족 규범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주의 성향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수년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 낮은 임금 등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맞물려 전통적인 가부장 중심의 가정경제체제가 급속히 허물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시장 진출 증가는 가족 내에서의 새로운 역할 업무 분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울러 부부의 자녀관 역시 양보다는 질 위주의 현상으로 뚜렷하게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 자녀 현상 속에 자녀의 양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지나친 개인부담의 가중은 저출산 현상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요즘 다양한 가족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는 20세기의 단편적인 형태보다 훨씬 복잡 다양하게 우리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경자, 2008:37-38).

유아기는 인격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양육환경이 제공하는 유아기의 체험은 그 후의 유아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영유아는 무력하지만 이 시기의 가소성(可塑性)은 대단히 뛰어

나 절대적인 권위에 있는 부모를 모델로 하여 모방을 통해 성장해 가기 때문이다(김옥경 외, 2007:19-20).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특히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 출산 문제를 해소시키고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선진국의 영유아보육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성남시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 선진국, 우리나라 및 성남시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성남시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II. 취학전 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취학전 교육이란 3~5세까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유아교육은 일반적으로 만 6세 이전의 유아에게 주는 교육으로 인식되어 왔고 취학전교육, 학령전교육, 조기교육, 보육 등의 용어와 함께 그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혼란되게 사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취학전 교육을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보고 어린이집 실태와 유치원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육이론

(1) 보육의 개념

보육의 개념은 학자와 시대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는데 기존의 탁아라는 용어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아동을 위탁한다는 의미의 탁아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지는 아동의 양육을 개별적인 사유로 인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하는 보충적,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모가 직업,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 가정 밖에서 부모를 보완하여 집단보호와 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서비스로 정의하여 부모 역할의 대리로서가 아니라 보완의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이 합쳐진 보육(educare)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보육의 개념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으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벗어난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이란 유아들의 보호 및 교육 받을 권리와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보호적 측면에서는 영양,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연진 외, 2007). 조성연 등(2006)은 보육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하였다.

(2) 어린이집의 개념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영유아(만 0세~5세 이하의 취학전 연령)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표시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인가기준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치된 기관으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가정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어린이집은 만 0세~5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정원내에서 만12세까지 연장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예, 장애아 통합, 방과 후 등). 이용시간은 평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을 운영하되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즉, 시간연장(19:30~24:00), 야간(19:30~익일 07:30),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을 들 수 있다(성남시 보육정보센터, 2009: 3-5).

(3) 보육시설의 종류

1)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 국·공립 보육시설 :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

한다.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 민간 및 법인 보육시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함께 인건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시설이다.

▶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사업장 인근지역, 사원주택 등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한다. 평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이유로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 서로 자금을 내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2) 운영특징에 따른 분류

보육시설을 운영특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유아교육이론

1) 유아교육의 개념

유아교육의 대상이 되는 유아의 연령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 임재택(1999)은 0세부터 8세까

〈표 1〉 운영특징에 따른 분류

분 류	운 영 특 성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는 시설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영아 전담 보육시설	만 2세미만(36개월까지)의 영아 20명 이상을 전담하여 보육하는 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방과 후에 보육하는 시설
시간 연장 보육시설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00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4시간 보육시설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휴일 보육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지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과 유치원,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저학년 등에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성경과 그의 동료들(2003) 역시 유아교육은 태아에서부터 8세까지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은화와 김진영(1999)은 유아교육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고 넓은 의미의 유아교육은 출생에서 8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교육과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형식적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유아교육은 3,4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형식적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옥경, 2007:15).

(2) 유치원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시기까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이다.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다. 공립유치원은 국, 공립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요즘 단설유치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개인이나 사회, 학교법인, 단체 및 사인이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사립유치원은 주로 개인, 사립학교, 각종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도시 지역일수록 사립유치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농어촌지역일수록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높다. 유치원의 연간 교육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하고, 하루 교육시간은 3시간(180분)을 기준으로 하되 유아의 발달수준, 지역사회의 실정, 유치원의 특성, 활동내용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치원은 반일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지만 시간연장제,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유치원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오후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III. 취학전 교육의 실태

1. 선진국 실태

선진국의 취학전교육 실태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실태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의 실태

미국의 보육정책은 빈곤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보육비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일반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 등 크게 세 가지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공공보육적 성격을 띠는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프로그램과 1990년의 보육교부금 프로그램으로서 아동보육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상적 조기교육의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이고 후자는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미국정부는 빈민아동의 조기교육에 공공재원과 세금정책으로 지원하며 주로 빈곤아동의 사회경제적, 인적자본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보상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때문에 미국의 보육제도는 단일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과 조기교육이 혼합되어 있고, 공립과 사립, 영리과 비영리 기관이 혼합되어 있다. 그 증거로 2000년 통계를 보면 3세미만 아동 중 절반가량이 기관중심 보육시설에 있고, 절반이 가정 중심 보육시설에서 비공식적인 관리하에 보육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보육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국 보육정책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육이 사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많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 자신이 국가수준의 일괄적인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방식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잘 발달된 부분은 주정부 내의 지원을 받는 여러 비영리 단체와 기구들의 활약이다. 대신 국가수준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가족을 위한 제도를 매우 체계적으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조기 헤드스타트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미국의 책임감이 잘 구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신미자, 2007:52-53).

(2) 일본의 실태

2000년대를 전후로 일본의 보육정책의 큰 흐름은 저 연령아 보육의 확대를 비롯하여 보육수요에 따른 공급확대를 거론하면서 각종규제완화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요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7년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의 각의 결정된 이후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충실'이라는 명목 아래 거듭된 논의 결과 정원의 탄력화, 보육소의 설치주체 제한의 철폐, 보육소의 토지·건물의 임대방식의 허용, 소규모 보육소의 설치 촉진, 공설민영방식의 촉진, 대기아동이 많은 지역에서의 보육소 설비준거의 탄력화, 단기간 근무 보육사 도입의 확대, 방화·도파기준의 완화, 회계처리의 유연화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보육서비스의 구조와 형태는 크게 시설형 보육과 개별형 보육으로 나뉘고, 시설형 보육은 다시 인가보육시설과 인가외보육시설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인가보육시설은 국가가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가 인가한 시설로 공립과 사립이 있다. 인가외보육시설은 베이비호텔 등과 동경도에서 독자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인증보육원'이 있다. 인증보육원은 동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의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으며, 도로부터 조성금도 나온다. 2006년에 입법화된 '인정어린이원'은 한마디로 도도부현이 인정한 시설로, 인정의 기준은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가외시설이라도 지자체에서 정한 시설의 기준이나 모집인원을 클리어하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공병호, 2007:87-90).

인정어린이원의 기능을 종래의 유치원 및 보육소의 기능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인정어린이원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

〈표 2〉 유치원 및 보육소와 인정어린이원의 기능

유치원	인정(認定) 어린이원	보육소
유아교육 중심 만 3세에서 취학전 → 기능 추가	취학전유아교육·보육 을 하나로 보고 일관된 내용을 제공하는 새로 운 시설	보육중심 1세에서 취학전까 지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없 을 경우 → 기능추가

소형, 자치단체 재량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인정어린이원으로 인가를 받더라도 유치원이나 보육소라는 본래적인 형태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최순자, 2006:41-44).

(3) 영국의 실태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되,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진보적 보편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자 1998년 340만 명이었던 절대빈곤 아동수를 2010-11까지 10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2001년 특수교육과 장애법에서는 통합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방안과 개정된 안내지침을 제시하였다.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 현장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부가적인 학습과 사회적 요구를 가진 아동의 25%를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자치구도 있는 반면 전혀 진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을 보면 2002-2003년 저소득층 가정 아동(0-15세)의 비율이 21%였으며, 만5세 이하 아동의 약 22%가 편부모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부모의 경우 보육비용의 70% 지원을 포함한 조세감면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있다(육아정책개발센터, 2008:27-28).

2. 우리나라 실태

(1) 어린이집 실태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연도별 통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보육시설의 연도별 통계

구분	계	국·공립 보육 시설	법 인 보육 시설	민간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 시설	직 장 보육 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2001	20,097	1,306	1,991	9,803	313	9,490	미분류	6,801	196
2002	22,147	1,330	1,633	11,046	575	10,471	미분류	7,939	199
2003	24,142	1,329	1,632	12,012	787	11,225	미분류	8,933	236
2004	26,903	1,349	1,537	13,191	966	12,225	미분류	10,583	243
2005	28,367	1,473	1,495	13,748	979	12,769	42	11,346	263
2006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2007	30,856	1,748	1,460	14,083	1,002	13,081	61	13,184	320

<표 3>에 의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반면에 법인 보육시설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 보육시설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 159개,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이 768개로 나타났다.

〈표 4〉 특수 보육시설 현황

2008. 6. 30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구 분	설 립 주 체 별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가정	부 모 협 동	직장
				법인외	민간개인			
영아전담	667	60	231	59	261	56	0	0
장애아전담	159	28	93	11	25	2	0	0
장애아통합	768	335	47	42	280	62	2	0
방 과 후	966	124	108	153	513	63	0	0
시간연장	3,675	536	237	105	1,369	1,405	0	23
휴 인	142	29	31	12	39	31	0	0
24 시간	122	21	10	3	59	28	0	1

(2) 유치원 실태

우리나라의 최근 유치원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유치원 실태

연 도	유치원수	원아수	교원수	교사1인당 원아수	학습당 원아수	취원률
2007	8,294	541,550	33,504	16.2	22.7	36.2
2008	8,344	537,822	34,601			

〈표 5〉에 의하면 2008년도 유치원수는 8,344개이며, 원아수는 537,822명이고 교원수는 34,601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유치원 입학 원아수는 〈표 6〉와 같다.

〈표 6〉 연도별 유치원 입학 원아수

교육과학기술부통계

연 도	남 아	여 아	합 계
2000	187,821	167,269	355,090
2001	180,552	164,526	345,078
2002	180,945	165,957	346,902
2003	172,679	159,726	332,405
2004	169,972	156,555	326,527
2005	167,189	153,263	320,452
2006	329,556	302,798	632,354
2007	161,102	148,884	309,986
2008	153,183	142,302	295,485

〈표 6〉에 의하면 매년 유치원 입학 원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만5세 취원율이 2005년 45.4%, 2007년 56.2%, 2008년 51.2%로 나타났다.

최근 영아·특기 등 유아 사교육 확산으로 유아교육이 위기에 처해있으며, 사립유치원은 보육(어린이집)과 영어학원 사이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설립별 유치원수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2008년 12월 현재 유치원 수는 8,344개로 나타났으며, 공립유치원 중에서 단설유치원 수는 101개로 나타났다.

〈표 7〉 지역별 · 설립별 유치원수

2008. 12. 19 한국교육개발원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단설	병설	계				개인	군부대
							소계	학교법인	기타법인		
계	8,344	3	4,480	101	4,379	3,861	511	109	392	3,329	21
대도시	2,414	598	28	570	1,816	228	64	158	1,580	8	
중소도시	2,805	1	1,274	45	1,229	1,530	176	34	140	1,347	7
농어촌	2,686	2	2,175	25	2,150	509	104	11	91	399	6
도서벽지	439		433	3	430	6	3	0	3	3	0

3. 성남시 실태

(1) 어린이집 현황

성남시의 보육시설 현황과 특수보육시설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성남시 보육시설 현황

2008. 12. 31 현재 자료 : 성남시 보육정보센터

구분	설립 주체별	설립주체별						총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법인 외	개인				
시설수		41	1	7	204	4	275	14	537
아동수		4,042	84	807	9,225	94	4,541	951	19,754
직원수		531	10	92	1,217	15	944	165	2,794

〈표 8〉에 의하면 성남시 보육시설수는 537개이고 아동수는 4,042명, 교직원수는 531명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소재 특수보육시설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특수보육시설 현황

2008. 12. 31 현재

구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보육시설	휴일
성남	1	0	19	11	45	1	2

또한 성남시의 보육시설 원아수 현황은 〈표 10〉 같다. 〈표 10〉에 의하면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원아의 평균 취원률은 32.4%로 나타났다.

〈표 10〉 성남시 보육시설 원아수 현황

2008. 12. 31 현재

연령별	성남시 보육시설 원아수	취원률	성남시 유아수 (성남시 주민등록인구통계)
0세	1,686명	19.7%	8,547명
1세	2,542명	27.5%	9,218명
2세	3,376명	41.0%	8,232명
3세	3,308명	42.0%	7,859명
4세	3,005명	34.5%	8,708명
5세	2,757명	30.8%	8,936명
계	16,674명	32.4%	51,500명

출처) 성남시 보육시설 원아수: E-보육 통계자료, 성남시 유아 수: 성남시 통계

** 연령별 취원률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통합보육이나 방과 후 보육으로 6세 이상도 해당되는 인원이 있으나 제외함.

** 보육시설 원아 수는 E-보육 통계자료를 참고하였고 성남시 유아 수는 성남시 통계자료 중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참고하여 구성.

(2) 유치원 현황

성남시의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에 의하면 성남시 유치원 현황은 공립유치원이 39개, 사립유치원이 74개로 합계 113개로 나타났으며, 학급수는 416개, 원아수는

〈표 11〉 성남시 유치원 현황

2009. 4월 현재

구 분	설립주체별		계
	공 립	사 립	
유치원수	39	74	113
학 급 수	83	333	416
원 아 수	2,000	6,803	8,803
교 원 수	111	516	627

〈표 12〉 원아수 현황

2009. 4월 현재

연령별	설립주체별		계	취원률	성남시 유아수
	공 립	사 립			
3세	157	1,862	2,019	24.3%	8,278
4세	612	2,495	3,107	35.1%	8,843
5세	1,231	2,446	3,677	40.5%	9,069
계	2,000	6,803	8,803	33.9%	26,190

8,803명, 교사수 62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2〉에 의하면 3세 취원률 24.3%, 4세 취원률 35.1%, 5세 취원률 40.5%이며, 평균 33.9%로 나타났다. 유치원 중에서 종일반 운영 유치원수는 108(공립39, 사립 69)개이며, 장애아 통합 유치원수 및 학급수는 11개원(공립1, 사립 10/ 특수교육 원아수 21명)로 나타났다. 성남시에는 해은학교와 성은학교에 유치부가 있으나, 특수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특수유치원은 현재 없고, 공립단설인 성남푸른유치원에 1학급, 판교의 삼평유치원에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 할 예정이다.

〈표 10〉과 〈표 12〉를 비교해보면 3세의 취원률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높고, 4세 및 5세의 취원률은 유치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3~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취원률은 각각 약 70%로 나타났다.

IV. 취학전 교육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취학전 교육의 문제점

(1) 보육의 문제점

1) 정책의 일관성 부재

찾은 법령 개정과 규제 중심으로의 법 개정을 들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경우 세부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통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아동지원 기초에서 시설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2) 보육정책의 성과가 저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방안의 성과가 저조하다. 또한 보육정책의 특성에 대한 무시, 현실성 없는 지원과 현장의 특성 및 요구를 무시한 정책시행으로 보육정책의 성과가 미흡하다(유승희, 2006:44-55).

(2)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

최근 들어 유치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수준도 과연 그만큼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유아교육이 마치 영재교육의 출발이라 생각하는 일부 부모들, 무분별한 외국 프로그램의 도입 현상,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자료의 보급 불균형, 유치원 교사의 대우개선의 문제 등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유아교육 발전의 저해요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유아교육학자들이 유아교육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지역별 교육간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의 사립의존도에 관한 문제로서 유치원의 개수는 공립이 많지만 원아수는 사립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의 난립 운영에 관한 것이다. 현 유아교육의 현실은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는 공인된 기관 외에 선교원, 학원(유치부), 기타 놀이학교, 영재교실, 스포츠 단 등 검증이 안 된 모호한 시설들이 난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넷째, 대상 유아의 연령과 기관의 중복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섯째, 국가의 지원 부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운영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임영주, 2008:19-22).

2. 성남시 취학전 교육의 문제점

(1) 어린이집

성남시의 보육시설 실태를 보면 국·공립 41개, 법인 1개, 민간 211개, 부모협동 4개, 가정 275개, 직장보육시설 14개로서 총 537개의 보육시설이 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설도 현대화되어 있고, 교사들도 직무만족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입학을 원하는 영유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사립 보육시설은 원아 모집의 어려움은 물론 재정부족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영유치원 및 유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유치원

성남시의 유치원실태를 살펴보면 공립이 39개, 사립이 74개이며, 학급수는 각각 83개, 333개이며, 원아수는 2,000명과 6,803명으로 나타나

사립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우선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처우가 공립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훌륭한 자질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한 교사도 자주 이직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V. 취학전 교육의 개선방안

먼저 우리나라 취학전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체제의 발전 방향이다.

(1) 유치원의 공교육화 정책이다. 이는 유치원을 학교체제의 첫 단계로 학제화하고 만 5세의 유아를 소득의 차이 없이 유치원에 취원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2) 유치원 적정규모의 정비이다. 유아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개별지도를 강화하며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유아수를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3)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의 강화이다. 유치원 교육의 효과를 지속화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의 원만한 학습전이를 위해 양교육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4) 교육과 보육기능의 조정이다.

둘째, 유아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다.

(1) 유아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의 효율화이다.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적합한 교육내용의 선정, 유아교육의

절적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의 개발을 전제로 한다.

(2) 유아교육과정 지원체제의 강화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를 전제로 한다.

(3) 교육시설의 개선 및 내실화이다. 기존의 설비를 보다 확충하고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구, 교재의 개발을 전제로 한다.

셋째, 유아교육 교원의 전문성 제고 개선 방안이다.

(1) 유아교육 교원의 자격기준 강화이다.

(2) 유아교육 교원의 처우 개선이다. 사립 유치원 교사의 보수, 근무 시간, 후생 복지 등의 처우를 공립 유치원 교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유아교육 교원의 현직교육 심화이다.

넷째, 유아교육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체제의 효율성 및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이다.

(1) 유아교육 행정기구 조직체계의 전문성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국가적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담당관실을 유아교육과로 개편하고 광역 기초 및 기초 단위 교육청의 행정조직에 유아교육과를 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2) 공교육화 정착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보이다.

(3) 유아교육 진흥법의 제정이다.

성남시의 취학전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 시설의 경우 사립어린이집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 영유아들이 좋은 시설에서 활발하게 뛰놀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VI. 결론

1. 요약 및 결론

성남지역의 취학전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취학전 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보육이론 및 유아교육이론을 살펴보고, 취학전 교육 실태에서는 먼저 선진국 실태로 미국, 일본, 영국의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실태에서는 어린이집 실태 및 유치원 실태를 살펴보고, 성남시 실태에서도 어린이집 실태와 유치원 실태를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 및 성남시의 취학전 교육 실태를 바탕으로 취학전 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성남시의 취학전교육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의 교사 봉급을 성남시가 적극 지원하여 줌으로써 자질이 높은 교사를 확보하여 안정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원아 모집이 잘 안되어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봉급 등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2. 제언

(1) 보육시설 실태 개선을 위한 제언

- 1) 정원 충족률을 높이려면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 2)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시설장의 학력제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3) 영아전담시설 증설과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4) 신규 보육정책을 아동과 부모의 입장이거나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준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풀들을 적극 계도할 필요가 있다(나정 외, 2006).

5) 사립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를 성남시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유치원 실태 개선을 위한 제언

1) 공공성이 담보된 법인유치원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여 형평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2) 교사 연수를 학력과 경력, 요구 등을 토대로 다양하게 계획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을 강구한다.

3) 국공립 교사들의 인사배치 기준에 1학급 병설유치원 근무경력과 3학급 이상의 단설유치원 근무경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나정 외, 2006).

4) 사립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성남사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경자(2008). “영유아 보육시설의 현황과 미래에 발전방향”. 취학전교육의 현황과 미래전망. 신구대학 유아교육과 세미나 발표자료.

공병호(2007). “일본의 보육시설 운영체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일본·미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제.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07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김연진 외(2007). 유아·아동발달. 동문사.

- 김옥경 외(2007). 21세기 교사를 위한 유아교육개론. 태영출판사.
- 나정 외(2006).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 조사자료 심층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신미자(2007). “미국의 영아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한국·일본·미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태.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07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 심성경 외(2003). 유아교육개론. 창지사.
- 심의보(2009).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영·유아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육과 유아교육의 복지정책적 대안. 한국 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유승희(2006). “국감과정에서 나타난 보육정책의 문제와 과제”. 수요자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의 문제와 과제. 2006년도 한국보육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육아정책포럼. 2008 가을 제10호.
- 이은화, 김진영(1999). 유치원 운영관리. '99원장 자격인가 추천대상 유아교육 전공과목 이수교재.
- 임영주(2008). “우리나라 유치원 현황과 미래전망”. 취학전교육의 현황과 미래 전망. 신구대학 유아교육과 세미나 발표자료.
- 임재택(1999).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양서원.
- 조성연 외(2006).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 최순자(2006).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다원적 접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http://blog.naver.com/qskysq22/40054903772>. 우리나라 유치원 현황과 문제점.

탄천(炭川)의 지명 유래와 역사 고찰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차례 ▷

I. 머리말

II. 본론

1. 탄천의 사전적 의미
2. 탄천 지명유래 설명의 오류
3. 동방삭은 누구인가?
4. 탄천(炭川)에 관한 문헌 기록들

III. 결론

I. 머리말

옛부터 물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문명 발상지의 기초적 요건을 형성한다. 세계적인 문명이 모두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이집트의 나일강, 인도의 갠지스 강, 중국의 황하 등 세계적 문명은 반드시 풍부한 수량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물을 섭취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가 물을 필수로 한다.

물[Water]은 화학적으로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이며, 천연으로는 도

처에 바닷물·강물·지하수·우물물·빗물·온천수·수증기·눈·얼음 등으로 존재한다. 지구의 지각이 형성된 이래 물은 고체·액체·기체의 세 상태로 지구표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즉,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을 바다·빙원(氷原)·호소(湖沼)·하천의 형태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물을 모두 합하면 약 13억 3000만km³에 달한다. 또 지구 내부의 흙이나 바위 속에 스며 있거나 지하수의 상태로 약 820만km³가 존재한다. 이러한 해수(海水)·육수(陸水) 등이 태양열을 흡수하여 약 1만 3000km³에 달하는 수증기가 되어 대기 속에 확산하고, 그 수증기는 응축되고 모여서 구름이나 안개가 되고, 다시 비·눈·우박 등이 되어 지표면에 내린 다음 모여서 하천이 되어 해양·호소로 흘러간다. 이것을 물의 순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사이에 저지(低地)나 호상(湖床)을 깎아내고, 강의 흐름을 바꾸고, 흙이나 바위를 멀리 운반하기도 한다.

또 큰 비나 강이 범람하여 산을 깎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단단한 바위를 침식한다. 밀려오는 격랑(激浪)은 끊임없이 해안선을 침식하여 섬이나 대륙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물은 또한 지구상의 기후를 좌우하며,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을 만드는 힘이 되고, 증기나 수력전기(水力電氣)가 되어 근대산업의 근원인 기계를 움직이게도 한다. 더욱이 물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생체(生體)의 주요한 성분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체는 약 70%, 어류는 약 80%, 그 밖에 물 속의 미생물은 약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생물의 생명현상도 여러 가지 물질이 물에 녹은 수용액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변화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물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리

1) 부산 세계대백과사전

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만 하는 요건이 되었다. 그래서 ‘배산임수(背山臨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이 말은 곧 인류가 주거지를 정할 때에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地勢)라는 뜻으로, 풍수지리설에서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이상적으로 여기는 배치를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집 뒤의 산은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맥이 있는 곳이다. 집 뒤의 산은 바람을 막아주고 집으로 들어온 생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집 앞의 물은 산으로부터 흘러온 땅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땅의 기운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탄천은 한강의 한 지류로서 우리 성남지역을 관통해 흐르면서 우리 성남의 오랜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성남 지역 사람들의 농경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근원을 제공하여 왔으며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문화와 휴식과 청정한 환경의 젖줄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탄천의 흐름 속에는 그 이름의 유래가 있고, 그 주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한 시대를 뒤흔든 사건이 스며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탄천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성남에서 탄천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탄천의 지명 유래와 탄천 주변에 형성되어 온 역사에 관하여 조사해 보고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구나 탄천은 현재 그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믿고 있으며 그 오류가 계속 재생산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제 인구 100만의 성남시가 36년의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가히 ‘탄천의 문명’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성장하였으니 탄천은 성남의 상징적인 젖줄로 흐르고 있으므로 올바른 역사를 찾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 본론

1. 탄천의 사전적 의미

탄천(炭川)의 한자 표기는 '숯 탄(炭)'자와 '내 천(川)'으로 표기된다. 한글로서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 본다면 곧 <숯내>라고 할 수 있다. 한자 옥편에서 풀이하는 <炭>은 ㉠숯, 목탄(木炭) ㉡숯불 ㉢석탄(石炭) ㉣재 ㉤탄소(炭素) ㉥먹물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풀이한다. <炭>자는 형성문자로서 산(山)의 언덕 동굴(민엄호밀; 厂; 굴바위, 언덕)部에서 불을 피워(火) 나무를 태운 것이라는 데서 '숯'을 뜻한다고 하였다.²⁾

이 글자의 뜻은 곧 탄천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밝혀주는 열쇠와도 같다. 뒤의 내 천(川)은 탄천이 냇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외에 왜 그런 이름이 불리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에서는 비껴서 있는 글자이다.

분당 지역의 모든 하천의 어머니가 되는 탄천은 숯내(수내, 순내), 검천, 힘천, 머내, 천호천(穿呼川), 작천(鵲川)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그 중에서 탄천의 지류인 분당천의 옛 이름이 수내(순내)였으며 여기서 비롯된 순내(숯내)=탄천의 연관성이다.

물론 숯내(탄동) 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둔촌 이집 선생의 아들인 이지직의 호가 탄천임을 내세워 그의 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그 까닭은 대개 옛 사람들의 호가 지명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³⁾ 즉 사람 이름에서 지명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지명을 따서 사람의 호를 만드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2) 강희대옥편

3) 분당의 땅이름 이야기,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2. 탄천 지명유래 설명의 오류

탄천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는 매체인 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장황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 요약

한강의 지류이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35.6km의 준용하천이다. 유역면적은 302km²이다. 1900년대 말부터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공사장 토사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위치: 경기 용인시·성남시와 서울 송파구·강남구

유역면적: 302km²

길이: 35.6km

□ 본문

유역면적 302km², 총연장 35.6km이다. 한강의 지류로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발원해 성남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며, 절반이 넘는 약 25km 구간이 성남시의 중심부에 걸쳐 있다.

탄천이라는 명칭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아주 먼 옛날에 옥황상제가 삼천갑자를 산 동방삭(東方朔)이, 이 하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잡기 위해 사자를 시켜 탄천에서 숯(炭)을 씻도록 하였다. 사자는 옥황상제가 시킨 대로 탄천에서 숯을 씻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동방삭이 이 광경을 보고 하도 이상하여 “왜 숯을 물에 씻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자가 대답하기를 “검은 솥을 회개 하려고 씻고 있다”고 하니, 동방삭이 크게 웃으며 “내가 지금까지 삼천갑자를 살았건만, 당신같이 솥을 씻이 하얗게 만들려는 우둔한 자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사자는 이 사람이 동방삭임을 알고 그를 사로잡아 옥황상제에게 데리고 갔는데, 이 때부터 이 하천을 탄천, 우리말로 솥내라고 불렀다고 한다.

성남시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하천이지만, 1990년대 말부터 용인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많은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공사장 등에서 토사 등이 유입되어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2002년 5월 환경부가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탄천 하류인 강남구 삼성동 지역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만도 1 l 당 33.8mg으로, 동식물의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설명에서 일반인들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에 접하게 된다. 즉, ‘삼천갑자 동방삭’ 이라고 하는 인물의 전설적 이야기이다. 동방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삼천갑자(三千甲子), 즉 180,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동안을 살다가 저승사자에게 잡혀가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동방삭은 18만년 동안이나 저승사자에게 잡혀 가지 않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솥을 씻는 것을 보고 비웃는 말을 했다가 잡혀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전설이 나름대로 흥미롭고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설은 성남의 탄천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동방삭 전설의 기록은 한국 측의 기록에 전해 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오류가 네이버 백과사전뿐 아니라 각종 문헌에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네이버 백과사전에 소개된 탄천

3. 동방삭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과연 동방삭은 누구인가?

동방삭(東方朔)은 중국 전한(前漢)의 시대에 서기전 154년부터 서기전 93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며, 자는 만친(曼倩)이고 출생지는 중국의 옌츠(歷次)이다. '익살의 재사'로 많은 일화가 전해지는 문인으로서, 부국강병책(富國強兵策)을 상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자조(自嘲)한 문장 『객난(客難)』과 『비유선생지론(非有先生之論)』을 비롯하여 약간의 시문을 남겼다.

염차(厭次)는 지금의 산둥성(山東省)의 평원현(平原縣) 부근이다. 막힘이 없는 유창한 변설과 재치로 한 무제(漢武帝)의 총애를 받아 측근이 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시중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무제의 사치를 간언하는 등 근엄한 일면도 있었다.

그런데 이미 한나라 때부터 황당무계한 문장을 동방삭의 이름으로 가탁(假託)하는 일이 많아 『신이경(神異經)』, 『십주기(十洲記)』 등의 저자라고 전해지지만, 모두 진(晉)나라 이후에 거짓으로 꾸며낸 작품으로 추측된다. 속설에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다 하여 '삼천갑자 동방삭'으로 일컬어졌으며 '오래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 뜻이 바뀌어 쓰인다.

동방삭은 중국 한나라 때에 사마천과 함께 엄연하게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것도 진시황에 버금가는 강력한 군주 한 무제의 조정에서 활약했던 정치가다. 하지만 그는 별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고, 처지를 한탄하고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인물로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떻게 동방삭은 역사에 그 이름을 오래 남길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왜 동방삭을 불러냈으며, 그를 인간을 넘어 신선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았을까?

진 제국의 멸망 후 혼란에 빠진 중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한(漢)나라였다. 진이 마련해 놓은 제국의 기틀을 이어받은 한나라는 국내외적인 체제정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중 인재등용이 가장 중요했다. 위정이나 관거병 같은 위대한 장수나 동중서나 공손홍 같은 대유학자가 한 무제 때 등용되었고, 그 시대에 동방삭이 살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동방삭이라는 인물이 불멸의 명저인 『사기』를 쓴 역사가 사마천과 동시대인이란 점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마천은 동방삭을 자신의 책에서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날 『사기』에 실린 「동방삭전」은 저소손이라는 사람이 훗날 보충해서 써 넣은 것이다.

동방삭은 자신이 ‘조정에서 숨어 사는 자’라고 하였다. 하필이면, 숨어산다고 할 것이면 산 속에 풀집을 짓고 숨어 사는 게 아니라 ‘금문(禁門) 밑에서 숨어 산다’고. 이것을 일러 ‘동방삭의 조은사상(朝隱思想)’이라 한다. 그의 처세에는 부드러움이 있었고, 말상의 전환이 있었다. 그의 인간적 장점,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 있는 어떤 것이다. 이 책을 꼼꼼히 읽다 보면 동방삭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임기응변에 능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세계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초월적인 것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하루하루 바빠 돌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미덕을 지닌 사람, 그가 동방삭이다.⁵⁾

동방삭은 『한서(漢書)』의 「동방삭전(東方朔傳)」에도 전해 온다. 무제(武帝: BC 156~BC 87)는 인재를 구한다는 소식을 천하에 공포하였는데, 제(齊)나라 사람인 동방삭은 대나무 한 짐에 글을 써서 무제에게 올렸다. 동방삭의 글은 내용이 많았을 뿐 아니라 필체도 당당하여 읽는 데 두 달이나 걸렸다. 동방삭은 해학과 변론에 뛰어났고, 속설에 서왕모(西

5) 이연승, 웃음의 정치가 동방삭, 도서출판 물레, 2008

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장수하였다 하여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불렸다. 그의 해학과 재치는 언제나 무제를 즐겁게 하여 총애를 받았으며, 때로는 무제의 사치와 부국강병책에 대해 간언하는 등 결코 단순한 익살꾼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일화도 있다. 삼복더위에 무제가 신하에게 고기를 하사하였는데, 이를 나누어 줄 관리가 오지 않으므로, 동방삭은 기다리지 못하고 칼로 고기를 베어 가지고 갔다. 이 사실을 들은 무제는 동방삭을 불러 물었다. 동방삭은 “황제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베어 간 것은 참으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한 점밖에 베어 가지 않았으며, 또한 그 고기는 아내에게 주었으니 인정 많은 처사가 아닌지요?”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동방삭은 장수한 사람을 뜻한다. 서왕모는 중국 고대의 신녀로, 호치(虎齒)·표미(豹尾)의 신인(神人)이라고도 하며, 불사약(不死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동방삭은 중국의 『한서』나 『사기』의 기록에 전해 오는 중국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서력 기원 이전의 인물이 한국 땅, 성남지역의 탄천에 와서 솥을 씻는 저승사자를 비웃다가 18만세에 죽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각지에 동방삭 설화가 퍼져 있으며, 옛날 상여에는 동방삭이 상여의 장식품에도 들어가기도 하여 사람의 죽음과 저승 세계와 관련한 민간 신앙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동방삭뿐만 아니라, 중국의 실존 인물들이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여럿 등장하고 있다. 유명한 강태공을 비롯하여 편작(扁鵲), 동방삭, 석송(石崇), 곽박(郭璞), 소강절(邵康節), 주원장(朱元璋) 등이다. 이 가운데 동방삭은 우리나라에서 “삼천갑자 동방삭”으로 불리면서 총 29편의 이야기가 전해 오는데, 안성, 강원도 춘성, 양양, 영월, 충북 단양, 영동, 충남 보령, 전북 남원, 완주, 군산, 정읍, 전남 함평, 화순, 경북 월성, 상주, 대구,

선산, 예천, 거창, 울산, 울주, 북제주군 등지에서 전해 오는데 경기도에 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지 않고 오로지 안성지역에만 전해 오는 이야기이다.⁶⁾

이처럼 경기도에서도 안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동방삭 설화가 채록된 건수가 매우 적은데 어떤 연유로 성남의 탄천과 이야기가 연결된 것일까? 그것은 곧 <탄천>이라는 하천의 이름에 숯(炭)자가 들어 있다는 점과 동방삭 설화에서 저승사자가 숯을 씻었다는 데에 착안해서 역지로 끝이다 붙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성남의 역사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사』에 동방삭 설화가 탄천의 지명 유래인양 서술된 이후로 다른 여타의 문헌에 파급되면서 그 이후로 아무도 의심해 보려는 이가 없이 수 많은 문헌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동방삭 이야기가 흥미있는 내용인 데다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결합하였으니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한 예를 들자면, 정선교의 장편 소설 『탄천』에서는 첫 장을 삼천갑자 동방삭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⁷⁾ 그 외에도 여러 책에서 인용되고 있어서 현황 파악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고, 이제는 동방삭 설화를 탄천에 연계한 문화체험 공간의 조성에 관한 연구 논문까지 나오게 되었다.⁸⁾

이 논문은 성남시 탄천의 동방삭 설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동방삭 설화를 토대로 성남 탄천에 지역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탄천의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의

6) 손지봉, 한국 설화의 중국인물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3

7) 정선교, 탄천, 도서출판 천우, 2008년 5월.

8) 이상훈, 지역 설화를 활용한 문화체험 공간의 조성 방안 연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화 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년 2월.

여지가 없으나 사실과 다른 소재를 통하여 올바른 역사가 왜곡되어 이해되고 전승될 우려가 확연하다는 점에서는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4. 탄천(炭川)에 관한 문헌 기록들

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탄천

탄천은 조선이 건국된 초기부터 불려진 이름인 듯하다. 실록의 기록상 탄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태종 임금 때부터이다. 조선 시대의 성남 일대와 한강 남쪽 및 현 경기도 하남시 일대는 군사적 훈련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다.⁹⁾

서울 부근(近畿)에서 강무(講武)하였다. 대간(臺諫)에서 호종(扈從)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저녁에 광주(廣州)의 탄천(炭川)에서 머물렀다.¹⁰⁾

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광주(廣州)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모두 활을 메고 팔에다 때(腮)를 받았다. 탄천(炭川)에 이르러 유숙하였다.”¹¹⁾

광주 판관(廣州判官) 노상신(盧尙信)을 장(杖) 80대에 치하고 파직시켰다. 노상신이 차사원(差使員)으로서 도로를 치수(治修)하였으니, 탄천교(炭川橋)가 꺾어져 무너지는 바람에 내구마(內廐馬) 3필이 물에 떨어져 1필이 죽 사하였다.¹²⁾

9) 윤종준, 조선시대의 개발제한 정책과 하남, 하남문화대학 특강 논고, 2005

10) 태종실록 7년 10월 12일

11) 태종 12년 (1412) 9월 16일

12) 태종 13년 (1413) 10월 10일

이상 세 건의 기록을 볼 때 태종 임금의 탄천 주변에서 강무를 하거나 사냥을 했고, 탄천에는 다리가 놓여 있었으며, 임금이 사용하는 내구마(內廐馬)를 길렀던 것을 알 수 있다. 탄천의 긴 물줄기 가운데 정확한 곳을 짚어내기란 쉽지 않겠으나 탄천목장이 있었던 곳은 옛날 조선시대 군용 농지였던 현재의 공군 비행장인 둔전(屯田)리 일대가 해당될 것이다. 또한 탄천 주변에서 유숙하게 된 것은 인근의 낙생행궁이 있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로 세종 역시 탄천지역을 다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양녕대군 이제(李祹)와 효령대군 이보(李補)와 함께 매사냥을 하고, 드디어 갈마재(加乙麻峴) 남쪽에서 풀이하고 인하여 길에서 낮잠하였다. 이제(李祹)가 이전으로 돌아가니 술과 사슴을 하사하였다. 저녁에 탄천교(炭川郊)에서 유숙하였다.¹³⁾

건원릉(健元陵)에 친히 제사지내고 이내 탄천 목장(炭川牧場)에서 유숙하니, 판광주목사(判廣州牧使) 최부(崔府)와 판관(判官) 유양식(柳陽植)이 와서 알현하였다.¹⁴⁾

세종 임금의 탄천 유숙은 두 차례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탄천에 목장이 있었던 것이 기록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세종 임금 또한 사냥을 하였는데 당시의 사냥은 강무와 더불어 군사 훈련의 한 방편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도 한강 남쪽 일대와 성남지역은 군사적 강무장으로 여러 차례 활용되었으며, 낙생행궁 또는 낙생역 앞 들에서 임금이 머무르며 훈련 상황을 점검하였다. 다시 탄천과 관련된 기록

13) 세종 9년 정미(1427, 선덕 2) 10월 4일(무오)

14) 세종 18년 병진(1436, 정통 1) 9월 15일(정미)

이 보이는 것은 성종 때이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가 와서 아뢰기를,

“강무(講武)할 때에, 교량(橋梁)이 있는 곳은 수리하고, 없는 곳은 설치하지 말라고 전교(傳敎)하시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안역(慶安驛)의 하천(下川)은 그 깊이가 말의 배(馬腹)를 빠지게 하니, 소민(小民)의 일시(一時)의 폐단(弊端)을 염려하여 다리를 만들지 않음이 옳겠습니까? 만약 어마(御馬)가 수중(水中)에서 미끄러지면 작은 일이 아니니, 그 지방은 수목(樹木)이 많아 다리를 만드는 데 취하여 쓰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또 탄천(炭川)과 살곶이장(箭串場)의 내천(內川)도 또한 깊으니, 청컨대 해당 고을로 하여금 다리를 만들게 하되, 그 지류(支流)는 간략한 가교(假橋)를 설치하여 도보(徒步)로 다니는 자로 하여금 건너가는 데 괴롭지 않게 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이제 문신(文臣) 이극균(李克均)·정난종(鄭蘭宗)·박건(朴健)·김유(金紐)·조익정(趙益貞)을 강무(講武)할 때의 위장(衛將)으로 삼아 사렵(射獵)한다 하는데, 이극균·정난종은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람은 무사(武事)를 익히지 않았으니, 어찌 말을 달릴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박건(朴健) 등 3인을 사자위 사대(獅子衛射隊) 등의 장수로 이차(移差)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안역(慶安驛) 등의 3천(川)은 교량을 설치함이 가하나, 그 밖에 급하지 아니한 곳은 모두 가교(假橋)를 만들어 간략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옳겠다. 사냥할 때에는 다른 장수로 종행(縱行)하는 자도 또한 많으니, 박건의 부리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내 장차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였다.¹⁵⁾

15) 성종 6년 을미(1475, 성화 11) 9월 2일(무신)

조선시대의 강무(講武)는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였다. 일정한 곳을 지정하고 전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일정을 지시하여 기일내에 집결하도록 하고 군사 훈련을 시행하였던 제도이다. 이 강무 행사는 장수와 군사들을 훈련 상황을 임금이 친히 열무(閱武)하고 사냥을 통하여 실전 훈련과 같이 조련을 했다. 사자위 사대(獅子衛射隊)는 강무할 때마다 용감한 군사 1백 인을 뽑아 어가(御駕) 앞에 막아서 호위하여 흉악한 짐승의 충돌을 방지하게 하는 임무를 맡았기에 명칭을 사자위(獅子衛)라 하였다.

병조판서 이극배는 곧 광주 이씨로서 둔촌 이집의 증손자이다. 경기도 광주를 본관으로 하면서 조선시대 가장 번성한 가문을 이루었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문충이다.¹⁶⁾ 이극배의 건의를 통하여 경안천과 탄천에 교량을 보수하고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탄천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가 청나라의 침입이라 할 수 있다. 청나라가 일으킨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조선의 강토는 단기간에 유린되고 말았다.

청나라 한(汗)이 모든 군사를 모아 탄천(炭川)에 진을 쳤는데 30만 명이라고 하였다. 황산(黃善)을 펴고 성에 올라 동쪽으로 월봉(月峯)을 바라보고 성안을 내려다 보았다.¹⁷⁾

청나라 군사는 탄천에 진을 치고 남한산성을 포위하였으니, 군사가 머무르기에 용이하면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 더구나 청나라 군사는 보병보다는 기마병을 중심으로 전투력이 편성되어 많은 군사에 필요한 물은 탄천이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

16) 성현, 「용재총화」에 광주이씨를 조선전기 최고의 가문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있다.

17) 인조 15년 정축(1637, 순정 10) 1월 1일(신축)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충청감사 정세규가 근왕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을 공격하였는데 이곳이 탄천의 상류라 할 수 있는 협천(險川)이었다. 정세규가 이끄는 근왕병은 중과부적으로 크게 패하였고 피는 냇물을 붉게 물들였다. 정세규(鄭世規, 1583~1661)는 본관 동래(東萊), 자 군칙(君則), 호 동리(東里), 시호 경헌(景憲)이며, 좌의정 정언신(鄭彦信)의 손자이며 장유(鄭樛)의 아들이다.

1613년(광해군 5) 사마시를 거쳐 음보(蔭補)로 의금부도사에 등용되고 1628년(인조 6) 화순현감(和順縣監)으로 선정을 베풀어 옷감을 하사 받았으며, 안산군수(安山郡守)를 거쳐 1636년 충청도관찰사에 특진하였다. 1636년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사를 이끌고 포위당한 남한산성을 향해 진격하다가 용인(龍仁)싸움에서 패하였으나 충성심을 인정받아 면죄받았고 이후 호조참의를 지내고 1641년 전라도관찰사, 이어 개성부유수를 거쳐 1644년 공조판서에 승진, 1654년(효종 3) 이조판서로 강화도를 시찰한 뒤 강화유수가 되어 승천(昇天)·연미(燕尾)·갑곶(甲串)·광성(廣城) 등 여러 진(津)에 진(鎭)을 설치, 방비를 튼튼히 하였으며 형조판서를 지낸 후 은퇴하였다.

그리고 인조 16년 무인(1638, 송정 11) 1월 15일(기묘) 기록에 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이 상차한 내용을 보면, 동궁(東宮)이 탄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 개인 문집에 언급된 탄천

실록과 같은 정사(正史)의 기록 외에도 개인의 문집을 통해서도 탄천에 대한 기록을 엿볼 수 있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45년간 여섯 왕을 섬겼고, 문장과 글씨

에 능하였는데, 삼전도(三田渡)의 남쪽 탄천(炭川) 가에서 대열(大閱)을 하는 데 호종(扈從)하여 시를 지었다.¹⁸⁾

성군께서 간우로써 태평성대를 이루고 / 聖君千羽致升平
때로 다시 남쪽 교외시 대군을 김열할새 / 時復南郊閱大兵
들판은 비휴로 덮여라 군마가 엄숙하고 / 野擁貔貅嚴士馬
구름이 옹호에 걷혀라 깃발은 펄럭이네 / 雲開龍虎動旗旌

행궁의 땅은 우뚝 솟아 산하가 웅장한데 / 行宮地湧山河壯
상께서 친히 임어하시니 인원처럼 밝아라 / 御座天臨日月明
호종하는 문신들은 참 많기도 하거니 / 扈從詞臣多似織
그 누가 부(賦)를 바쳐서 서경에 견줄고 / 何人獻賦擬西京

이 시를 통하여 남쪽 들판에서 군대를 사열하는 장면이 눈에 생생할 정도로 묘사되어 있고, 행궁의 땅이 우뚝 솟아 웅장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남한산성 또한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임금이 친히 와서 사열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중봉 조현(重峰 趙憲, 1544~1592)은 지인인 최희(崔禧, 1535~?)¹⁹⁾가 초가집 몇 칸을 지었을 때 찾아가서 주변의 10가지 경치를 시로 읊었는데, 그 중 <탄천추광(炭川秋光)>²⁰⁾이 마지막 수에 들어 있다.

푸른 하늘 소슬하니 밤바람이 서늘하고 / 晴川蕭瑟夜風涼

18) 서기정, 사가시집 제30권, 시류(詩類)

19)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옹(仲膺).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신조 26)에 왜적들이 선봉과 정릉을 훼손하려고 하자 즉시 달리가 통곡하며 끝까지 농을 사수하였다. 사후에 조정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그 공로로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20) 『중봉선생문집』 권2, 시

벼익는 서쪽 밭에 기러기는 서릿발처럼 부르짖네 / 稻熟西疇雁叫霜
 너른 들판 황운은 백성들의 즐거운 곳 / 大野黃雲民樂處
 역새 꽃 단풍잎은 이미 가을이 물들었네 / 荻花楓葉已秋光

깊어 가는 가을의 탄천을 10畝 가운데 하나로 꼽았는데, 벼가 익어 황금들판을 이룬 평화로운 정경과 역새꽃과 단풍이 물드는 정경을 노래한 것이다. 이 시는 내용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의 탄천 지역이 풍요로웠던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중봉 조헌 이후로택당 이식(澤堂 李植, 1584~1647)은 금천에 갈 일이 있어서 탄천을 지나면서 시를 짓기도 하였고,²¹⁾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의 문집인 『겸재집(謙齋集)』에는 “석양에 스님이 탄천교를 건넌다.(夕陽僧度炭川橋)”²²⁾고 노래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탄천은 실학자인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 그의 문집 『연경재전집 외집(研經齋全集 外集)』 〈동수경(東水經)〉에서 한반도 내의 하천에 대하여 고찰한 글 속에서 “용인 석성산에서 발원한 탄천은 삼전도로 들어간다”²³⁾고 하여 탄천의 지리적 위치를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솟을 굽는 데서 탄천의 지명유래가 되었을 것이라는 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한시 한편이 김종직(1431~1492)의 『점필재집』에 전해 온다.²⁴⁾ 우선 시의 제목에서 보면 “마천에서 바라본 바를 기록한다.”고 하여 현 송파구 마천동 부근에서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택당선생집』 권2, 시

22) 『겸재집』 권12, 시

23) 『研經齋全集外集』 권44, 지리류 동수경(東水經), “龍仁石城山之炭川入于三田渡”

24)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11권

마천에서 본 바를 기록하다[馬川記所見]

말 방울 울리며 마천을 들어가노니 / 鳴騶入馬川
 빈종들 또한 신속하기도 해라 / 賓從亦愴然
 그늘진 구렁엔 얼음이 얼려 하고 / 陰壑凍將合
 양지쪽 벼랑엔 단풍이 아직 곱구나 / 陽崖楓尚鮮
 중의 방은 겨우 십흔쭈 되고 / 禪房纔十笏²⁵⁾
 마을 호칭은 천 년이나 내려온 듯 / 鄉號想千年
 난초가 깔리있어 길은 미끄럽고 / 遲滑幽蘭被
 괴석이 달려있어 봉우리는 위태롭네 / 峯危怪石懸
 눈은 신모의 사당을 덮었고 / 雪藏神母廟
 천둥 소리는 침룡연에서 울리누나 / 雷吼蜃龍淵
 굽은 언덕엔 고기 어리가 남아있고 / 曲岸遺柴樛
 숲 우거진 사당엔 지전이 걸려있네 / 叢祠罨紙錢
 나무를 깎아서 개곡엔 자칫밥이 있고 / 斲材谿有秣
 숯을 굽느라 골짜기엔 연기가 나네 / 燒炭谷生煙
 일하는 사람은 메밀을 베고 / 僉父刈蕎麥
 작은 색시는 목화를 거두누나 / 小姑收木綿
 농사를 묻고 이어 위로하고서 / 問農仍慰藉
 말 재촉하여 물 따라 배회하노라 / 叱馭且洄沿
 그럭저럭 임기가 가까워졌으니 / 荏苒瓜期近
 이 놀이를 뒤에 응당 그리워하리 / 茲遊應眷憐

즉, 시의 내용 속에 “숯을 굽느라 골짜기에서는 연기가 난다”고 하였

25) 십흔: 휴(笏) 10개를 용납한 정도의 넓이를 말한 것으로, 아주 작은 면적을 뜻한다.

다. 남한산성을 둘러싼 주변이 숲을 굽는 곳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조경남, 『속잡록 4(續雜錄四)』의 기록을 통해서도 병자호란이 일어난 직후인 인조 15년(1637년) 1월 1일 청나라 군사가 탄천에 진을 치고 20만 대군이라고 과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조경에서 위산보(魏山寶)를 보내어 새해의 의식을 닭고, 또 김신국(金愼國)·이경직(李景稷)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니, 청장(淸將)이 말하기를, “황제가 이미 도착하여 성을 순시하는 일로 나갔으니 마땅히 진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여쭙어 결정할 것이니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라.” 하였다. 적이 여러 군사와 포로당한 사람들을 수합하여 탄천(炭川)에다 진을 치고 20만 대군이라 부르며 황제가 여기에 있다고 외쳐 말하고 양산(涼傘)과 기치(旗幟)를 세우고 북을 울리고 호각을 불며 출발하여 동문 밖에서 두루 돌고 돌아갔는데 그 흉한 피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할 수 없었다.²⁶⁾

다. 각종 지리지에 기록된 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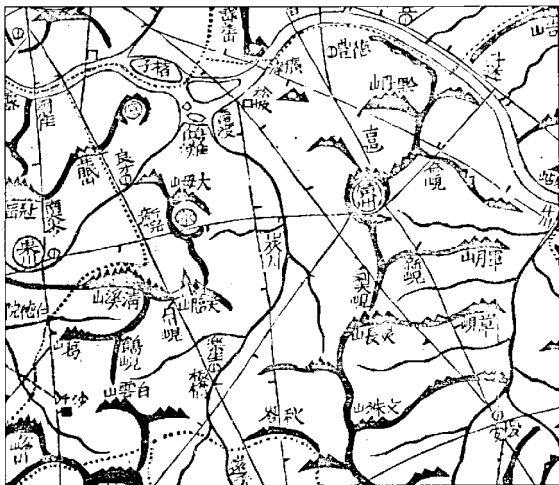
조선 시대 후기에는 다양한 지리지의 편찬이 물결을 이루었다. 그 중에 몇을 살펴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경기(京畿) 광주목(廣州牧) 지도 설명에 “탄천(炭川)은 주(州)의 남쪽 30리에 있는데 삼전도(三田渡)로 들어간다.” 하였고, 홍경모는 『중정 남한지(重訂南漢誌)』에서

탄천은 낙생면에 있는데 근원이 용인의 석성산에서 나와 서쪽으로 용인현 서쪽을 싸고 흘러 장장포(莊莊浦)가 되고, 광교산을 지나 꺾이이 북류하여

26) 조경남, 『속잡록 4(續雜錄四)』

낙생면을 거쳐 협천(險川)이 되며, 평야를 북으로 흘러 대왕, 돌마를 거쳐 삼진도로 들어간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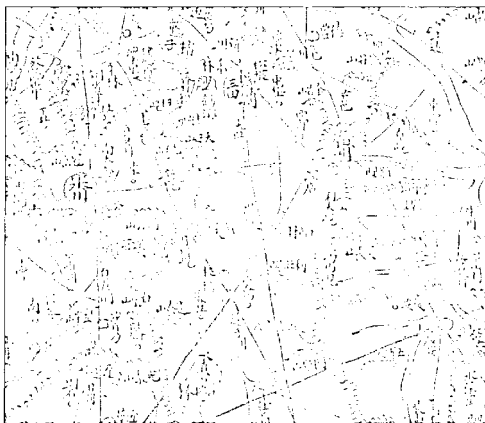
하였고, 『광주부 읍지(廣州府 邑誌)』나 『조선 팔도 지도(朝鮮 八道 地圖)』, 『팔도 군현 지도(八道 郡縣 地圖)』, 『동여도(東輿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조선지도(朝鮮地圖)』 등의 고지도에 뚜렷하게 탄천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음 사진과 같다.²⁸⁾



▲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탄천

27) 홍경모, 중정남한지, 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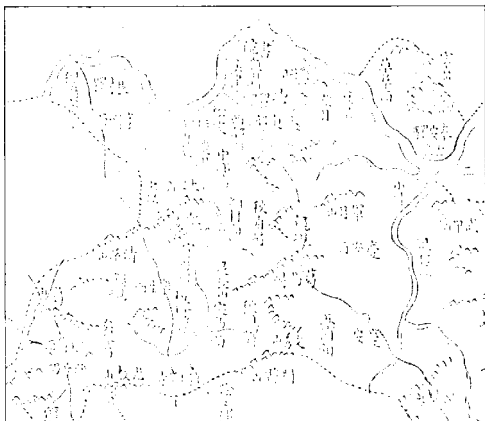
28) 지도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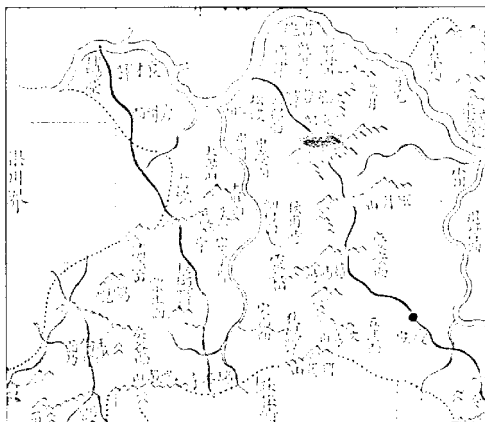
▲ 동여도에 표기된 탄진



▲ 여지도에 표기된 탄진



▲ 조선지도에 표기된 탄천



▲ 광도군현지도에 표기된 탄천

라. 탄천과 관련된 지명

탄천과 관련한 지명으로 '탄동(炭洞)'을 들 수 있다. 한자 표기상으로 탄동이라 하지만 우리 한글 말로는 '숯골'이라고 부른다. 현재 성남시에는 수정구 일대에 '숯골'이라는 지명이 있고, 일제시대에는 '炭里'로 불려 지기도 하였다.

'탄동'이라는 지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 한 수가 전한다.

炭洞新居〈洞在廣州南門外十里地〉²⁹⁾

탄동에 새로 거하며〈탄동은 광주 남문 밖 10리의 땅이다〉

고기는 강해에 놓고 새는 숲에 사나니 / 魚游江海鳥投林
견고 빚고 건너기 얇고 깊은에 맞아야 하리 / 揭厲須當適淺深³⁰⁾
돌 털고 이끼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 拂石坐苔伸脚膝
샘 찾아 물을 움켜 가슴 속을 씻어내네 / 尋泉掬水洗胸襟
흥이 나면 필탁³¹⁾ 치럼 술도 도둑질해 먹고 / 興來畢卓方偷酒
늙어가니 소문은 거문고를 타지 않네 / 老去昭文不鼓琴
취하여 타호 침이³²⁾ 진실로 우스워라 / 醉擊唾壺真可笑
명상으로 앉아 있는 그지없는 맛이여 / 凝然嘿坐有餘音

29) 簪亭先生文集 卷之一

30) 견고 빚고 건너기: 《시경》에, “얇으면 옷 벗고[揭] 건너고, 깊으면 옷 벗고[揭] 건너네.” 하였다.

31) 필탁(畢卓): 진(晉) 이부낭(吏部郎) 필탁(畢卓)이 술을 몹시 즐겼는데, 앞집의 빛이 익은 술을 받중에 독 밑에 들어가 훔치 마시다가 술 받은 사람에게 붙들려 결박되었다가 밝은 아침에 보니, 필탁(畢卓)이라, 그 결박을 풀고 주인을 칭해 독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갔다.

32) 취하여 타호(唾壺) 침(唾) : 진(晉) 왕논(王敦)이 매양 취중에 장(壯)한 마음이 쉬지 않으니, 라는 구절은, 위 무제(魏武帝)의 악부(樂府)에 있는 지사(志士)가 늙은 나이에 노래를 읊으면서, 타호(唾壺)를 치 장단을 맞추는데 타호의 가장자리가 다 이지러졌다.

이 시는 이달충(李達衷)이 탄동에 새로 살게 되면서 지은 것인데 제목에 주를 달아서 탄동의 위치가 광주 남문(남한산성 남문) 밖 10리의 위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달충은 그의 문집에 수록된 행장에,

惟我外先祖 高麗文靖公 霽亭先生 諱達衷 初名 達中 玄陵以御筆 改中爲衷 字 仲權 姓 李氏 籍慶州, ……公之墓 在於廣州 齊陵北 炭洞³³⁾.

나의 외선조는 고려 문정공 제정선생인데 휘는 달충이다. 초명은 달중이었는데 현릉(玄陵; 공민왕)이 어필로 중을 충으로 고치고, 자를 중권이라 했다. 성은 이씨, 본관은 경주… 공의 묘는 광주에 있으니 제릉의 북쪽 탄동이다.

이라고 하여 이달충의 묘소 위치가 “공의 묘는 광주 제릉(齊陵)의 북쪽 탄동(炭洞)에 있다.”고 하였다.³⁴⁾ 제릉은 곧 제안대군의 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정구의 숯골 일대는 적어도 고려시대 말기부터 숯골 또는 탄동으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궁궐을 비롯한 관청에서 숯을 대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기 위한 숯 가마가 있었던 데에서 연유한 지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조선시대 관청에는 필요한 물자가 다양하게 납품되었는데 그 중에 그릇의 공급을 맡았던 곳이 광주의 분원(分院)이었던 것처럼, 숯도 여러 관청에서

33) 霽亭先生文集 卷之四 부록, 행장

34) 이달충(李達衷, ?~1385)은 본관 경주, 자 지중(止中), 호 제정(霽亭), 시호 문정(文靖),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 제주(祭酒)를 거쳐 공민왕 때 전리판서(典理判書)·감찰대부(監察大夫)를 역임하였다. 1359년(공민왕 8) 호부상서로 동북면병마사가 되었다가 판관희 때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면, 1366년(공민왕 15) 밀직제학으로 기용되었다. 신돈의 진형시절에 그에게 주색을 삼가라고 공석에서 직언하여 파면되었다가, 1371년 신돈이 주살된 후 다시 계림부윤이 되고 1385년(우왕 11) 계림부원군에 봉해졌다. 문집에 《제정집(霽亭集)》이 있다.

필요로 하였다.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는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였는데, 선공감(繕工監)은 재목(材木)·영선(營繕)·시탄(柴炭)을 지용(支應)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³⁵⁾ 그런데, 선공감(繕工監)과 사수감(司水監)에 바치는 시탄(柴炭)과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곡초(穀草)는 백성이 이를 심히 괴롭게 여기니, 마땅히 많은 관사(官司)로 하여금 다시 소비하는 것을 정하여 전일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할 것이다³⁶⁾ 하였다.

그만큼 시탄(柴炭)을 공급해야 하는 백성들이 이를 심히 괴롭게 여길 정도로 많은 양의 땀값과 숯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 등의 기록을 보면 왕릉의 조성 등에 필요한 숯도 대량으로 필요하였으며, 산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또한 군사용 숯이 대량으로 비축되었다. 특히 성남 지역은 남한산성의 정문인 지화문(至和門) 앞에 위치한 지역이므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고초를 겪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한산성에는 숯을 여러 곳에 묻어서 전시에 대비하였는데 북장대(北將臺) 앞에서부터 성 안의 각 사찰에 이르기까지 전후하여 숯을 묻은 데가 94곳이고, 숯은 24,192섬이다.³⁷⁾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숯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숯을 구워서 공급해야 하는 일조차 매우 벅찰 수밖에 없었으니 그만큼 공급해야 할 물량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35)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7월 28일(정미) 문무 백관의 관제

36) 태조 7년 무인(1398, 홍무 31) 9월 12일(갑신)

37) 홍경모, 중정남한지, 군수(軍需)

III. 결론

탄천의 지명 유래에 대하여 삼천갑자 동방삭 설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동방삭은 중국의 실존인물로서 강태공을 비롯한 다른 여러 중국의 실존 인물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그것은 죽음과 관련한 민간 신앙의 차원일 뿐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인터넷 매체인 네이버 백과사전뿐 아니라 표준이 되어야 할 『성남시사(城南市史)』에서조차 동방삭 기원을 주장함으로써 오류의 확대 재생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즉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 사실이다.

동방삭은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인물이며, 동방삭 설화 또한 『한서』, 『사기』 등의 중국역사서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나라에는 1962년 이전에 29곳에서 설화가 채록되기는 했으나 경기도는 안성 1곳뿐이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숲을 냇물에 씻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성남의 탄천 유래가 동방삭 설화와 관련 있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탄천의 지명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보이는데 조선 초기부터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면서 궁궐에 숲을 보급하는 곳이 서울 주변에 있었고, 또한 남한산성의 행궁이나 강무(講武)를 할 때, 임금의 머물던 낙생행궁(樂生行宮) 등 성남지역도 그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명이 예전 광주군 중부면 탄리(炭里) = ‘숯골’이라고 할 수 있다. 숲을 많이 구웠기 때문에 ‘숯골’이라 불렀을 것이고, 비가 많이 오면 냇물이 검게 되어서 숯내가 되고 한자로 쓰면 탄천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강무를 할 때 전국에서 집결한 수만 명의 군사들이 취사를 하고 나서 사용된 숯을 냇물에 버려 물을

정화했다는 설도 있으며, 이들이 취사한 후의 잿물이 흘러 물이 검게 되어 탄천이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성남의 지명 가운데 창곡동이나 매착동 등이 남한산성과 관련이 있고, 고려말부터 탄동(炭洞)이라는 지명이 전해 올 뿐 아니라, 조선 전기에 김충직이 마천에서 바라본 풍경 중에 '숯 굽는 연기'가 솟는 장면이 있고, 더구나 병자호란 이후에는 남한산성의 곳곳에 소금과 숯을 묻어 두고 전시에 대비하였으므로, 성남의 탄리(숯골)에서 대량의 숯을 구워서 보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탄천은 숯내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름에 스며 있는 올바른 역사를 찾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닌 당연한 임무라 하겠다. 왜곡된 이름으로 본래의 역사가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성남시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권 일

성남시립합창단 공연설계

◇ 차례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의
2. 지역 축제의 성격
3. 지역사회와 축제

III. 성남지역의 주요 축제 현황

1. 성남지역의 문화행사 만족도
2. 성남지역의 주요 축제

IV. 성남시 지역축제에 관한 발전 방안

1. 성공에 대한 관점
2. 분명한 지역 축제의 주제
3. 축제 추진조직의 안정성
4. 축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5. 축제 전문성
6. 주민 참여
7. 축제 평가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의 시대’란, ‘지역간 경쟁시대’와 다름없다. 물론 경쟁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앞으로의 경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기업과 같이, 지금부터는 가치나 매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만이 발전하고, 시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으면 뒤처진다. 흔히 언급되듯이, 지역은 ‘관리’의 대상에서 경영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이 존립기반의 강화와 경쟁력향상을 목표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지방화시대는 지역의 자랑거리와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야 하며, 지역의 홍보와 마케팅 차원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발전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축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지방 자치시대의 지역문화 축제는 대단히 소중한 문화 자산이요, 지역민의 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성과 현장성을 중요시 하며, 그 지역 고유의 전통적인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축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역축제가 행사위주의 축제로 변화되면서 불거리 중심의 유흥을 중심으로 하는 이벤트(event) 성격이 폭넓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히라노 아키노미, 「이벤트의 마력」, 서울미디어 출판사, 2003, pp.121~122

이러한 현상은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자율적 정책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축제의 양적인 성장과 맞물려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축제의 본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즉 축제의 형식화, 경제의 활성화, 지역 그리고 지역민의 통합적 효과 등을 축제의 기본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실제 축제의 모습은 지역문화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을 축제의 수동적 객체 또는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지역축제는 두드러지게 발전하였고, 많은 지역 축제들이 앞 다투어 새롭게 생겨났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지역축제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어지지 않았고, 앞에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대체로 축제다운 축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축제를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 한편으론 축제를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도구의 수단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역축제의 정체성과 의미, 그리고 고유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적극적으로 주관한다면 침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문화의 발굴과 보전, 독창성 있는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응집력과 추진력을 유도해낼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보다 짜임새 있는 전략을 마련할 가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등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축제가 지닌 가치와 상관성, 그리고 성남지역의 축제분석과 문제점, 발전방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축제는 이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하에 기획하고 운영되어야 하며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민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살려 축제의 생산성과 경영 마인드 확보는 물론 지역 문화의 이미지 개선에도 과감히 시도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역축제는 행정기관과 지역민이 각자의 역할을 완수하지 않고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누군가가 그런 시나리오를 묵묵히 수행한다고 하는 발상은 이미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상을 구상하고 독자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할 시대가 된 지금, 지역축제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성남시의 경우 수많은 축제자원이 잠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히 개발하지 못함으로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의 축제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개발함으로 성남지역의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성남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의

1) 축제의 개념

축제는 행방의 놀이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일상성에서 벗어나 철저히 놀아질 때 그 축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새로운 활력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다. 축제는 무미건조한 흐름을 차단하여 그 삶을 다시 한 번

윤기 있는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즉 축제를 통해서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²⁾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경사 따위를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뜻한다. 축제의 어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의 페스티발(Festival)은 라틴어의 Festum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뜻은 대중적인 기쁨(Joy)/ 환락(Memiment)/ 떠들기(Revely)를 의미한다. 또 다른 어원으로 Feria가 있는데, 이는 신들을 위한 일로부터의 단절(Abstinence)를 뜻한다.

어원상으로 축제는 일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떠돌고 즐긴다는 놀이적인 성격이 강하다. 축제에 해당되는 Festival과 유사한 Feast는 우리말의 잔치에 가까운 뜻이고 또 Fasting은 원래 단식의 뜻이나, 개념상으로는 페스티발이 축제에 가까운 개념이다.³⁾

2. 지역 축제의 성격

지역 축제는 기본적으로 중심주제의 명확성과 그 주제가 지역의 문화적 배경,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⁴⁾

1) 고의적 과잉성

축제 때는 일상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나, 지나친 행동을 가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도덕성이나 금기시해 온 행동들도 구속력이 완화되어 참가자들이 각종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2) 이상원(1981), 「굿과 놀이」, 서울: 문음사, p.135.

3) 일본 선전회(1994), 기적을 만드는 이벤트 전략, 서울: 김영사, p.55

4) 박정선, 「이벤트론」, 서울: 도서출판 달로넷, 1998, pp.127~133.

2) 긍정성

축제는 언제나 생의 긍정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축하하기도 한다.

3) 대국성

축제는 일상생활과 상이한 것이지만, 축제적 과잉성을 함축하면서도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화시켜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농악놀이, 배짜기 대회 등은 과잉성이 있으면서도 우리 실제 생활 중심과 대칭적으로 비교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축제가 갖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억압된 인간의 감정과 행동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축제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고귀함에 대한 자각을 갖는 등 인간본연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사회비판적 기능으로 사회적 제약이나 차별의 한계성을 보여준다. 끝으로, 문화 교류의 가교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즉, 지역이나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하여 인간들의 새로운 의식,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혁신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⁹⁾

따라서 축제는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현대의 축제, 특히 도시화된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분명 고정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지역축제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상존화된다는 부정적 지적 역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의 지역 공동체의 경우, 제의로서의 특징을 갖출 사회적 여건이 사라졌기에 현대 사회에 맞는 다양한 축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문거리가 풍성하고 내용과 질이 알차다

5) 조현호·유영준, “지역사회축제의 반쪽도에 관한 연구—청도 소재의 축제를 대상으로”, 『관광학 논총』(1999), p.55.

면, 도시의 축제는 축제 주체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개면 정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정의로서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전통축제 뿐 아니라 문화제, 예술제, 전국민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이 포괄된다.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 지역축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⁶⁾

3. 지역 사회와 축제

1) 지역사회와 축제의 의미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란 지리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공동의 유대감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를 특성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적 근거를 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분담수행하는 하나의 사회체제로 발전되어 온 셈이다.⁷⁾ 여기에서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지역에 따라 나름대로의 독특한 적응방식을 개발해 냈으며, 그 상이한 차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물론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고립되어 존속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복합체적인 문화유형을 이루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역

6) 장주근(1982), 향토축제의 현대적의의, 「향토축제의 새로운 검증」, 경희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pp. 82~83.

7) 장주근(1982), 향토축제의 현대적의의, 「향토축제의 새로운 검증」, 경희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pp. 91~92.

적 여건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되어 나타난 것이 ‘지역문화’라고 할 수 있다.⁸⁾

그러나 문화를 “인간의 사회적인 유산으로서 언어, 지식, 감정, 기술, 기타 행동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전체적인 생활양식”⁹⁾이라고 본다면, 결국 문화는 절대가치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학습되고 축적되어 계속적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특히 오늘날에 와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유통의 가속화로 인해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지역사회의 동질적인 가치와 공유된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지역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구나 중앙 집중화를 통한 문화의 획일화 현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특성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경향도 있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지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아 공유된 형태로 몸에 배어 있는 공통의 가치를 지닌 고유한 생활양식으로서 전통지향 적이며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주민들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정신적 단합을 유도해서 향토애로 승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결국 한 지역이 만들어 온 문화는 그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과 도덕적 위상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¹¹⁾

이 같은 독창적인 특성과 고유한 기능을 갖춘 지역문화의 대표적인 한 형태가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축제’란 축하의 제전이나

8) 임재해(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p.73.

9) 정강환(2004), 『21세기 지역개발형축제로의 선택』, 월간이벤트, (주)인플러스넷.

10) 정강환(2006), 『캐나다 겨울축제 벤치마킹』, 월간이벤트, p.44.

11) 강형기(1999), “지역축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지방행정』, 지방행정공제회, pp.36~37.

축하와 제사로 정의되고 있으며, 서구식으로는 carnival, celebration, cult, festival 등으로 표현되는 용어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carnival은 라틴어의 caro(고기)와 levar(제거)의 합성어로 기독교 국가에서 육식을 멀리하는 사순절 동안 미리 고기를 먹어둔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인류에게 있어서 축제행위는 매우 공통적인 문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농업과 같은 일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의례로부터 발생되어 종교성을 지니는 특정한 사건이나 시간적 상황을 순환이나 반복적인 행위로 상징화 시킨 것이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기제사, 당제, 부락제, 동제, 계절제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뿐만 아니라 생활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관혼상제적 행위와 통과의례적 행위가 모두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¹²⁾

원래 축제는 놀이와 제의(祭儀)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서 축제가 놀이로서의 특징만을 강조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소비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제의로서의 특징까지 아우른 축제는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투자일 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를 위한 문화적 기제가 된다.¹³⁾

특히 콕스는 축제를 ‘인간이 과거를 포함한 삶의 확장된 영역을 그 자신의 체형 속으로 적용시키는 인간적인 놀이 형식으로서, 일상을 깨뜨리고 인간에게 과거를 열어 보임으로써 그의 경험을 확충하고 편협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⁴⁾ 또한 마르틴은 축제적 시간이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며, 그것을 위해 공개된 공간과 자유로운 시간 그리고 사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자유로

12) “미래학자에게 길을 묻다”, 중앙일보, 2007. 3. 28.

13) 강형기(1999), “지역축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지방행정』, 지방행정공제회, pp.43~47.

14) 장순희(2001), “지역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집, p.28.

운 시간과 주일휴가 또는 각종 휴일들을 축제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¹⁵⁾ 장 뒤비노가 말한 축제란, 겉으로는 열려 있는 듯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폐쇄되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직시하게 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삶을 위한 하나의 출구로서 작용하며 인간에게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게 해 주는 공간이다.¹⁶⁾ 따라서 축제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활동으로서 대부분 신격화된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함께 주요 대상으로 삼고, 그 목적은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축제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유교적 사회질서가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계급간의 갈등에 따라 점차 민간계층에서 신봉하는 비밀스러운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시대의 변화는 과거 축제행위가 갖던 종교성을 서서히 배제시키고 점차로 예술적 형태나 장식적 모습으로 매우 다양하게 바꾸어 갔다. 특히 우리가 갖고 있던 제천의례(祭天儀禮)라는 축제의 신성한 종교성이 상실되면서 오로지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축제는 산업화를 통해서 더욱 세속화 되었다. 그러나 축제는 분명히 오늘날에도 축(祝)과 제(祭)가 포괄된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지역축제의 현대적 성격

이제까지 살펴 본 축제의 의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축제는 다분히 중앙중심의 유통구조 속에서 대중매체의 영향에 따른 소비성향의 대중문화에 밀려서 그저 가시적인 문화시설 건립이나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농경 문화적 민속놀이 정도로

15) 김순희(2001),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집, p.36.

16) 일재해(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p.81.

명맥만을 유지해 왔다. 그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배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80년대 초의 '국풍'과 같은 관제문화와의 갈등현상은 극복되었으며, 더구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역문제를 보다 올바르게 인식함에 따라 문화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독자적인 지역문화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하고 도시화한 현대인에게 축제의 의미는 옛날의 전통 축제와는 구별되고 있다. 이미 공동체의 고유한 전통성과 함께 제의적 성격이 없어진 오늘날의 도시축제는 그 나름대로의 풍성한 볼거리와 알찬 내용을 가지고 현대적인 삶의 장을 펼쳐내는 모습을 개발해서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축제의 개념은 '문화 복지'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둔다. 지역공동체와 축제의 현대적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질 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회 구성원간의 동질성 공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우리'라는 통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해체적 개념이 강한 현실에 비취볼 때 '우리'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면 문화적 기제(機制)로서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활용이 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¹⁷⁾

이제 현대사회의 지역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축제는 물론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축제가 갖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를 통해 달성하려 했던 목적에서는 과거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역축제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17) 문화관광부(2007), 『문화관광축제의 변화와 성과, 1996~2005』, 문화관광부, pp.21~24.

무엇보다도 지역과의 역사적인 상관성 속에서 만들어지고 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넓은 의미로 본다면 전통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제나 예술제 또는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각 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이 포괄된다. 대체로 오늘날에는 광의로 받아들여 지역축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¹⁸⁾

이 같은 지역축제의 현대적 성격은 우선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일체감 구현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구성요소와 구체적인 기능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¹⁹⁾

3) 지역 축제의 현대적 기능

첫째, 축제는 정신적인 일체감을 통해서 시대를 아우르는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 축제가 공동체의 유대를 목표로 한다면, 그 실천 원리로서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원초적인 제의성이 필요하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오늘날의 축제는 그 형태적인 면에서 많은 변모를 보이고 있지만, 종교성을 제외하면 과거의 제의적 구조, 특히 대동제(大同祭)와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기리는 기념제는 전통적인 제의성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축제는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이벤트성 행사로서 지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 그 행사에 전체 주민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18) (<http://www.metro.taegu.kr> 참조).

19) 안국찬(2001),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 pp.17~19.

축제는 특히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하는 놀이마당에서의 마지막 난장판처럼 가치관의 전도를 통해 질서를 재창조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다. 한편 가장행렬과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 세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축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셋째, 축제는 지역사회가 만들어 온 전통적인 문화를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고유한 민속놀이 등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축제를 개발해서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면 훌륭한 축제마당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현재 강릉의 '단오제'와 같은 각 지역마다 세시풍속과 어우러진 향토축제가 새롭게 발간되어 재현되고 있다. 이런 축제는 그 지역의 고유한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살거리까지를 갖추어서 고향의 냄새를 추구하는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대사회의 축제는 경제적 도구로서 관광 상품화 되는 기능이 있다. 과거의 축제가 제의나 공동체적 힘을 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데 비해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축제는 군중동원을 통한 경제적 성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지역축제가 관광객을 위한 상품화로 추진되고 상시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의 관광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 발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천의 '도자기 축제'는 기존의 지역축제를 흙과 불의 잔치를 주제로 체계적으로 관광 상품화시킴으로써 매년 2만 여명의 외국인을 포함해서 25만 여명의 국내외 방문객들이 몰려들어 지역 특화산업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면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제 축제는 내일의 생산적인 충진을 위해서도 전통적인 민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오락이나 비생산적인 축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오늘날의 지역축제는 제의보다 놀이문화의 기능이 더 크다는 점

을 인식하여 전통과 현실을 조화롭게 구성해 냄으로써 놀이로서의 신명과 제의로서의 경건함을 함께 어우려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축제는 행위의 주체이면서 객체도 되는 지역민이 지역의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상징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언론매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서 내용을 홍보하고 스스로 참여해서 일체감을 형성해 가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향토축제의 커뮤니케이터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사 보다는 축제의 기획에서부터 참여에 이르기까지 지역민들이 문화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문화의 생산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다. 이제는 관에서 의도적으로 지역의 문화운동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지역문화 단체들을 찾아서 육성하고 공동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현재 지역축제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한 종류 이상씩 500여 가지나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거나 세시풍속과 기념행사 또는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민들의 대동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지역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지역축제는 일제시대까지는 민족정신 말살정책에 따라 자취를 감추면서 겨우 40여 가지에 머무르다가, 해방이후 점차 증가되고 대부분은 1980년대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축제내용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많다. 한편 지역축제의 성격은 그 지역의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또는 세시풍속과 설화 등의 유래와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대체로 민속행사를 중심으로 추모제나 종교제 그리고 공연행사나 체육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벌써 70회를 넘긴 남원지역의 ‘춘향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주의 ‘백제문화제’, 밀

양의 '아랑제', 전주의 '풍납제' 그리고 김제의 '벽골제' 등이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이 같은 지역축제는 그 개최목적에 따라서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해당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 온 전통문화축제를 비롯하여 최근에 많이 시작된 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벌이는 위안축제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축제' 나 또는 '산업축제' 그리고 환경보호 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신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특수 목적을 위한 축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축제는 어디까지나 지역공동체의 일체감을 증폭시키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재결합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지역민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서로간의 일체감을 확인하고 신명을 되찾을 수 있는 행사로써 그 지역의 향토성과 정체성을 강화해 주는 것들이어야 한다.

한편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내용의 구성형식에 따라 전통문화축제와 현대적인 전시예술 및 공연예술 위주로 구성되는 예술축제 그리고 여기에다 체육행사나 오락프로그램 등을 혼합시킨 종합축제 등으로 구분한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축제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종합축제'는 주로 전야제(제사, 시가행진, 축동행렬), 공개행사(개막식의 축하공연), 전통문화행사(민속예술공연), 현대적 문화예술행사(전시 및 공연, 백일장), 체육행사(주민 체육대회), 부대행사(특산품 판매, 미인선발대회, 난장 개설)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된 축제를 말한다. 그리고 지역축제는 대부분이 1년 주기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로는 주로 가을철과 봄철에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80% 이상이 10월에 집중적으로 200여개의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²⁰⁾

20)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festival> 참조

III. 성남지역의 주요 축제 현황

1. 성남지역의 문화행사 만족도

1) 현황

성남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기 위하여 <표 1>와 같은 24개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표2>와 같이 4개의 지역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성남시의 대표적 문화행사는 198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성남문화예술제’이며, 이외에도 전통 민속시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이를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자 ‘모란 민속장 축제’가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표 1> 성남시 문화행사(2006년)

(단위: 원)

행 사 명	예 산
제33회 시민의날 경축예술공연	30,000
제20 성남문화예술제	110,350
제11회 청소년 예술제	20,000
제14회 새봄맞이 축제	15,000
해맞이 행사	15,200
공원테마별 축제	21,000
제8회 장수무대	15,000
제9회 한가위국악 큰잔치	10,700
제18회 성남전국시조경창대회	10,000
제33회 시민의날 창작 글짓기 대회	10,000

행 사 명	예 산
제5회 향곡징금란 무용제	10,000
제9회 성남창작무용제	10,000
제21회 성남전국학생국악 경연대회	7,000
제14회 주부가요제	10,000
제12회 성남시학생음악경연대회	11,000
박테현음악제	12,000
제7회 성남시전국창작동요제	18,000
신년음악회	13,000
제24회 전국연극제 경기예선대회	12,000
2006년 경기향토작가초대전	10,000
제15 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	10,000
모란민속5일장 축제	50,000
제9회 성남연극인 합동공연	16,000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성남예선	6,000
합 계	452,250

〈표 2〉 구별 지역축제 현황(2006년)

(단위: 천원)

구 명	행 사 명	예 산
분당구	제4회 분당구 연합예술축제	36,000
	제3회 분당구 한마음 축제	6,000
수정구	제6회 수정 숲골 축제	40,000
중원구	제2회 중원한마당 축제	30,000
합 계	4개	112,000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특징적인 것은 2001년부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개최되기 시작한 ‘시민문화 축제’가 있으며 또한 지역 문화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구 단위에서도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특히 수정구는 문화행사로써 숯골 축제를 구 단위에서 기획 및 개최하고 있다.

성남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성남문화예술제’ (산성문화제의 새로운 명칭)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일체감 조성, 애향심 고취를 통한 시민의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²¹⁾

성남시는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노고 위로 및 다양한 문화적 수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시 차원의 24개 문화 행사에 452,250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구청 단위에는 4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분당구에 2개, 수정구 및 중원구에 각 1개씩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축제 총 예산은 1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이 4개의 축제에 사용되었으며, 분당구에서는 2개의 축제(분당구 연합예술축제, 분당구 한마음 축제)에 42,000천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며, 수정구는 1개의 축제(수정 숯골 축제)에 40,000천원, 중원구에는 1개의 축제(중원 한마당 축제)에 30,000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성남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 성남탄천페스티벌(600,000천원)과 세계국제무용제(278,051천원) 등 다양한 축제도 함께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²²⁾

21) 성남 문화재단 2006,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pp.43~44.

22) 성남 문화재단 2006,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pp.46~47.

2. 성남지역의 주요 축제

1) 성남 문화예술제

성남문화예술제는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성남의 대표적인 지역종합 문화 예술행사로 1986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에 23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성남시·성남예총이 주최하고 예총 각 지부 및 참여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경연 등 다양하고 폭넓은 행사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거리 공연과 카니발 같은 형식의 내용으로 많은 외국댄서들의 참여와 각 모임들의 참여로 매년 훌륭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2)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이로부터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짓거나 증축을 할 때에 집을 짓기 위해 집터를 닦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하는데, 이때에는 집을 지은 후의 복록과 집을 짓는 동안의 안녕을 빌고 평안을 기원하는 고사와 덕담을 하고 소리를 내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

집터다지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농사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터주신이나 귀신은 밤에 움직인다고 믿어 밤에 행하여야 액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절차로는 집주인이 술상을 준비하여 동티나지 말고 잘되게 빌며, 술을 사방에 뿌리고 동네 사람들은 술을 한 순배 마시고 햇불을 켜들고 터를 다지는데, 보통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지경꾼들은 후렴을 한다.²³⁾

이때의 소리는 고된 작업을 흥에 겨워 힘든 줄 모르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역할

23)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성남문화원, 1998)

을 하는 건설 지향적이고 미풍양속이 듬뿍 담겨 있는 것으로 음률은 서울과 경기일원이 비슷하다.

그러나 이 집터 다지는 소리도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불려졌는데 사대문 안과 밖의 음률은 역력한 차이가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는 서두에 “에이려라”로 시작되는데 비해,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서두에 “에이려라 지경이요”라고 불리어졌다.



▲ 이무술 집터다지기(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시대전)

(1) 이무술의 역사

이무술은 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옛 이름으로서 원래 이무술이란 자연부락이었다.

300년 전 천렵을 즐기던 한 농부가 냇가에서 커다란 고기를 안고 나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고기는 천년 만에 승천할 이무기로서, 마을 주민들이 죽은 이무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위령송천제를 지내자 그 자리에 난데없는 매화나무 두 그루가 솟아 그 후부터 이매동으로 불리웠다 한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도 경기지방의 음률이 반영되고

있는데, 집터를 닦고, 다지고 집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특히 집터 다지는 소리가 특색 있게 잘 발달되어 전해지고 있었다. 「지정 닫는 소리」, 「지점이 소리」, 「상량가」라고도 하는데, 성남지역에서는 분당구 이매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인 이무술 마을의 집터 다지는 소리가 알려져 있다. 최근에 유경협자 윤명용 씨가 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 산타령의 보유자인 황용주 씨의 고증을 통해 복원하였다.

(2) 이무술 집터다지기의 대중화

또한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지경다지기)는 1982년 발굴 및 재연하여 1983년 3월 27일 관계기관 및 고종인, 감수, 마을주민과 함께 시연회를 하였고, 1997년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1994년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 2000년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에서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다.

3) 성남국제무용제

성남아트센터와 더불어 남한산성, 탄천, 중앙공원, 율동공원은 모두 성남에서 가볼 만한 명소다. 특히 성남아트센터는 그 동안 좋은 공연을 선사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성공적으로 심어왔다. 이러한 명소들을 아우르며 성남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인 춤의 향연이 있었다.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성남국제무용제가 그것이다. 성남국제무용제는 한국적 정취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한국창작춤, 대중에게 다가가는 현대적인 예술춤, 생활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춤 활동, 그리고 환경과의 교감을 모색하는 춤 등을 보여주는 축제라 할 수 있다.

성남국제무용제는 외지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남문화재단과 무용문화포럼의 공동주최로 2006년 9월 '환경과 꿈'이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에 따라 공연 시간을 다양하게 하고 여러 곳을 공연 장소로 활용하여 환경과 춤의 조화를 추구하며,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축제로서의 역할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성남국제무용제는 전야제·개막식·폐막식·일반 공연·야외 공연·무료 공연·신진 안무가 지원 프로젝트·전문가 선발 오디션·무료 워크숍·시민 공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용 애호가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공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공연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일반 공연은 국내외 무용단이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야외 공연은 성남아트센터 빛의 계단·탄천 일대·남한산성 입구·희망대공원 등지에서 공연을 한다. 힙합 배우기·탈춤 배우기 등 일반인 대상 워크숍도 마련된다.²⁴⁾

4) 성남 오리뜰 두레 농악

오리뜰은 과거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에 위치한 넓은 평야였으나 1973년 7월 구미동으로 명칭이 바뀌어 성남시에 편입된 후 1989년 분당신도시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했다.

이후 오리뜰에서 울려 퍼지던 두레농요가 사장될 위기에 치했다가 한국농악보존회 성남지회장 강승호(39)씨의 노력으로 복원돼 2007년 11월 3일 오리뜰의 중심이었던 분당구 구미동 오리공원에서 시연된 바 있다.

풍농을 기원하고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오리뜰 두레농요는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논 흙치는 소리 등으로 구성되며 썰과리, 장구, 북, 징, 제금 등의 반주가 어우러진다.

24) 성남문화재단(<http://www.snart.or.kr>) / 디지털 성남 문화대전 발제



▲ 성남 오리를 두레농악(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선소리와 두 부분의 받는 소리로 이뤄진 '3부연창'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굿거리장단이 많고 대(大)자 진, 십(十)자 진 등 특이한 진풀이(농악대가 여러 가지 진(陣)을 짜며 노는 일)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연에서는 들나가기, 모심기, 논매기, 참먹기, 논흙치기, 벼털기, 대동놀이 등을 통해 오리뜰 두레농요를 옛 모습 그대로 선보인다.²⁵⁾

5) 쌍용거줄다리기

징월 대보름날 너더리(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 행해지는 줄다리기이다.

'쌍용줄다리기'라고 불리는데, 보존회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의 판교동에는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길을 가로지르는 신작로를 따라 길게 시장이 형성되고, 이곳에서 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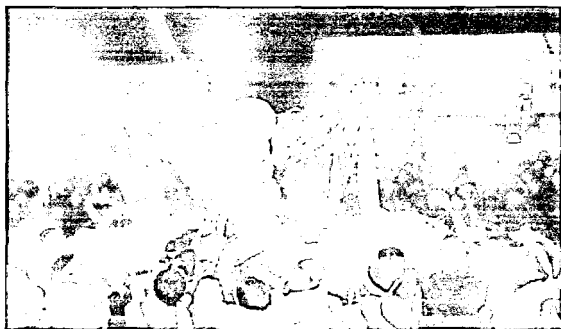
25) 연합뉴스, 2009. 1. 4일자 보도자료

를 하였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이 되기 며칠 전부터 마을의 남자들은 당산나무 아래에 모여 줄을 꼬기 시작하여 굵게 수십 미터가 넘도록 만든다. 줄을 꼬는 데 마을 주민 3~4명이 약 1주일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시간을 맞추어 줄을 꼬다. 이때 식사와 간식은 마을의 부녀회 주관으로 준비하여 줄을 꼬는 곳까지 가져다준다.

줄은 예전에는 마을의 회화나무가 있던 너른 광장에서 꼬았는데, 경부고속도로로 너른 논이 없어져 마을 뒤 샛길에서 줄을 꼬아 그 자리에 줄다리기를 할 날까지 보관한다. 전에는 이 줄을 마을 청년들이 옮겼지만 지금은 트럭 2대를 이용하여 줄다리기를 할 시간에 맞추어 도로에 내어 놓는다.

줄을 꼬는 데 필요한 새끼는 작은줄 18가닥을 엮어 합한 중줄을 다시 엮어 대줄을 만드는 데, 남근형으로 생긴 것을 '칭룽줄'이라 하고, 여근형으로 생긴 줄은 '황룽줄'이라 부른다. 줄다리는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만장과 풍물패를 앞세우고 주민들이 함께 흥



▲ 밭다리 쌍용거줄다리기(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을 돌으며 행해졌다. 줄다리가 끝난 후에는 청룡줄을 황룡줄에 끼우고 잘 깎아온 비너목을 쏘는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 주민들은 당산나무 앞에서 한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마을제사를 지낸 후 시장터에서 줄다리를 했다. 줄다리를 하기 전에 마을 안길에 쌍룡의 용두를 맞대어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축문을 읽는다. 청룡줄에는 기혼 남성이, 황룡줄에는 여성과 미혼 남성이 한 편이 되어 각각 세 번씩을 당긴다. 여성 황룡줄이 두 번을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 때문에 대체로 황룡줄이 이기도록 힘을 쓰는 편이다.

줄다리가 끝나면 주민이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풍물패가 쟁과리, 장구, 북, 나팔 등을 울리면서 한마당 놀이를 한다. 음식준비도 대동의 의미가 커서 마을의 전 주민이 합심하여 준비한다. 그 다음에 쌍룡줄과 황룡줄을 강이나 냇물에 태워서 액운을 물리치는 의식으로 끝으로 줄달리기는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한 번 만든 줄은 매년 태워 버리지 않고, 판교농협의 지하에 두었다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길에만 손질을 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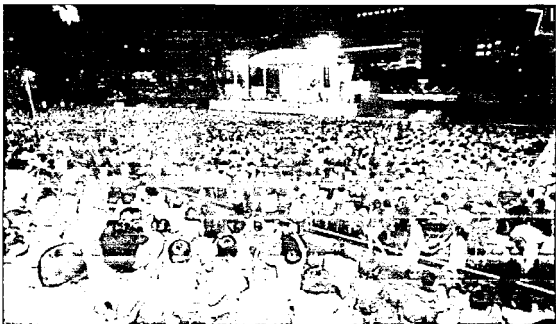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판교의 개발과 더불어 이 줄다리기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보존회 측에 따르면 마을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이 축제를 매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전의 풍미가 남아 있는 도로와 마을 주민의 동제로서의 의미는 많이 쇠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²⁶⁾

6) 성남탄천페스티벌

탄천페스티벌은 성남의 주요 축제 중 하나로 종합문화예술 축제이다.

2001년부터 세계 각국의 민속예술공연단을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세계 각국의 민속예술을 소개함으로써 이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삶

26)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성남문화원, 2001)



▲ 성남탄천페스티벌(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게 된 성남세계민속예술축제의 성과를 이어 탄천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2001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전통 민속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제1회 성남세계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였다.

그 후 2005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2005 탄천페스티벌'과 '제5회 성남세계민속예술축제'라는 명칭을 같이 사용하다가 2006년부터 '2006 탄천페스티벌'로 통합하여 개최되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탄천 둔치, 성남아트센터, 울동공원, 중앙공원, 성남시민회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분당구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아래 둔치와 이매동 성남상공회의소 맞은 편 둔치 2곳에 특설 무대가 마련되어 메인무대 공연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고, 성남아트센터와 성남시민회관 대강당과 소강당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되었다. 탄천페스티벌은 공연장과 탄천 둔치라는 야외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문화예술 축제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

다.²⁷⁾ 성남탄천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예술을 비롯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종합문화예술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지만, 성남탄천페스티벌의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탄천페스티벌은 2008년까지 3회를 맞았다. 작년 10월 화려한 불꽃놀이로 끝으로 화려한 모습을 선보였다. 성남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시민 축제로 거듭나 이제 어엿한 성남시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축제의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공연의 일정이 취소되었는가 하면, '환경'이 주제였던 올해 축제에서 시민들 인상에 가장 남은 프로그램이 불꽃놀이에 그쳤다는 사실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음을 말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보다 냉철한 반성과 세심한 배려가 뒷받침돼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²⁸⁾

IV. 성남시 지역축제에 관한 발전 방안

1. 성공에 대한 관점

무엇을 지역축제의 성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축제의 주최 측, 관람객, 지역사회 관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주최 측은 축제방문객의 수를, 축제관람객은 만족도를, 지역사회는 지역경제효과 측면에서 성공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²⁹⁾ 물론 이러한

27) 디지털 성남 문화대전 발췌.

28) 원간 아트뷰, 2008 11월호, 성남문화재단, pp.46~47.

기준들과 더불어 새로운 평가기준으로는 지역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즉, 지역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발전, 새로운 조직, 새로운 창조기회가 얼마나 마련되었는가?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시주체가 단순히 주최자, 실행본부로서의 집행기능뿐만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준비과정에서 여러 경험, 만난 사람들, 어려움의 극복 등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³⁰⁾

2. 분명한 지역축제의 주제

지역축제의 주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독창적이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은 해당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곧 지역정체성이며 향토성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공동이념, 현재와 미래의 모습 등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내의 많은 지역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곳 중의 하나는 안동의 탈춤축제이다. 영국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 가장 한국적인 지역이었다. 그 이유로는 가장 한국적인 지역이 안동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지역축제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잘 보관하고 이들을 축제의 형식으로 잘 풀어낼 때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 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유일무이 한 내용으로 수준 높은 축제를 신바람나게 벌이면 지역축제의 국제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결합한 표현으로서 단순한 자연자원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주제를 개발하여 제

29) 김춘식 외 2인(2005), 익산시동축제개선평안에 관한 연구, 익산시, pp.48~49.

30) 이흥재(2005),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마케팅」,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pp.152~158.

시하여야 한다. 현재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축제의 소재를 보면 <표 3>과 같다.³¹⁾

<표 3> 주제별 지역축제의 분류

주 제	축제 사례
지역특산물	금산인삼축제, 익산돌문화축제, 이천도자기축제, 프랑스 망퐁레몬 축제
꽃(식물)	남원hib 축제, 고양꽃축제, 안면도 꽃 박람회, 고창 정보리축제, 네덜란드 튜립축제
음식	광주김치축제, 발효식품 엑스포, 핀헨 맥주축제, 홍콩요리축제
역사적 인물	남원춘향제, 익산서동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영국셰익스피어축제
공연	춘천인형극제, 남양주 공연축제, 기창연극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프랑스아비뇽축제
음악	전주세계소리축제, 보성소리축제, 몬트리얼국제 재즈 페스티벌
곤충	함평나비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지역적 특성	김제지평선축제, 부여백제문화제, 전주풍남제, 일본삿포로축제
영화	진주국제영화제,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현재의 고싸움축제는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통문화의 재현이나 계승의 축제는 축제로서의 지평을 넓히는 데 한계를 갖는다. 고싸움축제가 보다 발전적인 국제적인 축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개최의 목적을 전통문화의 계승을 넘어서 현대문화와의 접목이나 연계를 통하여 축제목표가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축제는 왜 개최하는가에 대한 주최 측의 분명한 목표설정과 방향성이 정립

31) 이흥재(2005),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마케팅」,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pp.161~163.

되어야 한다.³²⁾

3. 축제 추진조직의 안정성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오랜 기간 축제를 관리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관적이기 위해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 순환 보직제에 의해서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속 바뀐다. 담당 공무원이 어떤 마인드인가에 의해서 축제는 잘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민간 기구는 축제를 주최할만한 재정적 여건이 아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축제를 순탄하게 이끌어 갈 전문성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축제의 운영주체는 관주도형, 민주도형, 그리고 혼합주도형으로 구분된다. 관주도형은 공익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용이한 반면 민주도형은 능률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용이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혼합주도형은 이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충형이다. 장기적으로는 민주도형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아직은 지역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 상황에 맞게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추진구조를 갖추는 것이 지역축제의 세계화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

4. 축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단위에서는 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며, 부족한 인프라도 이를 운영할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축제가 보다 국제적인 수준

32) 박주성(2002),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화연구』제7집, 한국문화학회, pp.62~64.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의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들 문화기반 시설 간 동선을 연계하여 축제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축제가 잘 진행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치르기 위한 물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넓은 주차장, 축제장의 접근성, 화장실, 숙박시설, 전시관 등과 같이 축제를 위한 물적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을 일시에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년 시설물들을 조금씩 확충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축제를 치를 마땅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훌륭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5. 축제 전문성

국제적인 지역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문화지식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해당 지역축제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문화지식으로 축적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되기 어렵다. 축제의 전문성은 물론 축제의 주제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축제전문가는 매우 드문 현실이어서 주로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획이벤트사에 통째로 지역축제를 맡기는 현실이고, 지역적 차별성 없이 많은 지역축제들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많다. 축제추진위원이나 담당공무원 중심으로 행사나 축제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단위에서 가장 효과를 빠른 시일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학습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문화단체나 지역축제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여 축제에

대한 전국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축제들이 있는가를 현장방문하고, 나아가 해외축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단기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순환 보직 제로 되어 있는 축제담당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문화행사에 대한 강좌를 집중적으로 축제 추진 조직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³³⁾

6. 주민참여

지역축제의 주인은 이론상으로는 주민이다. 실질적으로 지역축제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지역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경우 주민들의 참여는 지역축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소수의 예술가나 이벤트업자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축제에 있어 주민참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주차관리나 안내, 질서유지와 같은 자원봉사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축제에서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자원봉사자로 유인하는가 여부에 축제 성공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을 극대화하고 축제지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축제진행인력을 크게 늘려주는 효과를 가진다. 축제 참여를 통해서 지역주민으로서 긍지, 자기개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는 축제 인적

33) 안국찬(2001),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 pp.25~26.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당장에는 큰 효과를 가져 오기는 어렵지만 축제 저변을 넓고도 튼튼하게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의 축제전문가를 양성하며 축제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7. 축제평가

지역축제가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고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평가가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축제평가를 통하여 축제방문객들의 성향과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평가의 생명은 객관성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축제평가에 대한 용역을 축제집행자나 지방정부에서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평가가 부패하기식이나 봐주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축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의 지역축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축제의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지역정체성이며 향토성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공동이념, 현재와 미래의 모습 등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지역축제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잘 보관하고 이들을 축제의 형식으로 잘 풀어낼 때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성남시가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와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에 버금가도록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탄천페스티벌’과 성남예총이 주관하는 ‘성남문화예술제’ 등 성남의 대표적인 지역축제가 예산대비 주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성남시의 ‘탄천페스티벌’과 ‘성남문화예술제’를 대상으로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종합점수 62점으로 212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축제에 대한 전국의 평균 만족도인 66.9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성남지역의 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지역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3점으로 144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지역축제의 개최목적과 기대효과인 지역화합과 자부심 기여도에 대해서는 61.3점을 받아 202위에 머물렀고, 지역축제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49.3점을 받아 223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축제의 가장 중요한 개최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³⁴⁾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호응 없이 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축제의 방관자로 소극적인

34) 성남투데이

형태의 참여를 하게 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개성 없는 종합축제의 성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축제를 기획하는 부서나 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에게 축제의 중요성과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히 인식시켜 지역축제를 통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교훈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축제 인프라의 구축이다.

축제가 보다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들 문화기반 시설간 동선을 연계하여 축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축제를 구성하고 진행할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지역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문화지식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지역축제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문화지식으로 축적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되기 어렵다. 축제의 전문성은 물론 축제의 주제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축제전문가는 매우 드문 현실이어서 주로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획이벤트사에 통째로 지역축제를 맡기는 현실이고, 지역적 차별성 없이 많은 지역축제들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많다. 축제추진위원회나 담당공무원 중심으로 행사나 축제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단위에서 빠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학습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축제가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고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평가가 필

요하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축제평가를 통하여 축제 방문객들의 성향과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과정을 통해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고 수준 높은 성남지역축제들이 철마다 계속되는 아름다운 성남시의 축제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성남의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남시 지역축제의 실질적인 주체가 성남시민이어야 한다. 자신의 생활공간을 지역주체들의 창의적인 의지와 노력에 의해 능동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간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성남시민들의 다양성, 주체성, 창조성을 통해 그 지역의 살아 있는 문화, 다양하고 생생한 문화를 창조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을 때 지역축제가 가지는 의의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성남에서 개최된 지역축제 조사 및 사례연구 통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미진한 점에 대해 앞으로 축제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더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성남 지역의 특성, 사회문화적 방법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성남의 축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두산 세계대백과 Encyber,

위키백과사전

강형기(1999), “지역축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지방행정』, 지방행정공제회.

김성혁역(1996), 『일본의 관광사업-지역문화활성화의 업무지침』, 서울 : 일신

사.

김춘식의2인(2005), 익산시동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시.

문태현(2004),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정책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분석

-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2004, 한국행정학회
주거학회대회 발표논문.

박주성(2002),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화연구』 제7집, 한국문화
학회.

송태갑(2003), 광주지역축제의 활성화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안국찬(2001),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이흥재(2005),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마케팅”, 행사의전기획과정 강의안, 원광
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장순희(2001),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발표
논문집.

정강환(1996),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
연구』, 제11권 제3호.

임재해(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채용식(2000), “형성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연구』, 제3
호.

정강환(2004), 『21세기 지역개발형축제로의 선택』, 월간이벤트(주)인플러스
넷.

정강환(2006), 『캐나다 겨울축제 벤치마킹』, 월간이벤트.

국가정보원(2006), 『“국가적 매력” 향상을 위한 지역축제 육성방안』, 국가정보
원.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2006), 『2012년 폴콜로리아다 유치타당성 조사
연구』,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

문화관광부(2007), 『문화관광축제의 변화와 성과 1996~2005』, 문화관광부.

“미래학자에게 길을 묻다”, 중앙일보, 2007. 3. 28

성남문화원(2001),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월간아트뷰(2008).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성남문화원.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특성 연구

홍성일

성남시립합창단 기획

차례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기초
 - 1) 음악의 기능
2. 교가의 의미와 발생
 - 1) 교가의 의미와 역할
 - 2) 교가의 발생

III.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분석

1. 교가의 음악분석
 - 1) 박자와 조성
 - 2) 음역과 연주형태
2. 교가의 가사분석
 - 1) 지역별 가사분석
 - 2) 시대별 가사분석
 - 3) 성남초등학교 교가분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목적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가이념과 통치정신을 나타내는 국가(國歌)가 있다. 사람들은 국가를 부르며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인 애국가가 있어서 국민의례나 국가적 행사 때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다짐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애국가를 노래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리 많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애국가이고 심지어 별 의미 없이 부르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애국가를 통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노래라는 데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을 때, 또는 국제 축구경기를 할 때 연주되는 애국가를 들으며 우리는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고 평소에 애국가를 들을 때와는 또 다른 가슴 뭉클한 감동과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그 학교를 상징하는 교가가 있다. 교가는 그 학교의 기풍과 건학정신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특별히 지어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는 노래를 뜻한다. 애국가처럼 교가 역시 학생들에게 애교심과 소속감,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듯, 교육목적과 관련 지어진 문학과 음악에 걸친 예술형태이면서 한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의 상징인 교가는 애교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가치가 있고, 동시에 학생들의 장래에 마음의 양식이 될 긍지를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교가는 한 번 제정되면 전통의 핵심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 같은 학교 졸업생은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같은 교가를 부

른다. 이는 한 번 제정되면 거의 변화가 없는 교가의 상징적 유기성의 반증인 것이다.

애국가나 교가에는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환경을 가사에 표현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현실감 있고 더욱 친근함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심성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를 통하여 어떠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상징물과 교가의 창작자, 악곡 및 가사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성남시에 속한 63개의 초등학교 교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 45개와 초등학교 교가 악보의 회송을 Fax로 의뢰하고, 2개의 교가가 회수되어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자료 중에서 교가의 악보가 없이 가사만 게시되어 있는 곳이 11개교가 있어 이것을 자료로 선택하였다. 이에 악보가 있는 초등학교는 36개교, 가사만 있는 학교가 11개교, 악보나 가사를 확인하지 못한 곳이 16개교였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먼저 교가의 박자와 조성, 음역과 연주형태를 확인하여 분석하고 그 후에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시대별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기초

1) 음악의 기능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문화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습득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음악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갖게 되는데 음악이 갖는 이런 기능들은 현대에 들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주로 제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사용되던 음악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음악 속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음악이 가지는 기능 또한 점차 넓어지고 다양해진 것이다.

첫째, 음악의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음악을 만들고 들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미적 아름다움과 즐거움일 것이다. 연주회장을 찾아 음악을 듣고, 음반을 사서 들으며 즐거움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미적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기를 배우거나 직접 연주회를 갖기도 한다.

둘째,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음악은 개인이나 집단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 평소에 표현하지 못하던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언어를 이용한 표현보다 더 쉽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은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부터 불리던 사랑을 노래하는 세레나데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송곡 등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였고, 70년대나 80년대에 유명하던(아침이슬)류의 노래들은 그 시대의 분위기나 감정들을 표출하였으며, 오늘날 음악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랩(Rap) 음악은 미국 흑인 사회의 불만을 표현하던 것으로 집단적인 감정들을 표현한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음악은 사회에 있어 상징적인 표현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애국가, 교가, 찬송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경우 가사나 선율을 음미해서 듣는 의미보다는 이들이 대변하는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의 자긍심 등이 이러한 노래들의 커다란 역할이 된다. 애국가는 국가의 가치와 전통을 상징할 수 있고, 교가나 기타 기관의 노래들도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상징적 가치를 가진다. 사회와 정치적 운동을 상징하는 저항노래들도 여기 속할 것이다. 이러한 음악들은 개인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더 친밀감을 갖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음악은 사회 통합의 기능, 개인의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넷째, 음악은 신체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우리는 리듬체조를 하거나, 춤을 출 때 신체 활동을 위해 음악을 사용한다. 그 뿐 아니라 음악은 다양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 종류에 따라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진정시키기도 한다. 콘서트에서나 잔치에서 연주되거나 흘러나오는 음악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쉬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규범과 관련되는 음악이 원시문화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음악의 기능 중 하나라고 한다. 예전에는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지어 부르게 했던 노래들이 많았던 반면 열린 사회가 되면서 저항노래들도 많이 생겨나 불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주의를 주거나 무엇이 적절한지 아니면 부적절한지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이나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회규범을 주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도 음악의 이러한 기능에 기인한 것이다.

여섯째, 음악은 오락적인 기능을 가진다. 이것은 미적 즐거움과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으나 미적 원리가 고려된 것이기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음악은 명백히 오락의 기능으로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놀이에도 음악이 사용된다. 특히 짝을 이루어서

하는 놀이에는 리듬을 맞추기 위해 꼭 음악을 사용하게 되고 줄넘기나 손뼉치기 놀이에도 음악은 없어서는 안 되며, 오늘날의 컴퓨터 게임에도 음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곱째, 음악은 국가적, 종교적 혹은 지역사회의 예식들에서 사용된다. 결혼식, 장례식 등을 비롯한 모든 예식에서 우리는 음악을 접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조례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교가를 부르게 된다. 결혼식에서의 음악은 신랑, 신부와 하객들에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며 원만한 진행을 돕는다. 또한 관공서나 학교에서의 식에서 부르게 되는 애국가나 교가는 나라를 생각하고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예식에 사용되는 음악은 음악의 상징적 기능이나 사회 통합의 기능과도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상품을 선전하는 음악이나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악의 기능이 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광고 음악들은 상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 그 멜로디에 친숙해지고 그와 함께 상품에도 친숙해지게 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일터에서 손발을 맞추기 위해, 일의 지루함을 덜기 위해 음악이 사용되었고, 심지어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음악이 사용되었다.”

2. 교가의 의미와 발생

1) 교가의 의미와 역할

1) 김서경(2008), 『초등학교 교가의 음악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pp. 9~12.

학교를 대표하는 교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클래식이나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요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노래로 그 학교의 창학 정신이나 교육이념을 요약하여 음악적인 수단으로 표현하여 강조한 것이다. 교가는 학교의 기풍을 진작시킨 목적으로 각 학교들이 특별히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는 노래이다. 이렇게 하여 학생들은 교가를 반복해서 노래함으로써 애교심이 고취되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지고, 또한 같은 교가를 부르는 학생들간에 동료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근감과 협동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가를 많이 부를수록 애교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이다. 나라마다 국가를 제정해서 부르는 것도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음악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기도 한다. 종교음악이 신도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할 목적이라면 애국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교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경의심과 소속감, 그리고 학생 상호간에 협동심 유발 등의 애교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²⁾

애국가나 교가에는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환경을 가사에 표현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현실감 있고 더욱 친근함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 초등학교의 교가를 특성을 분석하여 본다.

2) 교가의 발생

교가의 효시에 대한 종래의 기록들을 보면, 한국이 근대식 학교는 1885년 배재학당, 다음해의 이화학당을 비롯하여 1905년부터는 전국

2) 김재은(2008), 『중학교 교가 분석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pp.3~4.

각지에 수십 개의 남녀학교가 설립되었다.

초창기의 교육이념은 학문을 전수하고, 인격을 도야한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보다는 민족정기의 배양과 신문화 섭취에 더욱 주력하였다. 창가는 이런 정신을 앙양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 방안이었다. 당시 학교 창가는 교가와 음악과정으로서의 창가였다.

학교 창가의 초기는 미션 계통이었던 초창기 학교에서 부른 찬송가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교가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미션계통에서 시작된 찬송가와 7.5조의 창가조가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학교는 선교사들에 의한 미션 계통으로 교가의 효시는 찬송교가로서 이미 20세기 초에 불리었다. 그리고 7.5조 등의 본격적인 형식은 그 후인 1920년경부터였다.

초창기 학교의 하나인 이화학당은 1886년에 설립되었는데 처음에는 영문으로 노래를 지어 외국 빈객의 환영식상에서 불리었고, 교가다운 노래가 나온 것은 1906년 김정진 작사로 된 찬송가 조의 노래였다.

김윤식님은 초기 창가 교류가의 예시로써 1906년 4월 24일 황성신문에 게재된 작가 미상의 교가가사를 제시함으로써 그 효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조동일님은 창가가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하는데 학교 창가가 커다란 구실을 했으므로, 학교 창가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885년에 배재학당이, 1886년에 이화학당이 설립된 것을 비롯해서 많은 학교가 생겨나자 교가가 필요했고, 창가 시간을 두어 창가를 가르치게 되었다. 배재학당에서는 교가를 찬송가로 대신했고, 이화학당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1906년에 이르러서 찬송가 풍의 교가를 다시 지었다고 한다. 노랫말은 쉽게 지을 수 있어도 신교육의 분위기에 맞는 마땅한 곡조를 마련하기 어려운 까닭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는 그런 과도기적 방책을 강구했다. 기독교와 관계없이 설립된 학교에서는

민요조로 부르는 교가, 기타의 학교 창가를 지었을 것인데, 이런 시기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³⁾

III.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분석

1. 교가의 음악분석

2009년 1학기 현재 성남지역에는 63개의 초등학교에 61,615명의 초등학교생들이 있다. 다시 지역별로 나누면 분당구가 32개교, 수정구가 15개교, 중원구가 16개교의 초등학교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 학교의 교가를 작곡가와 작곡자, 박자와 조성, 음역과 연주형태 등으로 나눠 분류하였다.

〈표 1〉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 음악 분류

학교명	작사가	작곡자	박자	조성	음역 (최고음-최저음)	길이(마디)	연주형태
검단초등학교	•	•	4/4	바장조	레 - 도	2절(20)	제창
구미초등학교	•	•	•	•	•	2절	제창
금빛초등학교	이봉구	이완희	4/4	내림마장조	미 b - 도	2절(16)	제창
금상초등학교	김채훈	김채훈	4/4	다장조	레 - 도	1절(24)	제창
내정초등학교			4/4	다장조	미 - 도	2절(16)	제창
늘푸른초등학교	배길춘	김인규	4/4	라장조	레 - 라	2절(21)	제창
단남초등학교	이도영	김용기	4/4	다장조	레 - 도	2절(16)	제창
단대초등학교	홍성완	현덕용	4/4	바장조	레 - 도	2절(16)	제창

3) 양민규, 우리나라 교가 가사에 대한 연구, 남대문중학교, p.5

학 교 명	작사가	작곡자	박자	조성	음역 (최고음-최저음)	길이[마디]	연주형태
당촌초등학교	박경신	신승철	4/4	다장조	파 - 레	2절(24)	제창
대인초등학교			4/4	바장조	레 - 도	2절(16)	제창
대일초등학교	김시	김형기	4/4-2/4-4/4	다장조	도 - 도	2절(20)	제창
대하초등학교	조영훈	정세문	4/4	바장조	파 - 시 b	2절(24)	제창
돌마초등학교	•	•	•	•	•	•	제창
백현초등학교	•	•	4/4	다장조	미 - 도	2절(24)	제창
북정초등학교	•	•	•	•	•	•	•
분당초등학교	•	•	•	•	•	1절	제창
불곡초등학교	•	•	•	•	•	2절	제창
불징초등학교	•	•	•	•	•	2절	제창
상대원초등학교	홍순용	한세용	4/4	바장조	레 - 도	2절(17)	제창
상원초등학교	이병로	황분평	4/4	바장조	레 - 도	1절(24)	제창
상탑초등학교	최돈명	조일훈	4/4	다장조	도 - 도	2절(16)	제창
서당초등학교	•	•	•	•	•	2절	제창
서현초등학교	오희철	홍정표	4/4	사장조	레 - 솔	2절(16)	2부합창
성남동초등학교	•	•	4/4	다장조	레 - 도	2절(24)	제창
성남매송초등학교	김유린	김종린	4/4	라장조	레 - 라	3절(24)	제창
성남미금초등학교	윤용석	정세문	2/4	바장조	레 - 도	2절(24)	제창
성남북초등학교	•	•	•	•	•	•	•
성남서초등학교	정준철	원덕용	4/4	다장조	도 - 도	2절(16)	제창
성남수정초등학교	우성순	유덕희	4/4	내림다장조	미 b - 미 b	1절(24)	제창
성남신기초등학교	•	•	2/4	바장조	도 - 도	2절(16)	제창
성남신흥초등학교	황영준	김정진	4/4	바장조	레 - 도	2절(16)	제창
성남양지초등학교	김상영	박용준	4/4	다장조	레 - 시	2절(20)	제창
성남은평초등학교	우종훈	허방자	4/4	바장조	레 - 도	2절(20)	제창
성남장안초등학교	•	•	•	•	•	•	•

학 교 명	작사가	작곡자	박자	조성	음악 (최고음·최저음)	김이(미디)	연주형태
상남정자초등학교	•	•	•	•	•	2절	제창
상남제일초등학교	•	•	•	•	•	•	•
상남중앙초등학교	신재덕	오테일	•	•	•	1절	제창
상남초등학교	김선옥	이정섭	4/4	바장조	레 - 도	2절(24)	제창
성수초등학교	•	•	•	•	•	•	•
수내초등학교	방상목	김산만	4/4	바장조	레 - 도	2절(16)	제창
수진초등학교	•	•	•	•	•	•	•
안반초등학교						2절	제창
야탑초등학교	양훈석	한세웅	4/4	바장조	레 - 도	1절(24)	제창, 전주가 있고, 피노노 연주 있음
양영초등학교	•	•	•	•	•	•	•
오리초등학교	전선관	정세문	2/4 4/4	내림나장조	시 b - 시 b	3절(16)	제창
왕남초등학교	•	•	•	•	•	•	•
이매초등학교	정진소	백병선	4/4	다장조	미 - 도	2절(24)	제창
중부초등학교	최병엽	김혜영	4/4	사장조	미 - 미	1절(20)	부분2부 합창
중원초등학교	•	정세문	4/4	사장조	미 - 시	3절(24)	제창
중탑초등학교	우중훈	이정희	4/4	다장조	레 - 도	1절(24)	제창
청송초등학교	•	•	•	•	•	1절	제창
초림초등학교	라재범	최화자	4/4	바장조	레 - 도	2절(24)	제창
탄천초등학교	•	•	•	•	•	•	•
태평초등학교	•	•	•	•	•	•	•
하원초등학교	•	•	•	•	•	•	•
하탑초등학교	•	•	•	•	•	•	•
한솔초등학교	•	•	•	•	•	1절	•
희망대초등학교	노희승	전무은	4/4	라장조	레 - 레	1절(24)	제창
도촌초등학교	•	•	•	•	•	•	•
운중초등학교	•	•	•	•	•	•	•

학 교 명	작사자	작곡자	박자	조성	음역 최고음·최저음	길이(마디)	연주형태
산운초등학교	기옥도	이순형	4/4	내림나장조	레 - 시 b	2절(28)	계창, 전주가 있음
낙생초등학교	•	•	•	•	•	•	•
성남송원초등학교	•	•	•	•	•	•	•

1) 박자와 조성

(1) 박자

일정한 규칙에 지배되는 셈여림의 진행이나 변화 있는 장단의 진행, 즉 수평 진행의 질서 있는 운동을 리듬이라고 하며, 리듬은 장단의 시간적 배합이므로 리듬의 한 단위는 박자가 된다.⁴⁾ 이와 같이 박자는 일정한 수의 박이 모여서 음악적인 시간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음의 셈여림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의 박자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곡이 4/4박자로 악보가 있는 36개교 중에서 32곡이었다. 다음으로는 2/4박자가 2곡이었다. 박자에 대표적인 것은 3/4박자와 4/4박자 그리고, 6/8박자가 있는데 이것은 곡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게 작곡자에 의해 결정된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쉬운 리듬인 4박자 계통을 사용하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일초등학교와 오리초등학교의 교가는 변박으로 작곡되어져 있고 대일초등학교는 4/4박자에서 2/4박자로 진행되었다가 다시 4/4박자로 진행되며, 오리초등학교는 반대로 2/4박자에서 4/4박자로 변박으로 이뤄졌는데 이것은 가사의 운율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자칫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교가를 좀 더 변화 있고 재미있게

4) 백방동, 음악이론, 현대악보 출판사, 1978, p.13, p.25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악보 1〉 대일초등학교 교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교 가

〈악보 1〉에서 보듯이 4/4박자가 많은 것은 교가라는 악곡의 성격인
힘찬 기상을 표현하기에 유리하고, 행진하면서 부르기에도 좋기 때문
에 가장 적합한 박자라고 생각되며 또한,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쉽
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정된 리듬을 사용한 것이다.

(2) 조성

조성은 음악에 쓰이는 화성이나 멜로디가 하나의 음 또는 하나의 화

음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음악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조성이란 음악이 경과하는 속에서 볼 수 있는 음 현상이며, 중심이 되는 음과 화음의 지배가 그 음악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음악의 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 같은 중심이 되는 음을 ‘ 으뜸음’, 화음을 ‘ 으뜸화음’ 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다장조라 하면 다음을 으뜸음으로 한 장음계로써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⁵⁾ 이렇게 어떤 음계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악곡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표 2〉 교가의 조성

조성	다장조	라장조	바장조	사장조	내림마장조	내림나장조
학교합계	12	3	14	3	2	2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 쓰이는 조성으로 단조는 한 곡도 없었으며 모두 장조의 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교가의 특성상 밝음과 희망 등의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바, 다 장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가를 작곡할 때 가장 선호하고 쉬운 조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이들 조성이 노래를 하거나 반주를 하기 쉬운 조성이고, 클라이맥스를 표현할 때도 높은 ‘레’ 정도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음역에 무리한 음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가의 조성이 모두 장조인 것은 기쁨, 밝음, 안정성, 즉 밝고 힘찬 희망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조는 장조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반대의 개념이며, 장조에 대비되는 슬픔, 어두움, 불안정성을 나타내므로 모든 초등학교의 교가는 장조의 곡인 것이다.

5) 위키백과사전

2) 음역과 연주형태

(1) 음역

음역이란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가 낼 수 있는 음의 고저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음역을 다장조를 중심으로 표를 만들어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1옥타브(낮은 '도'에서 높은 '도') 정도의 음역을 가지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음역이 늘어나 6학년 때에는 11~12도(예를 들면, 낮은 '도'에서 높은 '파', '솔')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⁶⁾

교가는 어느 한 연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어린이들의 음역을 고루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춘기가 되면 성대의 길이가 증대되며 변성기 전에 비해 약 1옥타브 정도 낮은 소리가 난다. 성대가 길다는 것은 낮은 음성을 낼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그 정도가 작다.⁷⁾ 따라서 초등학교에게 알맞은 음역으로 작곡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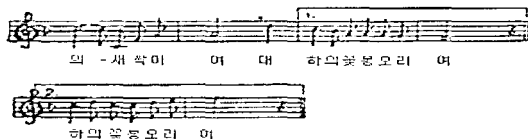
성남시 초등학교의 교가를 확인하면 당촌초등학교와 대하초등학교의 높은 '파' 음이 최고음이며 최저음은 서현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낮은 '솔' 음이다. 서현초등학교는 2부합창으로 되어 있어 낮은 파트에 해당하는 음인 것이다. 이것은 초등학교들에게는 다소 무리가 될 수 있는 너무 낮은 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늘푸른초등학교, 성남매송초등학교에 나오는 낮은 '라' 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무리가 될 수 있는 낮은 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교가들 외에는 모든 곡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맞은 음역으로 작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곡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음역은 낮은 '도' 음에서 높은 '레' 음으로 초등학교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없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

6) 백은경(2008), 『초등학교 교가의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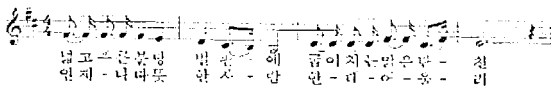
7) 문영인(1989), 『호흡과 발성』, 도서출판 청우, p.69

이다. 최고음 또한, 교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사 부분을 강조하거나 〈악보 2〉에서처럼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가장 높은 음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클라이맥스를 표현하는 것인데 높은 ‘파’ 음은 초등학교생들에게 다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집중하여 소리를 내면 충분한 음인 것이다. 이렇게 몇몇 초등학교 교가에서 초등학교생들에게 무리가 될 수 있는 음들을 사용하여 교가의 중요한 부분이나 가사를 강조하였다.

〈악보 2〉 대하초등학교 교가(최고음의 예)



〈악보 3〉 늘푸른초등학교 교가(최저음의 예)



(2) 연주형태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의 연주 형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곡의 길이를 살펴보면 16마디로 이뤄진 교가는 12곡이고, 20마디로 이뤄진 교가는 5곡, 24마디로 이뤄진 교가는 16곡, 17마디, 21마디로 이뤄진 교가가 1곡씩 있었으며, 제일 긴 교가는 28마디로 이뤄진 산운초등학교 교가였다.

교가의 길이, 즉 마디 수는 가사와 관계가 깊다. 대개의 경우 규칙적인

2의 배수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규의 마디수로
는 그 프레이즈를 음악적인 교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나, 일시
적인 변박이나 조바꿈하여 원조로 돌아가기 위해 불규칙한 마디 구조
로 된 것도 있다.

교가의 절수 또한 2절로 이뤄진 교가는 32곡이고, 단절로 이뤄진 교가
는 11곡, 3절로 이뤄진 교가는 3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교가의 연주의 형태를 알아보면 모든 교가는 제창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부분 2부 합창이 1곡(중부초등학교), 2부 합창이 1곡(서현초
등학교)으로 되어 있다. 합창으로 된 교가가 실제로 학교에서 연주되어
지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초등학생들의 음악교육에 있어 상당한 이로
운 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야탑초등학교는 악보에 피아노 반주부가 있고, 4마디의 전주가
있어 더욱 자세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산운초등학교는 교
가의 악보에 노래가 시작하기 첫 가사 전에 전주로 4마디가 기보되어
있어 특이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2. 교가의 가사분석

1) 지역별 가사분석

교가의 가사들을 살펴보면 주로 앞부분에는 학교의 위치를 나타내는
산이나 강 등의 지명이 나오고, 중간 이후로 학교의 교육이념이나 학생
들이 가져야 할 덕목 등이 제시되며 뒷부분에는 학교의 이름이나 이를
상징하는 말을 되새기고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자연환경이
나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되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짓거나, 묘를 쓰거나, 건물 등을 지을 때 좋은 곳인지를
살폈는데 일반적인 좋은 터에서 좋은 기운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좋

〈악보 4〉 서현초등학교 교가

오희철 작사
홍정표 작곡

1. 강건하고 굳 - 세 - 세 상심하고 굳 - 세 - 세
2. 아름답고 색색 하 - 세 순귀롭고 사랑스럽 게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이 동산 데모 있 나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이 동산 데모 있 다

온 누리를 밝히 - 줄 겨레의 빛 - 이 - 여 아
이 나라를 밝히 - 줄 만민의 기 - 능 이 어 아

아 - 서 현 초 등 학 교 강이 강이 빛 나 라
아 - 서 현 초 등 학 교 영원 부강 하 이 라

은 정기를 받아 학교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교가 위치한 그 장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나 학교 주위의 중요한 자연환경은 이러한 면에서 꼭 필요한 조건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없는 교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가에서 이와 같은 가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남지역 초등학교의 교가 또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성남시에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모두 3개의 구가 있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각각의 구마다 32, 15, 16개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분당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듯 분당구의 초등학교 수가 수정구와 중원구를 합한 수보다 많다. 같은 성남시 안에서도 다른 문화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역사를 겪으면서 차이가 나듯 초등학교 교가에 있어서도 구분되어진다. 이에 초등학교를 구별로 나누어 교가에 나오는 지역명과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사를 분류하였다.

또한, 이를 확인하면 성남 지역의 초등학교 교가 가사를 통해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분당구

〈표 3〉 분당구 초등학교 교가 가사 분류

학교명	지역	지명
구미초등학교	분당구 구미동	불곡산
내정초등학교	분당구 수내동	매지봉, 청계산
늘푸른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분당, 탄천
당촌초등학교	분당구 분당동	성주봉
돌마초등학교	분당구 야탑동	남한산
백현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탄천
산당초등학교	분당구 서현동	일장산
불곡초등학교	분당구 구미동	불곡산, 탄천
불정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불곡산
상탑초등학교	분당구 야탑동	매지봉
서당초등학교	분당구 서현동	성주봉, 효자촌
서현초등학교	분당구 서현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성남매송초등학교	분당구 이매동	청계산, 남한강
성남미금초등학교	분당구 미금동	불곡산, 수지천

학교명	지역	지명
성남신기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숫개울
성남장안초등학교	분당구 분당동	•
성남정자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수내초등학교	분당구 수내동	상주봉
안발초등학교	분당구 이매동	덕산
야탑초등학교	분당구 야탑동	남한산, 수내천
양영초등학교	분당구 서현동	•
오리초등학교	분당구 구미동	오리뜰
이매초등학교	분당구 이매동	이무술들
중탑초등학교	분당구 야탑동	검단산
정술초등학교	분당구 금곡동	성주봉, 탄천
초림초등학교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탄천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
하탑초등학교	분당구 하탑동	•
한솔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윤중초등학교	분당구 윤중동	•
산운초등학교	분당구 하산운동	청계
낙생초등학교	분당구 판교동	•

초등학교 교가에 등장하는 지역명은 산에서부터 강, 들 등 대부분 자연환경이다. 먼저 분당구를 살펴보면 산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불곡산⁸⁾에서부터 청계산⁹⁾, 남한산¹⁰⁾, 일장산(남한산을 이르는 다른 말),

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과 광주시 오폭읍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344m이다. 성덕산이라고도 하며, 나지막한 산으로 분당 주민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 남서나 북서 방향의 행글라이딩 이륙장을 갖추고 있다.

9)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 의왕시, 성남시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618m이고, 주봉우리가 망경대이며, 문화재로는 신라때 장건원 청계사가 있다.

덕산, 검단산¹¹⁾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매지봉¹²⁾, 성주봉이 나타나고 있다. 강으로는 남한강부터 탄천¹³⁾, 수지천, 솟개울(탄천을 이르는 말), 수내천이 등장하고 있다. 그 외에 성남시의 발전한 도시 이미지와 맞게 늘푸른초등학교에는 분당이라는 구(區)명이 등장하고 있으며, 서현초등학교의 효자촌, 오리초등학교의 오리뜰, 이매초등학교의 이무슬들¹⁴⁾, 초림초등학교의 양지마을 등의 지명이 교가에 언급되고 있다.

서현초등학교와 성남정자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에서는 지역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수정구

- 10) 위치는 경기 광주군 중부면,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이고, 높이는 479.9m이며 문화재로는 남한산성(사적57)이 있다. 산의 사방이 평지여서 밤보다 낮이 낫다고 하여 일장산(日長山) 또는 주장산(晝長山)이라고도 한다. 성남시 북동쪽에 있는 여성적인 아담한 산으로서, 지형의 사면이 외부의 공격을 막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삼국시대부터 성을 쌓았다. 윤창한 숲에 둘러싸인 구릉지이며 평균 높이가 서울보다 300~500m 높은 고지대여서 기온이 서울보다 4~5도 낮아 여름철 피서지로도 알맞다. 장경사(경기문화재자료 15) 등의 사찰이 있고 산성 꼭대기에는 수어장대가 있고, 현절사(경기유형문화재 4), 청량전, 숭렬전, 연무관, 지수당, 침과정 등이 있다. 이밖에 산성의 남문을 보존하여 중수하였고, 행궁터, 송암정, 관어정, 영춘정 등의 정자가 있다. 1971년 3월 남한산성과 함께 총 36.4km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 11) 대택산맥의 천령 부근에서 분기하여 서울 부근에 이르는 광주산맥의 지맥으로 남한산성과 연결되는 산줄기를 이루며, 높이는 531.7m이다. 경기도 성남시 동쪽으로 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유동과 중담동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로 높이는 277m이다. 작은 매지봉(274.5m)과 함께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를 이루는 맹산(412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형성하는데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에는 맹산과 매지봉을 묶어 영장산으로 표기하였다.
- 13) 한강의 지류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성남을 거쳐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35.6km의 준용하천으로 유역면적은 302km²이다.
- 14)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사무소와 탄천 사이에 있는 늪을 가르는 말로 현재는 이매동을 나타낸다. 이곳의 땅 모양이 대꽃잎이 떨어지는 형국에서 유래되었다. 일신에는 약 200년 전에 순홍 암씨가 입주하여 마을을 이루어, '임의 숲'이라고 부르다가 이매동 또는 임의곡으로 불렀다고도 한다.

〈표 4〉 수정구 초등학교 교가 가사 분류

학교명	지역	지명
금빛초등학교	수정구 태평동	남한산성
단대초등학교	수정구 단대동	남한산성, 검단산, 탄천
북정초등학교	수정구 북정동	•
성남북초등학교	수정구 산성동	•
성남서초등학교	수정구 태평3동	남한산
성남수정초등학교	수정구 수진2동	남한산
성남신흥초등학교	수정구 신흥2동	남한산
성남양지초등학교	수정구 양지동	남한산
성남초등학교	수정구 태평4동	남한산성, 영장산
성수초등학교	수정구 수진2동	•
수진초등학교	수정구 태평3동	•
왕남초등학교	수정구 고등동	•
태평초등학교	수정구 태평3동	•
희망대초등학교	수정구 신흥2동	남한산
성남송현초등학교	수정구 사송동	•

수정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가에는 남한산이 모든 가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단대초등학교에 검단산과 탄천이 각각 1번씩 언급 되었을 뿐이었다. 성남초등학교에 영장산(조선시대 제작된 고지도에 맹산과 매지봉을 묶어 영장산을 표기하였다.)이 등장한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남한산이 수정구에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원구

〈표 5〉 중원구 초등학교 교가 가사 분류

학교명	지역	지명
검단초등학교	중원구 하대원동	남한산, 매봉산
금상초등학교	중원구 금광1동	남한산
단남초등학교	중원구 금광1동	검단산, 남한산, 단대천
대원초등학교	중원구 상대원동	남한산
대일초등학교	중원구 상대원동	남한산, 검단산, 단대천
대하초등학교	중원구 하대원동	남한산
상대원초등학교	중원구 상대원1동	남한산성
상원초등학교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
성남동초등학교	중원구 금광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성남은행초등학교	중원구 은행2동	남한산
성남제일초등학교	중원구 중동	•
성남중앙초등학교	중원구 성남동	남한산
중부초등학교	중원구 은행1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중원초등학교	중원구 상대원1동	남한산
하원초등학교	중원구 금광1동	•
도촌초등학교	중원구 도촌동	•

중원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가에는 수정구처럼 가사에 남한산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검단초등학교에 매봉산, 단남초등학교와 대일초등학교에 검단산과 단대천¹⁵⁾이 등장하며, 성남동초등학교와 중부초등학교에는 가사에 지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중원구 또한 수정구와 불

15) 단천으로 유입되는 경기도 성남시의 13개 중천 가운데 하나로 남한산성 남문 아래의 계곡에서 발원하여 은행동 유원지와 단대오거리, 종합시장, 풍생중고등학교 앞을 지나 단천으로 흘러든다. 총 연장은 5.6km, 최대 하폭은 36m이다. 성남시의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으로 단대동을 지나간다 하여 단대천으로 붙여진 것이다.

어있으며, 남한산과도 인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의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의 초등학교 교가에 등장하는 지명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가가 그렇듯이 학교와 인접한 산과 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가장 많은 자연환경으로 산을 표현했고, 다음으로 많이 표현된 것은 강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타난 산은 '남한산'과 '남한산성'으로 성남에 대표적인 명산이자 명소인 것이다. 지역적 특성이 있는 문화재로는 남한산성이 유일한 것이다. 또한 위의 〈표 4〉,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정구와 중원구의 초등학교 교가 가사에는 대부분 '남한산'과 '남한산성'이 등장한다.

성남시의 지도를 확인하면 남한산 초입에 수정구와 중원구가 나뉘게 되는데 이 2개구의 초등학교 교가에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지형적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분당구에서는 남한산에서부터 청계산까지 다양한 산지명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 남한산 다음으로 유명한 지명인 탄천도 등장한다. 또한, 특이한 점은 효자촌, 오리뜰, 이무늬들, 양지마을 등의 지역명이 언급된 교가도 있다. 그 만큼 초등학교 교가에는 그 학교 위치가 그 곳에 꼭 필요함을 증명하려 하고 있으며, 지역명을 등장시켜 학생들에게 현실감과 친근감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교가 가사에 지명이 언급되지 않는 학교가 분당구에 3개교, 중원구에 2개교 모두 5개교가 지명 대신에 학교이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갖춰야 할 덕목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명들로 확인하면 성남지역이 지역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 성남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남한산이 있으며 성남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탄천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대별 기사분석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를 지역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시대흐름에 따른 교가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시대별로 교가를 분류하여 보았다.

〈표 6〉시대별 교가의 기사 분류

시대별	설립년도	학 교 명	지 역	지명
1930	1935	돌마초등학교	분당구 야탑동	남한산
	1936	성남초등학교	수정구 태평4동	남한산성, 영장산
1950	1954	분당초등학교	분당구 서현동	일장산
	1957	성남신기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숫개울
1960	1969	성남수정초등학교	수정구 수진2동	남한산
	1970	희망대초등학교	수정구 신흥2동	남한산
1970	1971	구미초등학교	분당구 구미동	불곡산
	1971	금빛초등학교	수정구 태평동	남한산성
	1971	검단초등학교	중원구 하대원동	남한산, 매봉산
	1971	대원초등학교	중원구 상대원동	남한산
	1971	상원초등학교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
	1971	중원초등학교	중원구 상대원1동	남한산
	1974	단대초등학교	수정구 단대동	남한산성, 검단산, 탄천
	1977	성남동초등학교	중원구 금광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1978	성남서초등학교	수정구 태평3동	남한산
	1978	성남중앙초등학교	중원구 성남동	남한산
1980	1981	성남은행초등학교	중원구 은행2동	남한산
	1982	단남초등학교	중원구 금광1동	검단산, 남한산, 단대천
	1987	대하초등학교	중원구 하대원동	남한산

시대별	설립년도	학 교 명	지 역	지 명
1980	1988	성남신흥초등학교	수정구 신흥2동	남한산
	1988	대일초등학교	중원구 상대원동	남한산, 점단산, 단대천
	1990	서현초등학교	분당구 서현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1990	1991	내정초등학교	분당구 수내동	매지봉, 청계산
	1991	당촌초등학교	분당구 분당동	성주봉
	1991	성남매송초등학교	분당구 이매동	청계산, 남한강
	1991	안말초등학교	분당구 이매동	덕산
	1991	초림초등학교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992	서당초등학교	분당구 서현동	성주봉, 효자촌
	1992	야탑초등학교	분당구 야탑동	남한산, 수내천
	1993	불정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불곡산
	1993	수내초등학교	분당구 수내동	성주봉
	1993	이매초등학교	분당구 이매동	이부슬들
	1993	중남초등학교	분당구 야탑동	점단산
	1994	백현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탄천
	1994	불곡초등학교	분당구 구미동	불곡산, 탄천
	1994	상남초등학교	분당구 야탑동	매지봉
	1994	성남미금초등학교	분당구 미금동	불곡산, 수지천
	1994	오리초등학교	분당구 구미동	오리뜰
	1994	청솔초등학교	분당구 금곡동	성주봉, 탄천
	1994	한솔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1995	금상초등학교	중원구 금광1동	남한산
	1999	중부초등학교	중원구 은행1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2000	2001	상대원초등학교	중원구 상대원1동	남한산성
	2002	성남양지초등학교	수정구 양지동	남한산
	2003	늘푸른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분당, 탄천
	2004	성남정자동초등학교	분당구 정자동	가사에 지명이 없음
	2009	산운초등학교	분당구 하산운동	청계

초등학교 교가 악보를 받지 못한 학교 16개교를 제외시키고 47개교만을 분류하였다.

성남시 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낙생초등학교로 1922년에 설립되었다가 2006년 판교개발과 더불어 휴교하였다가 2009년 재개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돌마초등학교가 1935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성남의 역사와 지리상으로 성남시가 생기면서 합쳐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남시에서 가장 역사 있는 초등학교는 1936년에 4월 남한산 공립국민학교 부설 수진리 간이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성남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제일 짧은 역사를 가진 학교는 운중초등학교와 산운초등학교로 2009년에 설립되었다.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초등학교가 많이 설립되었고, 이 당시에 성남시가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에는 판교가 재개발되어 이 지역으로 설립된 학교가 있다. 또한, 성남시는 예전에는 광주에 속해 있다가 1973년 시 승격을 받았다. 이에 198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교가에 남한산이 등장하고 있다.

그 후 1990년대부터는 많은 초등학교들이 설립되었고 다양한 지명이 나타난다. 이들 초등학교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남한산보다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가까이 있는 주변 자연환경을 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서 지역명 외에 문화재가 사용된 것은 '남한산성'이 유일하다. 금빛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 상대원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남한산성은 1963년 사적 제 57호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에 있는 조선시대의 산성으로 면적은 528,459㎡이다. 북한산성과 더불어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 중의 하나로,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를 활용하여

1624(인조 2)에 축성하였다. 남한산성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성터였다고도 한다. 소장관리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다.

성남시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광주시 문화재인 남한산성을 교가에 언급한 것은 아이러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접해 있는 학교에서는 행정구역상 타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화재로 알려져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성남시의 문화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문화재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101호 봉곡사대광명전, 102호 망경암 마애여래 좌상이 있고, 경기도 기념물에는 54호 이수 선생 묘, 84호 이경석 선생 묘, 116호 한산이씨묘역, 118호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179호 천립산 봉수지, 219호 둔촌 이집 선생 묘역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 자료에는 78호 수내동 가옥, 84호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 136호 풍산군 이종린 묘역 등이 있다.

이상의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을 더욱 잘 알고,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성남초등학교 교가분석

역사적, 지리적으로 성남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는 성남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에 있는 공립초등학교로 1936년 4월 남한산공립초등학교 부설 수진리간이학교로 설립되었으며 1948년 5월 성남국민학교로 승격되어 개교하였다.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 가장 역사적 가치를 지닌 성남초등학교의 교가를 분석해 보면 4/4박자로 24마디의 1, 2절로 작곡되었다. 17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는 후렴으로 이뤄졌고, A-B-B' -A' -C-D 형식으로 후렴구를 제외하고 처음 4마디와 13~16마디가 비슷하고, 5~8마디와 그 다음 9~12마디가 비슷하게 작곡되었으며, ??JJ의 부점을 사용하여

가사를 강조할 때 사용하였다. 조성은 바장조로 밝고 힘찬 느낌을 주며 높은 '레' 음과 기본 '도' 음이 각각 최고음과 최저음으로 초등학교 학생 음역에 적합하게 이뤄져 있다. 다만, 6도나 7도의 도약이 있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연주형태는 모두가 다 같이 부르는 제창으로 되어 있다.

가사를 살펴보면 학교의 이름과 성남시의 역사적인 학교로서 '성남의 터전'과 '성남의 등불'이 나오고 마지막에 '성남어린이'가 표현되었다. 지리적인 가사로는 '남한산성'과 '영장산'이 등장한다. 전체적으로 성남의 정기를 받아 착하고 슬기롭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밝은 기상을 노래하는 희망찬 분위기의 교가이다.

〈악보 5〉 성남초등학교 교가

김선옥 가사
이정심 편곡

1. 주 끈 감 이 영 굳 어 갈 성 남 의 터 전
 고운 - 누 리 마 어 나 갈 성 남 의 등 불

덕 사 되 는 남 한 한 성 정 기 를 만 고
 독 정 이 의 유 개 처 럼 락 은 벗 상 고

침 터 줄 와 밝 은 맑 물 자 림 모 남 과

차 차 고 슬 기 문 지 차 라 나 가 가
 만 차 고 튼 튼 하 지 차 라 나 가 가

근 뜻 들 면 치 라 강 은 가 지 라

우 터 는 이 대 밝 어 는 성 남 이 름 이

IV. 결론 및 제언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애국가
가 있다. 또한, 학교에는 그 학교를 상징하는 교가가 있다. 애국가나 교
가에는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환경을 가사에 표현하여 국민이나 학
생들에게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며 현실감 있고 더욱 친근함을 갖도
록 하고 있다.

교가는 학교의 창학 정신이나 교육이념을 요약하여 음악적인 수단으
로 표현하여 강조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애교심 고취와 친근감과 협동
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학교가 위치한 주변의 유명한 문화유적
지나 주변 환경을 가사에 표현한다. 산과 들, 강(천) 등이 가장 많이 언
급이 되고 있다. 성남시 63개 초등학교의 모든 교가의 악보를 확인했어
야 했지만, 16학교는 받을 수 없었고, 악보가 없이 가사만을 확인한 학
교가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63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47개교
의 교가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의 박자는 4/4박자가 대다수를 이룬다. 이
것은 교가라는 악곡의 성격인 힘찬 기상을 표현하기에 유리하고, 행진
하면서 부르기에 좋기 때문이다.

둘째, 교가의 조성이 모두 장조로 작곡되어 있다. 이것은 기쁨, 안정
성, 즉 밝고 힘찬 희망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가의 음역은 낮은 ‘도’ 음에서 높은 ‘레’ 음으로 대부분의 초
등학생들 누구에게도 부담이 없도록 작곡되어 있다.

넷째, 교가의 연주형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창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성남시의 초등학교 교가에 등장하는 지명은 산이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강(천)이 있고, 그 외에 지역 명들도 등장한다. 산 중에서

도 남한산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다.

여섯째, 성남시 초등학교의 설립연도를 보면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설립된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이 시기에 성남시가 많은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남한산이 가장 많이 등장했고, 그 이후로는 다양한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 초등학교의 교가를 통해 성남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운데를 탄천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이후의 교가에서는 학교의 위치와 근접하면서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지역명이 나타나고 있다.

교가에 나타난 문화재로는 남한산성이 유일한데 이것은 행정구역상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4개교에서 나타난다. 그 정도로 역사적 가치와 전국에 잘 알려진 문화재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할 때 성남시의 문화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성남시의 문화재를 잘 알고 더 나아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 번 지정되면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이 교가이지만 성남은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후의 설립되는 교가에서는 더욱 성남을 알릴 수 있는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2009년 9월) 현재 성남아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뮤지컬 〈남한산성〉이 2009년 10월 공연을 오픈하기 위해 리허설 중이다. 성남시에 서 성남의 문화와 성남시를 위한 작품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에 맞는 성남을 알리는 가장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소재를 선택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광주시의 문화재를 성남에서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성남시가 광주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며, 성남시에 남한

산이 인접되어 있어, 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가장 성남다운 역사와 문화(재)를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성남시립합창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남아리랑>이 더욱 성남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부터 탄천과 둔촌의 이야기를 거쳐 성남의 현재와 미래를 음악극으로 묶은 이 곡이야말로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곡인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성남시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양만규, 우리나라 교가 가사에 대한 연구, 남대문중학교.

백병동, 음악이론(현대악보 출판사, 1978).

문영일(1989), 『호흡과 발성』, 도서출판 청우.

논문

김서경(2008), “초등학교 교가의 음악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김재은(2008), “중학교 교가 분석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백은경(2008), “초등학교 교가의 분석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홈페이지

두산 세계대백과 Encyber.

위키백과사전

성남문화연구

1호(1994)

- 김창환(金昌煥), '城南市の 地形環境 研究'
박상규(朴相圭), '城南地域의 地名性格 考察' -百濟語와 高句麗語의인 要素를 中心으로-
어순영(魚順英), '民族文化宣揚에 관한 小考'
이형구(李亨求), '永昌大君 墓誌銘 發見과 永昌大君 略史'
장삼현(張三鉉), '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墳墓를 中心으로-
전보삼(全寶三), '碧巖 覺性禪師의 生涯와 思想'
한춘섭(韓春燮), '城南 漢詩 同人 [詩集] 資料 考察'

2호(1994)

- 김창환(金昌煥),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박상규(朴相圭), '城南市 地名研究' -壽井區 高登洞 '도랑터' 를 中心으로-
백남옥(白南郁), '百濟의 초기 疆域에 관한 研究'
어순영(魚順英), 전재일(全在烈),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전보삼(全寶三), '南漢山城의 民族精神 研究'
한춘섭(韓春燮), '모란地域의 鄉土史 정리'

3호(1995)

- 김창환(金昌煥), '성남시의 인구증가와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Ⅰ)'
박상규(朴相圭), '성남지역의 지명어 '재' 연구'
백남옥(白南郁), '고대 남한산고'
소진광(蘇鎭光), '성남의 산업구조'
장삼현(張三鉉), '금광동 광산 김씨에 관한 연구'
장철수(張哲秀), '경기지역과 동구릉의 문화적 연관성'
전보삼(全寶三), '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
한춘섭(韓春燮),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허창무(許昌武),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조병로(趙炳魯), '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Ⅰ)'

4호(1997)

- 허창무,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장철수, '南漢山城 百濟 始祖 溫祚王廟의 建立過程'

백남옥, '百濟 漢城時代의 都城에 관한 연구'
 조병로, '17, 8세기 南漢山城의 再修築에 관한 一考察'
 장심현, '南漢山城과 義理思想에 對한 研究'
 박상규, '三田渡 大正황제 공덕비문의 원문재구와 보존책에 관한 연구'
 전보삼, '南漢山城 文化財 現況과 保存策에 관한 研究'
 한춘섭, '남한산성 가들릭 殉敎史 고찰'
 김창환, '남한산성의 지형환경 연구'
 소진광, '南漢山城의 가치와 활용방안'

5호(1999)

백남옥, '삼국의 전성기의 성남지역에 대한 考察'
 조병로, '朝鮮後期 南漢山城의 修築과 防禦施設(II)'
 장철수, '남한산성 현질사의 建立過程'
 전보삼, '南漢山城 文化遺蹟의 保存과 懸案에 대하여'
 조유전, '南漢山城과 北漢山城 比較 研究'
 한춘섭, '邊村 李集의 研究'
 최종민, '경기도 동남부 지방의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연구'
 천희숙, '1920년대 조선 여자기독교청년회의 연합회의 농촌사업과 경기지역'
 소진광, '『삶의 집』 제고를 위한 성남시 정부의 역할'
 허창무, '城南과 溜陽間 姊妹都市 結緣의 歷史的 意義와 21世紀를 향한 協力強化 方 案'

6호(2000)

백남옥,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김기빈, '병자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천희숙, '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兪莊卿'
 한춘섭,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허창무,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장철수, '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박순임, '성남에 있어서 시민 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지고현,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방안'
 소진광, '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전보삼, '산성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7호(2001)

조병로, '朝鮮時代 天臨山烽燧의 沿革과 位置'
 백남옥, '조선후기 金陵 南公轍의 정치운영론'
 김기빈, '남한산성의 門樓・樓宇・寺刹 등의 명칭에 대한 小考'
 한춘섭, '近現代 城南의 歷史 試論'

지교현, '성남「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원형'
허창무, '가칭『성남시향토문화전자대전(CD-Rom)』의 연구 계획'

8호(2001)

조유진, '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古代歷史)'
백남옥, '高麗末과 朝鮮初의 城南地域에 관한 考察'
문수진, '성남시의 集姓村 研究'
김기빈, '성남시 관내 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 研究'
지교현, '“삼학사전”과 함청의리의 유학적 평가'
천화숙, '한국근대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 -YMCA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춘섭, '학고(鶴巢) 권오선 文士의 漢詩 연구'

9호(2002)

백남옥, '伯濟國'의 성립과 성남지역'
문수진, '羅末麗初의 支配勢力과 城南'
조유진, '發掘調査를 통해 본 南漢山城 行宮址'
정은경, '19세기 城南地域의 농민항쟁'
서승갑, '일제 강점기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한춘섭, '박태현 작곡가의 예술활동 연구'
김기빈, '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研究(2)'
한동역, '일제에 의해 변경된 성남지역의 지명연구'
박종민, '널다리 쌍용줄다리기의 내용과 의미'

10호(2003)

김기빈, '성남지역의 「地名偶合」 또는 「豫言性」 지명의 사례연구'
박종민, '지역사회 喪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백남옥, '百濟 初期의 領域擴大와 地方統治'
서승갑, '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전보삼, '성남의 정체성에 관한 일고찰'
정은경, '근대 城南地域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한동역, '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
한춘섭,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11호(2004)

채수명, '탄천문화 방출방법론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천화숙, '조선후기 강위의 개화사상'
한동역, '울리마을 구비문화 연구'
한춘섭, '龜川君 생애에서 얻어진 詩文 研究'
허흥식, '樂生地域 延安李氏의 世居와 重要자료'

현영조, '환경과 문화관점에서 본 도시공간 연구'

12호(2005)

조유진, '분당지역의 선사문화 시론'

김덕목, '성남의 무속신앙'

채수명, '모란시장문화 창출방법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천은복, '성남지역의 불교의례 연구'

한동역, '성남지역의 왕실문화의 연구 II'

한춘섭, '성남의 忠孝 인물 조사'

13호(2006)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 삼죽오의 위상과 가치'

문수진, '조선 초기 성남의 인물 검토'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죽오 신앙에 대하여'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윤종준, '조선의 유형 집행과 양녕대군 이제의 광주 안치'

14호(2007)

한춘섭,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찾기'

손환일, '조선시대 경기도 성남지역 금석문의 서체'

문수진, '양란의 극복과 성남지역'

이 영, '남한산성의 원형경관 복원에 대하여'

윤종준, '한말 성남지역 의병전쟁 연구'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세계'

15호(2008)

손환일, '경기도 성남지역 조선시대 석비의 표제양식과 서체고찰'

윤종준, '천림산 봉수 복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봉수 운영의 실태'

김위성, '성남시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개선연구'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조남두, '성남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연구'

이수철, '지방화 시대에 문화적 요구의 대응을 위한 성남문화원의 역할'

학술회의

제1회(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 백남옥, '백제한성시대의 남한산성'
조병로, '최근에 발견된 남한산성수축비에 대하여'
진 완,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전보삼,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張 杰, '병자호란과 조선'
박상규, '지명어를 통해서 본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
치용걸, '한국의 산성연구 동향과 과제'
小田富士雄, '서일본 고대산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성과'
孫玉良, '동북 역대산성의 흥망성쇠 약술'
소진광,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2회(남한산성과 삼학사)

- 유승국, '남한산성과 삼학사의 절의정신'
千文甲, '삼학사의 민족정신과 그의 기념비'
전보삼, '한·중 사행로 답사 보고'
정옥자, '병자호란시 삼학사의 활동과 의의'
장철수, '조선 현절사의 건립배경'
張玉興,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한춘섭, '삼학사의 시문학 고찰'
姜相順, '삼학사 사상과 인조와의 갈등'
지교현, '상도와 권변의 생존철학'

제3회(향토인물연구-둔촌(遁村) 이집(李集)선생)

- 민병하, '둔촌선생의 성리학적 지위(遁村先生の性理學的 地位)'
최영희, '갑자사화와 광이(甲子士禍와 廣李)'

제3회(향토인물연구 -여류문사, 강정일당)

- 한춘섭, '한국여인의 표상(여류문사 강정일당 작품세계)'
김미란, '강정일당의 생애와 문학(姜靜一堂의 生涯와 文學)'

제4회(향토인물연구 -白軒 李景奭과 金陵 南公轍)

이성무, '성남문화와 백헌 정신'
신원봉, '백헌 이경석의 노검정신'
이은순, '백헌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
강혜선, '백헌 이경석 시세계 연구'
이장희, '정조 순조연간의 학풍과 남공철의 위상'
지교현, '금릉 남공철의 생애와 학문'
박순임, '금릉 남공철의 문학론'

제5회(향토인물연구 -문정공 한계희)

문수진, '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
지교현, '울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독립운동'

제6회(향토인물연구 -아천군 이증)

정은경, '선조조 정치세력의 동향과 이증의 활동'
박순임, '이증의 한시 연구'

제7회(조선시대 청백리정신의 현대적 조명)

이서행, '공직부패와 청백리 윤리'
문수진, '조선시대 청백리제도와 기능'
한춘섭, '탄천 이지직의 청백리 정신'
지교현,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제8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유준기, '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 항쟁'
서승갑,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한상도,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제9회(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손정목, '8.10사건의 경위 -서울시의 입장에서'
하동근, '8.10사건에 대한 입장들'
박태순, '밑에서부터 본 8.10사건'

제10회(성남지역에서 천장된 역사인물 연구)

박상건, '남이흥(南以興)장군의 생애(生涯)와 충장정신(忠壯精神)'
정성희, '정묘호란 시기 안주성 전투와 남이흥 장군'
한춘섭, '삼봉 이극중의 인물 알기'
유주희, '이극중의 생애와 정치활동'

제11회(삼죽오와 성남문화)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 삼죽오의 위상과 가치'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죽오 신앙에 대하여(발해 연안 鳥類 숭배 사상과 聯關하여)'

허흥식, '삼죽오의 동북아시아 기원과 사상의 계승'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제12회(판교의 문화와 전통)

현영조, '판교의 전통적 경관에 관한 연구'

서승갑, '조선시대 교통망에서 본 판교'

신익철, '판교와 한시'

최은수, '복식류에 표현한 금박에 관한 소고'

제13회(판교 · 도촌지구 발굴문화재의 보존방안)

윤선영, 판교 지구 문화유적 발굴의 성과

안성민, 판교 지역 문화유적의 시대구분과 문화사적 의미

김주홍, 성남지역 문화재 분포현황과 보존의 방향

윤종준, 성남의 역사적 특징과 문화유적 보존방안

제14회(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

윤종준, '모란의 과거와 미래'

이수철, '모란 민속 5일장의 사회사적 의미'

이상열, '모란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손환일, '간판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

학술토론회

제1회(松山 조건 인물 연구)

문수진, '고려말기 정세(高麗末期 政勢)'

한춘섭, '송산 조건 인물 연구(松山 趙翊 人物 研究)'

제2회(판교지역 연성군 이곤 금석문 연구)

허흥식, '향토사와 문중에서의 역할'

한춘섭, '연이, 연성군의 가계연구'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의 양식 · 문양 · 서체에 관하여'

이민식, '연성군 문중의 금석문 분포현황과 성격'

제3회(조선 초기 광주이씨 인물연구)

김문택, '탄천 이지직의 관직생활과 청백리'

배 성, '이극규의 생애와 정치활동'

김학수, '이극기의 가계와 관직활동'

박병련, '조선전기 士林(勳舊 葛藤과 士林이데올로기의 政治的 政當化'

한춘섭, '廣孝 門中 武人 列傳'

제4회(전주이씨 신종군 이효백 연구)

이용규, '신종군 이효백의 가문과 생애'

윤종준, '신종군 이효백의 시대적 배경'

손환일, '신종군 이효백 묘소의 조성물'

제5회(동천 남상목 의병장 공훈 재조명)

김상기, '남상목 선열의 의병운동의 역사적 배경' (기조강연)

윤종준, '남상목 의병부대의 정미의병과 무장투쟁'

서승갑, '동천 남상목 의병장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과 기념사업 추진 방향'

제6회(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

문수진, '조선의 건국과 청주한씨의 성장'

손환일, '경기 성남 율동 청주한씨 세장지(世葬地)의 석조물'

손미숙, 한지원(韓智源)묘역의 석물 고찰
권영애, 한명옥(韓明勳)묘역의 석조물에 대하여
이재목, 한진(韓旬) 묘역의 석물과 서체고찰
한동익, 栗洞 淸州韓氏 家系정리

제7회(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한동익,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윤종준, '성남출신 의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서승갑,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강진갑, '성남지역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편집위원

한춘섭(성남문화원장)

문수진(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손환일(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윤충준(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정진(성남문화원 사무국장)

이보영(성남문화원 총무과장)

성남문화연구

제16호

인쇄 : 2009년 9월 15일

발행 : 2009년 9월 20일

발행인 / 한 춘 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26

전화 / (031) 756-1082, 1028

팩스 / (031) 756-1056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culture.or.kr>

e-mail / culture1082@hanmail.net

제작 / 한누리미디어

전화 / (02) 379-4514, 4519

팩스 / (02) 379-4516

e-mail / hannury2003@hanmail.net

※이 책은 성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THE JOURNAL OF SEONG-NAM CULTURE

Vol.16

September, 2009

| Contents |

Article

- | | |
|----------------|--|
| Moon, Soo-jin | The Rural Market of Choseon and The Rural Market of Moran. |
| Son, Hwan-il | Modern putting to practical use strategy of Korean Paper(韓紙) |
| Jo, Nam-doo |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Preschool Education in Seongnam City |
| Yoon, Jong-jun | The origin and history of Tancheon - stream |
| Kwon, Il | The Study of a local festival development in Seongnam |
| Hong, Sung-il |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an elementary school song in Seongnam City |
-

Publish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N PROVINCIAL
CULTURE OF SEONG-NAM**

6926, Shinheung1-dong, Sujeong-gu, Seongnam-City, 461-161, KOREA